

ISSN 2734-1275
eISSN 3059-006X

제6권 제2호

Vol. 6, No.2, Dec 2025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2734-1275
eISSN 3059-006X



제6권 제2호

Vol. 6, No.2, Dec 2025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목 차

-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통한 역전이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 개발**
 : 프리드리히 니체를 중심으로
 박성동 1
- **경험 기반 학교 설계 활동이 예비 특수교사의 이중특수(2e) 학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안재현 23
-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 장애 정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전해영 55
-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상호작용과 경계**
 : 르페브르 사회적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김은빈, 조하리, 이교일 77

-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 의도 인식 차이**
 툴리완굴라 피터, 정진자 107

-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 및 적용 경험**
 : ICT 개발자와 사용자의 경험(관점)을 중심으로
 김보미, 문영임, 송채은 137

- **호주 NDIS 개혁 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도에의 함의**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문영임, 이승기, 장진영 167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001 - 022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통한 역전이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 개발 : 프리드리히 니체를 중심으로

박성동*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주인공 영혜의 침묵과 ‘나무-되기’ 서사를 정신병리로 환원하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가능성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혜와 마주한 인혜의 감정 반응을 단순한 연민이나 공감만이 아닌, 자기 존재의 균열을 자각하게 하는 감응의 순간, 곧 ‘역전이’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 반응이 억제하거나 도덕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해석과 윤리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감정-존재-해석의 흐름을 구조화한 역전이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 NEAR(Narrative Reception-Existential Recognition-Attunement-Reflective Interpretation)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 모델은 타자의 침묵과 해석 불가능성 앞에서 유발된 감정 반응을 존재론적 사유로 전환하고, 윤리적 감수성을 훈련하는 감응 기반 훈련 체계로 기능하는데, 이를 통해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철학적 자원으로 전환되며,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인이 자기 존재를 되묻고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제시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

주제어 : 역전이, 프리드리히 니체, 자기 해석, 초인, NEAR 모델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I. 서론

1. 해석 없는 억제: 한국 정신의료의 민낯

2023년 11월,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 침대에 사지가 묶인 채 방치되던 환자가 같은 병실 내 타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하루 뒤, 동일 병원에서는 또 다른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지가 묶이고 가림막에 둘러싸인 채 기저귀가 채워진 상태로 다인실에 격리되었다. 병원 측은 '격리실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내 격리실 두 곳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경태, 2024.7.30).

이 사건은 한국에서 정신 의료 현실이 치료보다 통제와 편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환자의 행위는 특정 신호나 관계적 요청으로 해석되기보다,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으로 억제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침묵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환자의 표현은 돌봄과 응답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역시 은폐된다. 그 결과, 환자의 고통은 의미화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의료인의 감정 또한 비가시화되고 억압된다.

신권철은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강박이 '치료의 외피를 쓴 통제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본래 범죄에 해당하는 신체 억제 행위가 의료라는 명분 아래 제도화되며, 정신의료 공간이 돌봄의 장소가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법 바깥의 예외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료적 긴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박은 환자의 고통을 해석하고 응답하려는 시도 없이, 생물학적 신체로 환원을 통해 관리·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신권철, 2023). 이때 환자는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의료는 해석이 아닌 기술적 제압과 제도적 무책임의 구조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영혜의 사례와 깊이 연결된다. 주인공 영혜는 육식을 거부하고, 점점 말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그녀는 '나무-되기'를 통해 자기 존재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녀의 '나무-되기'는 언어적으로도, 심리화적으로도 쉽게 해석되지 않으며, 영혜를 둘러싼 인물들도 이를 정신분열증으로 간주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하지만 이 소설은 영혜를 단순히 병리적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강 작가는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 이를 억압하려는 사회 구조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묘사한다. 이 장면은 바로 마지막 장 '나무 불꽃'에서 영혜의 언니인 인혜가 영혜를 바라보는 내뱉는 독백을 통해서 묘사되는데, 그녀는 자신 또한 영혜처럼 되었

을 수 있었음을 독백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 잠정적 동일시의 순간은 타자(여기서는 영혜)의 침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나아가, 타인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감정적 동요를 계기로 자기 존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장면을 단순한 감정적 공명이 아닌, 의료인이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의 철학적 잠재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니체의 철학—도덕의 해체, 고통의 예술화, 자기극복—을 이 감정 반응에 접속시킴으로써, 이해되지 않는 타자 앞에서 발생하는 무력감과 당혹감은 억제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인 자기 해석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즉, 인혜가 영혜 앞에서 느끼는 감정 반응을 삶의 전복을 유도하는 해석적 감응으로써 두고, 오히려 이를 의료인이 자기 존재를 다시금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자기 해석 훈련의 출발점으로 재구성 시켜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EAR(Narrative Reception-Existential Recognition-Attunement-Reflective Interpretation)라는 감정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모델은 『채식주의자』 속 인혜의 감정 반응과 니체 철학의 사유 구조를 분석 근거로 하여, 해석 불가능한 타자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의 동요를 자기 존재를 되묻는 전환의 계기로 삼도록 유도하는 4단계 구조로 개발되었다. 본 모델은 도덕적 정답이나 규범적 공감을 가르치는 체계가 아닌, 감정 반응을 자기 성찰과 존재 해석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장치로 설계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다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임상 적용이나 효과 검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그 철학적 타당성과 문학적·간호윤리적 정합성을 논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덧붙여 밝힌다.

II. 전환의 순간: ‘영혜-되기’

1. 『채식주의자』의 서사 구조와 영혜의 타자성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총 세 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소설로, 영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전개된다. 주인공 영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에서 채식주의자로, 다시 형부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 근친적 금기를 넘나드는 인물로, 마침내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존재로 변화하는데, 이와 같은 영혜의 변화는 단순히 이해의 어려움을 넘어, 독자에게 현실의 의미화 체계가 교란되

는 감각마저 유발시킨다. 결국 소설 속 인물들이 영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낮췌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우리 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영혜는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제3부 「나무 불꽃」에서는 이 구도가 잠시 흔들린다. 이 장에서 영혜를 바라보는 인물은 그녀의 언니 인혜다. 인혜는 영혜를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며,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영혜의 병원 입원을 주도하고 현실적 조치를 취하려 애쓰게 되는데, 점차 그 노력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병상에 누워 나무가 되기를 고집하는 영혜 앞에서, 인혜는 그 어떤 해석의 언어도 작동하지 않는 벽과 부딪힌다. 이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 또한 그렇게 되었을 수 있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녀는 독백한다.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혜를 이해했다. ...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만팔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속함이 아니라 비접합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이 장면은 인혜가 더 이상 영혜를 외부의 타자로만 응시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존재 조건 속으로 영혜를 받아들이는 일시적 감응의 순간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 영혜의 고통과 침묵이 인혜의 내면에 잠정적으로 스며드는 ‘영혜-되기’의 체험적 접속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인혜는 여전히 영혜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존재가 자기 내부의 언어로 번역될 가능성의 문턱에는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무 불꽃」은 『채식주의자』 전체를 통틀어, 영혜의 존재가 타자에게 감응되고 잠정적으로 번역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유일한 장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 번역은 끝내 완성되지 않으며, 인혜는 다시 거리를 두고 영혜의 곁을 떠난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그 짧은 감응의 순간은 인혜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감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들며, 기존의 규범적 해석 체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은 분명 괄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 균열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 이에 본 연구는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개념을 도입한다.

Ⅲ. 역전이: 감정의 전환 가능성

1. 전통적 역전이 개념과 그 한계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원래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치료자가 환자를 대면할 때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나 무의식적 반응을 일컫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분석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다. 역전이는 환자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거나, 분석자의 미처 해소되지 않은 개인적 과거가 투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재는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하인즈 코헷(Heinz Kohut)과 도널드 윈니컷(Donald Winnicott) 등은 기존에 억제 대상으로 간주되던 역전이를,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임상적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재조명하였다. 이처럼 역전이는 단순한 오류나 방해요인이 아니라,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핵심적 장면이자, 감정 반응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상 현장과 교육 체계에서는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조심스러움을 유지한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오히려 치료의 방향을 흐릴 수 있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환경처럼 객관성과 통제 가능성이 강조되는 체계에서는, 치료자의 감정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전이는 여전히 '억제해야 할 감정'과 '활용가능한 통찰'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 이를 단지 감정적 동일시나 연민으로 보기에는, 인혜의 반응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내파된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인혜가 영혜를 대면하며 느끼는 감정적 흔들림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2. 인혜는 왜 흔들렸는가: 감응에서 역전이로

『채식주의자』 제3부 「나무 불꽃」에서 인혜는 영혜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하려 애쓰는 인물이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영혜의 모습 앞에서, 인혜는 점차 자신이 익숙하게 활용하던 해석 언어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그 순간, 인혜는 설명 불가능한 감정적 흔들림을 겪는데,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 이입을 넘어선, 영혜라는 타자와 마주하면서 자신의 내면이 불가피하게 교란되는 정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감응은 인

혜의 독백을 통해 더 깊이 드러난다.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었다”*

이러한 인혜의 고백은, 인혜가 영혜를 통해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침묵 속에서 틈이 생기고 있음을 직면하는 장면이다. 영혜는 더 이상 병리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혜 자신의 억압된 감각과 무감한 생을 환기시키는 타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혜가 겪는 고통이 자신도 이미 지나왔거나, 거기 닿을 수도 있었다’는 깨달음은, 타자의 존재가 곧 자기 해석의 경계까지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혜가 느낀 감정은 전통적인 의미의 역전이, 즉 치료자의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정의를 넘어선다. 여기서의 역전이는 특정한 임상 기술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통해 자기 해석이 발생하는 근원적 감응 현상으로 확장된다. 인혜는 영혜의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무언가’를 불현듯 자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실함’이라는 자기 규율이 사실은 ‘비겹함’이었음을 깨닫는다. 이는 역전이의 본질적 작동 방식—타자 앞에서 자신의 존재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곧 의미 구성의 출발점이 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인혜의 감정 반응은 억제하거나 객관화되어야 할 감정이 아닌, 자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채식주의자』는 이러한 감응의 구조를 가장 섬세하게 구현한 서사로서,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의 조우가 어떻게 존재론적 균열과 성찰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응의 순간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도입시킨다.

IV. 감정과 초인: 니체적 전환

1. 고통과 감정의 재창조: 프리드리히 니체의 존재 철학

니체는 고통과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제해야 할 병리적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단순한 결핍이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를 재구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갱신하는 실존적 계기로 이해하였다(손유나, 2021). 특히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인간이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무의미함으로 인해 더욱 깊은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였다(프리드리히 니체,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단순한 병의 징후가 아니라,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표지이며, 감정은 이 가능성을 작동시키는 정념의 힘으로 이해된다(손유나, 2021). 이런 니체에게 초인이란 고통을 제거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자기만의 고유한 힘으로 전환하는 자이며, 이는 곧 고통과 감정을 존재론적 변형의 기점으로 삼는 능력을 지닌 자라고 볼 수 있다.

니체에게 있어 초인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해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감정 안에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발명하는 것, 니체는 그것이야말로 ‘예술가적 인간’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고통과 감정은 인간을 철학 하게 만들고, 무력한 순응이 아닌 생성의 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 이전의 삶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 감정과 감응을 교육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철학적 자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허나 여전히 의구심은 남는다. ‘나무-되기’라는 불가능한 변신 욕망을 지닌 영혜와, 그런 영혜를 대면하는 인혜의 서사 속에서 어떻게 니체의 사유가 개입되는가? 본 연구는 그 해답의 실마리로서 영혜라는 인물을 ‘초인의 원형’으로, 즉, 영혜를 기존 의료체계의 객체가 아닌 실존적 주체로 재구성해 볼 것이다.

2. 초인으로서의 환자: 영혜를 통한 해석 구조의 전복

『채식주의자』의 영혜는 극단적 단식을 통해 스스로 인간의 언어와 사회 규범을 거부하고, ‘나무-되기’라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를 표현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타자의 시선이나 도덕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규범 질서를 파괴하며 자기 존재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인물이다. 이는 니체가 말한 초인의 원형과 깊이 연결되는데,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고통을 도피의 이유로 삼지 않으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는 점에서 영혜라는 인물과 맞닿아있다. 영혜는 극단적 단식으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무-되기’라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형상화한다. 이런 그녀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으로 쉽게 환원되지만, 니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미학적 실험이자 윤리적 도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형부가 영혜의 눈빛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시선이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긴,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비워진 눈이였다. 아니, 어쩌면 어린아이도 되기 이전의, 아무것도 눈동자에 담아본 적 없는 것 같은 시선이였다.”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인혜가 영혜를 묘사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한 ‘어린아이’의 존재론적 상징을 연상시킨다. 니체에게 있어 어린아이는 ‘무죄이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이며 자발적인 수레바퀴이며 성스러운 긍정’이라는 점에서 영혜의 눈빛은 단순히 순진하거나 공허한 인상이라기보다, 도덕과 규범, 욕망과 해석 이전의 세계를 응시하는 시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기존 가치 체계의 저편에서, 새로운 존재의 기원을 암시하는 초인의 원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영혜의 모습은 소설 곳곳에 묘사된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근육이 긴장돼 있고, 의식을 놓은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는 서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는 영혜가 단순한 무력감이나 퇴행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오히려 이는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몰입, 즉 고통을 창조적으로 통과하는 황홀의 상태에 가깝다. 영혜는 기존의 자아가 해체된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응시하며, 단순한 탈인간적 상태를 넘어선 존재의 극한에서 집중하고 있는 창조적 주체로 재현된다. 즉, 영혜는 기존 인간성과 결별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전이하려는 실존적 결단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3. 노예도덕의 균열: 초인을 마주한 인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혜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인혜는 영혜의 언니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감과 도덕적 역할을 수행하려 애쓰는 인물이다. 그녀는 영혜를 정신적으로 무너진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상’의 삶으로 회복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연민이나 선의로 보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인혜의 도덕적 충동은 니체가 비판하는 노예도덕의 구조와 정확히 겹치게 된다.

니체에 따르면, 노예도덕은 권력 없는 약자, 억압된 자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고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킨 도덕 체계인데, 이 도덕은 강자의 힘과 자기긍정 같은 가치를 ‘악’으로 간주하고, 약자에게 유리한 겸손, 인내, 복종, 동정 등의 태도를 ‘선’이라 부르며 자기

가치를 정당화한다. 즉, ‘나는 착하니까 약한 것이 아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하다’는 식의 가치 전복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체계는 근본적으로 강자를 직접 응시하고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그들을 악이라 규정하며 반사적으로 자기 선함을 구축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윤리 형식이다. 마찬가지로 인혜는 영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상적이지 않다’, ‘치료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개입을 시도하는데, 이는 영혜라는 초인의 형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존 제도와 도덕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인혜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 ‘옳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즉, 인혜는 자신의 해석 불가능성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대신, 영혜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신을 ‘선한 자’로 규정지으려 한 것이다. 이는 니체가 말하는 노예 도덕의 패턴 그대로다.

그러나 문제는 인혜의 이러한 도덕성이 영혜의 존재 방식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진다는 점이다. 영혜는 해석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으며,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 ‘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침묵 속에서 기존 도덕과 의학의 언어를 넘어서는 존재 방식으로 이행한다. 이 순간, 인혜는 자신이 믿어온 도덕의 구조, 선함의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노예도덕이 초인 앞에서 가장 큰 공포로 드러나며, 노예도덕의 자기 해체 국면, 즉 약자의 도덕이 초인을 마주할 때 겪게 되는 내면적 붕괴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감응의 과정에서 인혜는 자신의 연민이 얼마나 규범적 억압이었는지를 깨닫는 동시에,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열은 인혜를 자기 해석의 문턱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영혜를 통해 자신이 오래 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노예도덕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인혜는 존재의 물음 앞에 서게 된다. 그녀가 영혜를 통해 감지한 고통, 침묵, 그리고 해석 불가능성은 단지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노예도덕의 붕괴를 통해 발생하는 존재론적 감응의 징후인 것이다. 물론 인혜는 끝내 영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인혜가 나무들을 향의하듯 바라보는 장면은 이러한 한계를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그녀는 여전히 ‘나무-되기’를 선택한 영혜의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앞에서 분노와 불안을 느끼며, 이해 불가능한 타자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내부의 도덕 체계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낸다. 그러나 바로 그 이해 불가능성 자체가, 인혜의 내면에 존재 해석의 균열을 촉발시키고, 영혜를 암묵적으로 초인으로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와 영혜가 그렇게 경계를 뚫고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모래산처럼 허물어뜨리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사람은 바로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무너졌다면 돌아

오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영혜가 토한 피는 그녀의 가슴에서 터져나왔어야 할 피일까.”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행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인혜의 독백은, 영혜가 도달한 존재의 극한이 거울처럼 인혜 자신의 삶을 비추며, 무감각하게 유지되어온 일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더 나아가 인혜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던지기 시작한다.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만을 영혜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이 물음은 인혜가 영혜를 더 이상 단순한 병리적 존재로 보지 않으며, 자신을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을 넘어서는 존재,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형식의 초월적 주체로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즉, 『채식주의자』 속 영혜는 단순히 기존 질서의 탈락자가 아닌, 오히려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자기 존재를 새롭게 생성하는 초인의 원형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영혜는 더 이상 의료적 해석의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유발하고, 그 감정을 통해 자기 존재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주체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인혜는 영혜를 직면하며 기존의 설명 가능한 언어와 도덕적 규범이 무력해지는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일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성찰적 움직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응의 순간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전통적 위계를 전복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즉, 환자의 감정은 더 이상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오히려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도래되는 존재론적 질문의 실마리로 재위치화된다. 결국 영혜에 대한 인혜의 감응은 기존 의료적 시선이 환자의 감정과 해석을 일방적으로 독점한다는 전제 자체를 붕괴시키며 감응의 윤리, 아니 더 나아가 존재의 윤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발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V. 역전이 기반 자기해석 훈련 모델(NEAR)

1. 감정은 훈련될 수 있는가: NEAR 모델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 속 인혜의 감정 반응을 단순한 심리적 동요나 도덕적 공감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기 존재의 균열을 자각하게 하는 감응의 순간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혜라는 인물은 병리적 존재가 아닌, 인혜로 하여금 자기 해석을 유도하는 타자, 즉 초인의 원형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인혜의 감정 반응은 억제하거나 윤리적 언어로 혼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석과 성찰을 유도하는 철학적 자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따른 복합적 감정의 구조를 정신분석학의 ‘역전이’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자기 존재를 되찾게 하는 해석적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저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정 반응을 자기 해석의 훈련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감응 기반 훈련 체계, 즉, NEAR(Narrative Reception - Existential Recognition - Attunement - Reflective Interpretation) 모델을 도입해 볼 것이다.

2. NEAR 모델이란 무엇인가: 감정에서 해석으로, 해석에서 훈련으로

NEAR 모델은 ‘해석 불가능한 타자’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의 동요를 억제하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존재론적 사유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감응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된 이 모델은 Narrative Reception(서사의 수용), Existential Recognition(존재론적 인지), Attunement(정서적 감응), Reflective Interpretation(해석 기반 성찰)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의료인이 타자 앞에서 경험하는 감정 반응—곧 ‘역전이’를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닌 자기 해석과 윤리적 성숙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주의할 점은 이 모델이 기존의 도덕 교육처럼 정답 중심의 도덕 판단이나 이상화된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도덕 판단 이전의 감응, 즉 타자의 침묵과 고통이 나에게 일으키는 불안, 분노, 당혹감, 무력감, 죄책감과 같은 감정 반응 자체를 해석 가능한 사유 자원으로 삼는데 주안점을 두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이 결코 타자에 대한 왜곡된 투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의 입구이자 윤리적 구성 가능성을 여는 철학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NEAR 모델은 이 과정을 역전이 개념에 기반한 해석 훈련 구조로 체계화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NEAR 모델의 구성 및 단계별 이론적 정당화

(1) Narrative Reception(서사의 수용)

이 단계는 환자의 말, 침묵, 몸짓, 반복행위 등 모든 표현을 병리적 증상이나 정보로만 취급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삶의 맥락과 감정 구조를 해석 가능한 서사로 수용하려는 인식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서사 의학을 기반으로, 환자는 신체적 고통의 집합이 아닌 자기 서사를 살아가는 존재이며, 의료인은 이를 경청할 수 있는 해석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해야 한다. 즉, Narrative Reception은 해석의 시작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청취 조건을 구성하는 전(前)해석 단계로서 기능한다.

이 단계에서 역전이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지만, 환자의 침묵이나 파편적 언어를 ‘해석 불가능성’으로 처음 인지하면서, 의료인 내면에 미세한 불편함, 긴장, 거리감 등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정은 이후 단계에서 명확한 역전이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는 그 감정 반응의 ‘발생 조건’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2) Existential Recognition(존재론적 인지)

‘존재론적 인지’ 단계는 환자의 고통, 침묵, 저항, 무반응 등 이해 불가능하거나 규범 밖의 표현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해석 불가능성 자체를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적 전환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는 환자를 일정한 질서나 의미 체계 속에 끼워 넣으려는 충동을 멈추고, 의료인이 타자의 침묵에 머무를 수 있는 감응적 공간을 마련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역전이는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다. 이해되지 않는 타자와 마주한 의료인은 불안, 무력감, 거부감, 초조함 등 자기 내부에서 솟구치는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며, 이는 해석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한 감정 반응으로 드러난다. Existential Recognition은 바로 이러한 역전이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이나 진단 이전에 수용해야 할 감응의 조건으로 재위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때 감정은 해석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된다.

(3) Attunement(정서적 감응)

‘정서적 감응’ 단계는 의료인이 환자의 말투, 억양, 침묵의 길이, 반복적 표현 등 표현의 방식 자체에 내적으로 조율되며 감응하는 정서적 청취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환자의 말이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발화되고 머뭇거리는지를 통해 감정의 떨림을 감지하고 동조하는 훈련이다.

이 단계는 역전이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데, 타자의 고통이나 침묵 앞에서 의료인은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연민, 피로, 두려움, 무력감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타자가 아니라 자기 내면 구조를 드러내는 신호로 기능한다. ‘정서적 감응’은 이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지 않되 그에 동일시하지 않고 감정 상태를 하나의 인식 대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세를 훈련하게 된다.

즉,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라고 즉시 해석하지 않고, “지금 이런 감정이 떠오르고 있다”는 자각을 통해 감정과 자신 사이에 인지적 거리와 정서적 여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감정은 무분별하게 표출되거나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준비 상태로 보류되며, 다음 단계인 성찰과 해석을 위한 자원으로 축적된다.

(4) Reflective Interpretation(해석 기반 성찰)

‘해석 기반 성찰’ 단계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반응, 특히 역전이를 통해 드러난 자기 해석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감정은 단순한 정서 상태가 아니라, 의료인이 내면화한 도덕 기준, 판단 습관, 직업적 태도 등 자기 안의 전제 조건들이 작동한 결과로써 나타난 징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의 성찰이 단순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를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에게 그 감정이 작동한 방식과 배경을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그 전제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사회적·제도적 구조에 기반하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옳다고’, ‘정상이라고’, ‘문제라고’ 여겨왔는지를 해체적으로 되묻는 자기 해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꼈다면, 그 반응은 단순히 환자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의료인이 ‘순응적 환자’라는 전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해석 기반 성찰’ 단계는 이처럼 감정을 통해 드러난 전제들을 언어화하고, 감정을 자기 윤리 감수성의 근거로 사유화하는 전환점이 된다. NEAR 모델은 이 최종 과정을 통해 감정에서 철학으로, 반응에서 자기 해석으로 나아가는 성찰적 구성의 훈련을 완성하게 된다.

2) 인혜의 서사를 통해 본 NEAR 모델의 단계별 작동

그렇다면 이 NEAR 모델의 네 단계가 어떻게 인혜에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고로 지금부터는 인혜가 영혜라는 해석 불가능한 타자 앞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고,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도덕화하지 않은 채 점차 성찰의 계기로 전환해나가

는 과정을 설명해볼 것이다.

(1) Narrative Reception(감정 동요의 서사적 시작)

인혜는 동생 영혜의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라는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언니로서의 감정적 동요를 경험한다. 즉, 인혜에게 있어 이 질문은 단순한 자살 충동의 표현이 아닌, 인혜의 내면에 존재하는 과거의 잊혀진 서사를 불러일으키는 감응의 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인혜는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그 질문에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옳았을까. 그걸 대체 말이라고 하느냐고, 온힘을 다 해 화라도 냈어야 했을까.”

이 순간, 인혜는 영혜의 발화를 단순한 병적 증상이나 논리적 오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언어로 반응하지 못했던 무력감과 당혹을 고백하며, 그 말의 의미를 되묻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말해진 것의 의미를 자기 내부에서 서사로 연결하려는 청취의 전환이 된다. 이어지는 인혜의 회상 장면은 바로 이러한 감정 반응이 서사의 재구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래전 그녀는 영혜와 함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아홉살이었던 영혜는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말자...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

이 회상은 영혜의 질문과 인혜의 과거 기억을 연결하며, 침묵과 파편적 언어를 하나의 서사로서 수용하는 전환점이 된다. 여기서 인혜는 지금까지 ‘이상한 말’로만 여겼던 영혜의 말을, 자신의 감정과 과거 기억을 매개로 해석 가능한 서사로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 지점이 바로 NEAR 모델에서 말하는 ‘Narrative Reception(서사의 수용)’의 본질이다.

(2) Existential Recognition(해석 불가능성의 수용)

NEAR의 두 번째 단계인 ‘Existential Recognition’은 타자의 침묵, 저항, 낯섦이 병리나 오류가 아닌 존재 방식의 표현임을 인지하는 전환이다. 이는 기존의 해석 구조(정상/비정상, 이성/비이성)를 해체하고, 감정 반응을 통해 타자의 존재론적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다. 인혜는 점차 영혜의 ‘나무-되기’라는 행위를 치료 불가능한 이상으로 분류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방식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때 인혜가 말하는 독백은 결정적이다.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면을, 영혜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이 문장은 인혜가 영혜의 존재 앞에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자기 존재의 균열을 자각하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즉, 타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그녀 안에서 자기 존재를 되묻는 질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출현하는 감정들—불안, 죄책감, 무력감, 두려움—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다. 분명 이것은 타자를 보며 생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자기 내면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역전이’ 현상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인혜는 영혜 앞에서 단순히 ‘언니’나 ‘간병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혜라는 해석 불가능한 타자를 통해 자신이 억눌러왔던 죄의식, 생존자의 감정, 나약한 연민을 감각하게 되는데, 이는 단지 타자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감정의 역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단계는 위와 같은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감정의 사유화를 위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3) Attunement(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감응)

Attunement(정서적 감응)은 NEAR 모델의 핵심이자 전환점에 해당하는 단계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억제하거나 도덕화하지 않고 감지하며 머무르는 정서적 조율 상태를 뜻한다.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은 항상 유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해소되거나 즉시 판단으로 전환되기 쉬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그 자동적 전환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키고, 감정 반응 자체에 머물게하여 그 파장을 감각하고 조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인혜는 영혜를 바라보며 분노, 연민, 두려움, 경외, 죄책감 등 복합적 감정들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쉽게 정의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혜는 그 감정들에 ‘붙들린 채’ 머무르게 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은 그 조율의 한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였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다.”

“그 순간 그녀는 뜻밖의 고통을 느꼈다. 살아야 할 시간이 다시 기한 없이 남아 있었는데”

데, 그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 앉았다. 둥글게 돌고 있는 시계 초침을 눈으로 따라가며 호흡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이 순간을 수없이 겪은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고통에 찬 확신이 마치 오래 준비된 것처럼,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자신을 집어삼키는 구멍 같은 고통을, 격렬한 두려움을, 거기 동시에 배어든 이상한 평화를 그녀는 느꼈다.”

이 장면들은 감정의 명확한 규정이나 외재화가 일어나지 않는 채, 인혜가 자기 안에서 고통, 무기력, 기시감, 허무, 평화 같은 감정들을 조용히 진동시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일종의 청취 감각의 형성, 곧 정서적 감응(attunement)의 구현인 셈이다. 이때 ‘역전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감정들은 모두 영혜라는 타자를 통해 자극되었지만, 실제로는 인혜 자신이 억압해왔던 감정 구조, 살아 있되 살아보지 못한 자로서의 자기 인식, 무의식의 고통 등이 투사된 결과이다. 이는 역전이의 전형이 되는데, 인혜는 영혜의 침묵과 파괴적 행동을 타자의 고통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로 인혜 발생한 자기 안의 감정 구조를 감각하며 떠도는 상태를 수용한다. 이때 역전이는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감정이 자기 구조를 드러내는 내적 반향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의 역전이는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다,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민감해지는 감응적 수용태도로 전환되게끔 유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Attunement은 NEAR의 감응 훈련에서 가장 윤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미묘한 층위로 분류된다. 인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아직 정의하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며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상태가 다음 단계인 ‘Reflective Interpretation(해석 기반 성찰)’로 이어지는 전제 조건이 된다.

(4) Reflective Interpretation(감정의 해석과 자기 전환)

NEAR 모델의 마지막 단계인 ‘Reflective Interpretation’은, 감정 반응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그 감정이 말하는 바를 자기 해석의 구조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나 비이성적 동요가 아니라, 존재를 되묻고 윤리를 사유하게 하는 해석적 촉매로 기능한다. 인혜 또한 위와 같은 감정의 격류를

통과한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기 인식을 고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장면들은 그 전환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가 그녀를 좌절시킨 만큼 그녀 역시 그를 좌절시켰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다시 한번 집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락한 가건물과 옷자란 풀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번도 살아본 적 없는 어린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잠을 이루지 못한 지난 석달 동안 그녀는 이따금 혼란 속에서 생각해왔다. 지우가 아니라면—그애가 지워준 책임이 아니라면—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

“대신 창 너머를 애타게 바라보는 환자들에게 눈을 돌린다. 낮이 풀린 그들의 간절한 시선은 마치 창 너머로 걸어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여기 갇혀 있는 것이다. 이 여자가 그렇듯이. 영혜가 그랬듯이. 그녀가 이 여자를 안지 않은 것은, 영혜를 이곳에 가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혜의 자기 성찰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후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기 존재의 기반이었던 세계 해석 구조, 즉 ‘선량함’, ‘책임’, ‘성실함’과 같은 도덕적 자기 동일화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이다. 즉, 인혜는 ‘도움’과 ‘보호’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압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회피하며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때, 역전은 가장 깊숙한 층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즉, 인혜의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 반응을 넘어서, 자기 존재를 구성했던 판단과 인념을 흔드는 계기로 기능하게 되며, 영혜를 통해 자신의 감정 반응이 외부 자극이 아닌, 억압된 자기 구조의 표출임을 인식하게 된다. 예컨대, 영혜를 정신병동에 가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이 규범적 언니, 보호자, 직업인으로 정당화했던 역할들이 오히려 타자를 억압했던 것임을 자각하는 자기 성찰적 반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Reflective Interpretation’ 단계는 감정에서 출발해 자기 판단 구조의 해체를 거쳐 자기 존재를 재구성하는 전환을 실현하게 된다. 이는 타자를 중심에 둔 시선에서 감정을 통한 자기 해석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해석의 주체 역시 ‘타자를 설명하는 자’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쓰는 자’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이 단계는 윤리 판단의 정당성을 외부의 규범이나 도덕 기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반응을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타자를 억압하거나 해석해 왔는지를 되묻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셈이다. 이는 니체가 말하는 창조적 인간의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VI. 결론

1. NEAR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윤리적 의의

NEAR 모델은 해석되지 않는 타자 앞에서 의료인이 경험하는 감정의 동요—예컨대 무력감, 당혹감, 분노, 회피 욕구—를 억제하거나 도덕화하지 않고, 그 감정 반응 자체를 성찰의 단서로 전환하는 해석 훈련 체계이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훈련 모형이 아니라, 정신과, 호스피스, 중증 발달장애,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비정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임상 장면에서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윤리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면들에서는 환자의 침묵, 거부, 반복된 몸짓 등을 병리로 간주하거나 치료적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의료인의 감정적 소진과 관계의 단절을 심화시킨다. NEAR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타자에 의해 유발된 감정 반응을 단서 삼아 자신의 존재 구조를 되묻고, 감정을 해석 가능한 윤리적 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간호 철학과의 접속: 감응-해석-동행의 구조

분명 NEAR 모델은 의료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적 훈련 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 철학적 구조와 실천 방식은 간호라는 영역에서 특히 높은 친화성과 타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간호가 의학적 판단이나 개입보다, 돌봄(care)을 통한 관계 형성과 감응, 정서적 조율에 우선순위를 두는 실천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간호라는 행위는 환자의 언어적 호소를 단순히 기록하는 직무에 그치지 않으며, 오히려 언어화되지 않는 고통, 반복되는 침묵, 감정적 저항과 같은 비정형적 신호 앞에서 머무르고 반응하는 감응의 실천에 가깝다. 특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환자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조율되고 응답하는 능력은,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NEAR 모델의 네 단계—서사의 수용, 존재론적 인지, 정서적 감응, 해석 기반 성찰—은 바로 이러한 간호 실천의 리듬과 정합적으로 결합된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NEAR 모델은 새로운 윤리 체계를 제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기존의 돌봄 윤리가 지향해온 감응성, 관계적 책임, 해석 가능한 돌봄의 철학과 긴밀하게 정합되는 감정 기반 자기 해석 훈련 체계로 기능할 뿐이다. 따라서 본 모델은 의료인을 위한 보편적 감정 훈련 모델이면서도, 특히 간호 행위를 단순한 처치가 아닌 존재적 감응 및 자기 해석의 실천이라는 점을 구체화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해석 도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다만,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검토하거나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채식주의자』 속 인혜의 서사를 분석 사례로 삼아, 감정-해석-성찰로 이어지는 감응적 훈련의 가능성을 철학적 차원에서 논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NEAR 모델은 문학 서사를 기반으로 한 감정 훈련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예술·문학 치료와 접점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분명 NEAR 모델 자체가 예술치료나 문학치료로 직접 활용되기는 어렵지만, 예술·문학 기반 치료 기법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도입할 때, NEAR 모델은 감정 반응에 대한 해석적 민감성을 길러줌으로써 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의료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치료 방식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끝으로 본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고경태. (2024. 7. 30). [단독] 정신병원 ‘다인실’ 손발 묶여 맞아죽은 다음날, 다른 환자 또 묶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357.html
- 니체, 프리드리히. (2016).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서울 : 책세상.
- 손유나. (2021). 니체철학에서 고통의 정신적 승화로서의 사랑, 니체연구, 42, 214-233.
- 신권철. (2023).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서울법학, 29(2), 2-7.



Abstract

Development of a Countertransference-Based Model for Self-Interpretative Training through Han Kang's *The Vegetarian* : Focusing on Friedrich Nietzsche

Seong-Dong Park*

This study reinterprets Yeong-hye's silence and "becoming-tree" narrative in Han Kang's *The Vegetarian* not as pathology, but as a mode of existence, through the philosophy of Friedrich Nietzsche. In-hye's emotional responses are read as moments of countertransference—an affective rupture that prompts self-reflection rather than mere empathy. Based on this, the study proposes the NEAR model (Narrative Reception-Existential Recognition-Attunement-Reflective Interpretation), a countertransference-based framework for self-interpretative training. The model enables the transformation of emotional reactions into ontological insight and ethical sensitivity, particularly in clinical settings where encounters with the silent or ungraspable other demand a re-questioning of the caregiver's own being.

Keywords : Countertransference, Nietzsche, Self-interpretation, *Übermensch*, NEAR Model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논문 투고 : 2025.09.23.	논문 심사 : 2025.12.03.	게재 확정 : 2025.12.18.
---------------------	---------------------	---------------------

Transforming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Twice-Exceptionality (2e) through Experiential School Design

Jeahyeon Ahn*

The recognition of twice-exceptional (2e) learners continues to grow, yet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ten receive inadequate preparation, which can lead to misconceptions and the under-identification of this unique population.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a brief, experiential school design task on 21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Data were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and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2e perceptions over time ($F(2, 40)=8.20$, $p=.001$, partial $\eta^2=.291$). Notably, participants shifted their focus from quantitative metrics to social-emotional traits, facilitating a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as a characteristic coexisting with potential rather than a mere deficit. Although a preference for segregated placements persisted, reflecting limited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2e, the findings suggest that even brief experiential learning can effectively foster a strength-based perspectiv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sustained training on inclusive educational approaches specifically for 2e learners.

Keywords : Twice-exceptional students,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clusive education, Perception, Giftedness

* Visiting Professor, Woosuk University

I. Introduction

Enhancing classroom learning requires providing students with instruction that is both supportive and responsive to their diverse needs and strengths (Tomlinson et al., 2003; Tomlinson 2014). Consequently, research and practice have long focused on exceptional learner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s well as those with disabilities, whose abilities or challenges call for differentiated approach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4;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2006). A distinct subgroup within exceptional learners is twice exceptional (2e) students (Gierczyk & Hornby, 2021; Kaufman, 2018). They belong to both categories simultaneously. Twice-exceptionality describes students who show outstanding talent or potential in one or more domains, such as intellectual, creative, artistic, or leadership, while also having one or more criteria resulting from a learning disability, ADHD, autism spectrum disorder, an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 a sensory impairment, or a physical disability (Reis et al., 2014). Because their strengths coexist with significant challenges, 2e students also need individualized instruction and specialized supports tailored to this atypical developmental profile (Brody & Mills, 1997).

Despite their incredible potential, identifying and supporting 2e students can be incredibly challenging. One of the biggest hurdles is the masking effect, where a student's giftedness or disability can hide or overshadow the other. For instance, a student with high cognitive abilities may develop compensatory strategies for their learning difficulties. This often results in average academic performance, masking their underlying challenges and preventing them from receiving necessary interventions. In contrast, behavioral or emotional issues tied to certain disabilities can eclipse their giftedness, causing educators to focus on remediation for the disability while overlooking opportunities to nurture the student's academic or creative talents (Assouline et al., 2010). This complexity means these students do not fit neatly into traditional categories, so they often slip through the cracks and miss out on the help they deserve. In the absence of timely identification and appropriate specialized supports,

these learners often experience academic struggles, behavioral problems, emotional challenges, and broader developmental setbacks (Morrison & Rizza, 2007).

Many educators find the concept of 2e counter-intuitive, a challenge often rooted in a lack of specific training or preconceived notions about ability. They might cling to misconceptions or stereotypes, such as the misconception that a student who struggles with reading cannot be gifted (Reis et al., 2014). Teachers also tend to focus solely on academic achievement, which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spot 2e students (Jolly & Barnard-Brak, 2024; Silverman, 2009). This issue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reliance on traditional testing methods. Under-identification often stems from reliance on single measures, such as strict cutoff criteria or full-scale IQ scores, because strong performance in some areas can compensate for weaker scores on certain subtests, preventing teachers from seeing the full picture of students' capabilities (Reis et al., 2014). These compensation strategies make it hard to see when many 2e students are having difficulties, which complicates how teachers respond to their needs (Assouline et al., 2010; IDEA, 2004). Ultimately, standard psycho-educational tests are inadequate in providing a comprehensive diagnostic profile for these students (Nicpon et al., 2011).

Another challenge in understanding 2e students might come from their asynchronous development. This means they are advanced in one area but delayed in another. This discrepancy can be easily misleading and complicates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Bailey & Rose, 2011; Silverman, 2009). Considering multifaceted challenges, systematic and effective teacher training is needed. Kaufman (2018) highlighted the inadequacy of teacher training specifically related to 2e students. Due to this training gap, regular teachers might not be as knowledgeable about 2e characteristics or how to implement the necessary accommodations generally (Alsamani et al., 2023). Conversely,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ten limit their perception of giftedness as outstanding talent in specific areas or creativity; they often overlook other crucial traits such as strong desire for learning, task persistence, or high levels of knowledge and comprehension (Kim & Lee, 2014). A lack of opportunities

to obtain training or information specifically related to gifted education is the cause of this limited perception amo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Minner, 1990; Kim & Lee, 2014).

Adding to these general challenges, the terminology of 2e has been an additional complication in Korean educatio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translated and adapted the concept of 2e in their own way; leading to the emergence of various inconsistent terms in both research and practice fields. For instance, terms such as jang-ae yeong-jae (literally disability gifted; 장애 영재), ijung jang-ae, (double disability; 이중 장애), ijungjeok jang-ae, (dual disability; 이중적 장애), ijung teuksu-adong, (dual special child; 이중 특수아동), and ijung yewoesong, (dual exceptionality; 이중 예외성) have been used (Gu, 2013; Jo, 2024; Kim & Lee, 2014; Kim & Kim, 2012; Song, 2011). While these English translations are literal renderings from Korean, their underlying definitions are largely consistent with established academic conceptualizations of 2e. Chowkase and Lee (2020) also noted the absence of a uniform translated terminology for 2e. This terminological inconsistency results in confusion among educators and researchers, which may hinder clear understanding and impede unified research efforts (Kim & Lee, 2014).

The strict legal divide between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in Korea results in 2E learners being overlooked by legislation. Since neither statute defines their status, teachers often exclude these students from necessary services, leaving them without clear policy guidelines (Kim & Lee, 2014).

This lack of awareness and these challenges raise concerns about the severity of the problem that 2e students may not be identified early, or even if identified, may not receive appropriate educational support, which might place them in educational blind spots (Bechard, 2019; Jolly & Barnard-Brak, 2024). Therefore,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need to reflect on how their perspectives on disability and giftedness influence the setting of student selection criteria, and particularly need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and educational approaches towards 2e children. This is because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ith such awareness can become important agents in the

actual field by recognizing the educational needs of 2e children and supporting them.

Despite this acknowledged need, it has been shown that program administrators in Korea rarely inform teachers about 2e learners during program orientations (Chowkase & Lee, 2020). Teachers in the field today, especially those in general education, frequently express that they are unprepared or do not know enough about 2e students and pertinent intervention models (Alsamani et al., 2023; Gu, 2013). The initial phases of teacher preparation are also affected by this lack of readiness. Chowkase and Lee (2020) specifically call for more practical professional development to equip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with the skills needed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for this population. Furthermore, the authors stated that a general lack of established manuals and guidelines for teachers to effectively support 2e students indicates a larger, systemic lack of structured training and specialized resource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The need for teacher training on twice-exceptionality (2e) is clear; however, traditional didactic approaches often fall short of translating into practical classroom skills. To fill this gap, the current study used a program based on situated cognition theories (Brown et al., 1989; Lave & Wenger, 1991; Putnam & Borko, 2014), which suggest that people learn best when they gain knowledge in real-life situations. In addition, reflective practice emphasizes critical reflection on action (Schön, 1983; Valli, 1997; Zeichner & Liston, 2013). It was hypothesized that preservice teachers' comprehension of 2e would become more useful if participants were immersed in an authentic, problem-based task rather than being given decontextualized information.

The intervention was organized according to Kolb's (1984) experiential learning cycle to operationalize these ideas. Participants were immersed in a complex decision-making scenario through the hypothetical school design and student selection task, which offered a concrete experience. Group discussions and written reflections prompted reflective observation, whil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chool goals and selection criteria fostered abstract conceptualization, leading to new frameworks for identifying student potential.

Finally, the act of selecting students served as active experimentation. By involving participants in this organized, repetitive process, the study suggested that a deeper and longer-lasting understanding of 2e would develop than when participants received information passively.

Since there are not en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awareness about 2e students, it is critical to create or develop a program for benefiting both teachers and 2e students. Therefore, this research is essential for examining how a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y influences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views on twice-exceptionality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This study uses a hypothetical school design and student selection task to encourage more in-depth contemplation and perspective-taking among preservice teachers.

This study focuses on addressing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oes the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y influence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understanding of 2e both immediately and over time?

How does the intervention reshape teachers' rankings of the importance of key school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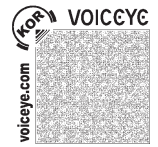
Does the intervention shift teachers' preferred educational setting for 2e students-mainstreaming, inclusion, or segregation?

Do preservice teachers revise their student-selection criteria for hypothetical schools after completing the intervention?

II. Method

1. Participants

In this study, twenty-one undergraduates majoring in special education participated. All participants were third-yea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at a four-year university in Korea. As shown in Table 1, the average age was 23.19 years (range: 22-27, SD=1.54), indicating most were



within a similar age group. There were twelve female participants (57.1%) and nine male participants (42.9%). Information on prior experience was collected via an open-ended question. Responses were categorized, and since participants could report more than one type of experience, the total number of coded responses (n=31) excee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n=21).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n=19) reported prior experience in special education settings, most commonly through volunteering (n=16). A smaller number had completed a school-based practicum (n=8) or related university coursework (n=5). Volunteer activities were the most frequent type. This finding suggests that most participants likely formed their perceptions and judgments based on a certain level of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education settings.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21)

Category		N	%
Gender	Male	9	42.9%
	Female	12	57.1%
Age	22 years	11	52.4%
	23 years	2	9.5%
	24 years	4	19%
	25 years	2	9.5%
	26 years	1	4.8%
	27 years	1	4.8%
Prior Experience	Volunteering in schools and inclusive settings	16	76.2%
	Practicum or assistant experience in school-based settings	8	38.1%
	Participated in university course work related to teaching	5	23.8%
	No response	2	9.5%

Note. Data were coded from open-ended responses. Participants could report multiple types of experience; thus, percentages exceed 100%.

2. Design

This study used a mixed-methods design to examine perceptions of giftedness, disability, and twice-exceptionality (2e). Surveys were conducted at three time points: pre-, post-, and twelve-week follow-up. Repeated measures ANOVA was used for analyzing the data. Qualitative data from open-ended and focus group responses were coded and categorized into themes.

First, participants formed self-selected groups of four to five members. Next, they designed their own hypothetical school, including a school name, educational objectives, and student selection criteria. After this initial planning phase, they were given background information on twelve potential student candidates,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select four students who aligned with their school objectives and criteria.

The design of this experiential task used Kolb's experiential learning cycle (Egan et al., 2023; Kolb, 1984). It suggests that learning occurs as a cyclical process, represented by the structured stages of the simulation (Wijnen-Meijer et al., 2022). The hypothetical school design and student selection task provided an opportunity for hands-on experience. Furthermore, the complex decision-making scenario immerses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alyzing, and selecting. The group discussions on school goals and selection criteria lead to open-ended survey questions and a concluding class conversati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educational goals and selection criteria for the hypothetical school promoted abstract conceptualization, leading to a new understanding of how to identify student potential beyond traditional views. Both group and individual student selection following the group discussion served as active experimentation within the simulated situation. Throughout these experiential cyclical stages, the participants were more engaged and developed a deeper understanding of 2e than they would have learned through passive information delivery.

Ethical Considerations

Although the researcher was the visiting instructor for the course, strict

ethical protocols were implemented to ensure that participation was voluntary and that responses were independent. First, students were explicitly informed that participation in the study was entirely voluntary and that choosing not to participate would have no impact on their grades or academic standing. Second, to encourage honest and independent responses, all surveys and student artifacts were collected anonymously using pseudonyms or ID numbers. Thir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the course grades were finalized to eliminate any potential bias or conflict of interest.

3. Instrument

The twelve student profiles used in this study were developed from materials created by Coil (1997). Each of the twelve student profiles was based on the documented childhood of a notable public figure, fictionalized to focus on traits relevant to the identification of exceptionality. For example, one profile was based on someone who overcame dyslexia to gain admission to Yale University through homeschooling inspired Benjamin Brown's profile.

Each student's background weaves together complex characteristics including disabilities, talents, social disadvantages, family circumstances, IQ scores, parents' education levels, health conditions, and cultural minority status. These profiles were modeled after real-life individuals, ranging from world-famous figures such as Albert Einstein, Thomas Edison, and Abraham Lincoln; others may be less familiar internationally; for example, Wilma Mankiller, who was the first female chief of the Cherokee Nation. Despite their diverse origins, their childhood storie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giftedness and disabilities are inspirational and universally relatable across cultures.

The objective of this activity was not to celebrate who these individuals eventually became, but rather to focus on who they were as children. The task prompted participants to recognize the students' latent abilities and imagine how a proper educational approach could help others similar to them. Ultimately, this hands-on experience offers an inspiring opportunity for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helping them develop a new

understanding of 2e students.

All profiles were provided under pseudonyms to prevent the identification of the real individuals. The profiles were provided in English, and if necessary, participants were guided to use dictionaries and internet tools to translate them.

Among these profiles, there were cases of individuals who showed clear giftedness from childhood, while there were also figures like Edison and Einstein who exhibited characteristics of 2e, and cases included individuals who, even with average academic achievement, showed strengths in areas such as diligence and social skills, thus providing participants with the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d selecting stud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Providing all information, including disabilities and talents, was intentional because the study's purpose was not to assess participants' diagnostic skills. It was designed to examine how they prioritized conflicting information (e.g., low IQ scores vs. high creativity). Furthermore, keeping the students' identities anonymous until the debriefing phase was crucial. The subsequent revelation showed even the rejected students were accomplished historical figures and served as a mechanism to trigger cognitive dissonance. It forced participants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accuracy of their initial biases and judgment criteria.

The survey was constructed for measuring perceptions of disability, giftedness, 2e, and importance of school goals. The researcher created the survey ques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definitions and main traits of disability, giftedness, and twice-exceptionality. The survey items were reviewed by a professor of special education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for ensuring content validity. After reviewing each survey item's clarity and relevance, the expert suggested minor revisions, which were implemented. While each subscale comprised only three items to reduce respondent fatigue, the internal consistency demonstrated strong reliability. Table 2 demonstrates that Cronbach's α coefficients varied between .706 and .918, indicating strong statistical reliability for the instrument. All items were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Open-ended questions were also used to collect qualitative

reasons for participants' choices.

4. Procedure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spring 2025 semester and followed the procedure outlined below. All participants logged into an online pre-survey page, where they signed a digital consent form. After completing the pre-survey questionnaires, they were divided into self-selected groups, with each group limited to a maximum of five members.

Next, each group created a hypothetical school by setting its own educational goals and student selection criteria through group discussion. Participants then read and analyzed twelve anonymous student profiles. Each profile was a one-page summary that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student's personal background, cognitive abilities, social skills, health, learning traits, and home environment.

As English was not the participants' first language, they were encouraged to use dictionaries, either physical or online, as needed. The documents used simple, clear English suitable for second-language learners.

After reviewing and discussing the profiles, each group selected four students who best matched their school's stated goals and selection criteria. Each participant made and documented their own choices in addition to the group selection. Once all groups had presented their final selections and explained their decision-making criteria, the real-life inspirations behind the virtual student profiles were revealed, followed by a class-wide discussion.

Finally, participants completed an online post-survey individually after the session. A follow-up survey was conducted twelve weeks later to measure any long-term effects.

5.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e survey data was used for quantitative analysis. The data analysis used repeated measures ANOVA to compare mean scores from the pre-, post-, and

follow-up surveys. This method allows for a direct comparison of scores from the same group of participants measured at multiple points.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version 23, with significance set at $p < .05$.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ponses to open-ended survey questions were examined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ponses were coded and categorized into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data, revealing more about the participants' perspectives. These qualitative findings were used to complement and support the quantitative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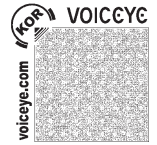
6. Qualitative Data Analysis

Qualitative data from open-ended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approach (Elo & Kyngäs, 2008). Considering the small sample size ($n=21$), data management and coding were performed manually using Microsoft Excel, which allowed for a close and immersive examination of the responses.

The analysis had three stages. First, to understand the material thoroughly, the researcher reviewed the anonymized transcripts multiple times. Second, the researcher used open coding to find common keywords and phrases, then grouped related codes into categories like Focus on Strength or Social Skills. Third, the reporting categories were combined into primary themes that reflected the participants' common viewpoints.

The emerging themes were compared with the original responses to verify that the findings accurately represented the participants' most common perspectives.

In-depth interview data were not subjected to statistical quantification. However, it provided explanatory context and underlying reasons for the trends observed in the survey results. Specifically, interview responses served as a reference for interpreting why participants showed specific shifts or reversions in their perceptions.



III. Results

1. Impact of the Intervention on Understanding of 2e

The perceptions of disability, giftedness, and twice exceptionality (2e) were examined using three-item questionnaires. Internal consistency was assessed at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stages to validate the accuracy of the survey results. All measures showed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 throughout the test period, with reliability coefficients ranging from .706 to .918, substantially above the acceptable threshold of .70, as shown in Table 2.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s (Cronbach's α) for the Twice Exceptionality, Giftedness Perception, and Disability Perception Scales

Scale Name	Pre-test	Post-test	Follow-up
Disability Perception	$\alpha=.790$	$\alpha=.862$	$\alpha=.773$
Giftedness Perception	$\alpha=.706$	$\alpha=.909$	$\alpha=.918$
Twice Exceptionality	$\alpha=.821$	$\alpha=.898$	$\alpha=.847$

A one-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views of 2e changed over time. The analysis used the average score from a three-question survey about views on 2e, which was completed before the intervention (pre-test), immediately after (post-test), and 12 weeks later (follow-up), as shown in Table 3.

Participants' average 2e perception score was $M=2.86$ ($SD=0.57$) at pre-test. This perception increased to $M=3.29$ ($SD=0.72$) at post-test and continued to slightly increase to $M=3.44$ ($SD=0.64$) at the 12-week follow-up.

Mauchly's Test of Sphericity was conducted and confirmed that the assumption of sphericity was met, $\chi^2(2)=0.83$, $p=.661$. The repeated measures ANOVA indic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perceptions of 2e over time, $F(2, 40)=8.20$, $p=.001$. This finding shows that the intervention effectively altered participants' understanding or views of 2e, representing a substa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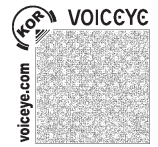
effect ($\eta^2 = .291$).

Bonferroni-adjusted pairwise comparisons were used to examine the nature of these chang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participants' perceptions from the pre-test to the post-test (average difference=-0.43, standard error=0.16, $p=.051$).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2e perceptions from the pre-test to the 12-week follow-up (average difference=-0.59, standard error=0.15, $p=.002$). The perceptions remained consistent between the immediate post-test and the 12-week follow-up (M difference=-0.16, SE=0.14, $p=.803$), indicating that the change was maintained and solidified over time.

The analysis of within-subjects contrasts indicated an important linear trend with $F(1, 20)=16.34$, $p=.001$, and $\eta^2=.450$. This finding suggests that 2e perceptions have been on a consistent upward trajectory throughout the study period. $F(1, 20)=1.02$, $p=.326$, $\eta^2=.048$; no significant quadratic trend was observed.

For perceptions of gifted students, Mauchly's test of sphericity indicated that the assumption of sphericity was met, $\chi^2(2)=0.80$, $p=.669$. The results of the ANOVA showed that the effect of tim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2, 40)=1.25$, $p=.298$, partial $\eta^2=.059$.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experiential school design did not affect participants' perceptions of gifted students.

When Mauchly's test of sphericity was applied to percep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hericity assumption was satisfied, $\chi^2(2)=2.04$, $p=.360$. The resul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time on perceptions, $F(2, 40)=3.22$, $p=.050$, with a large effect size (partial $\eta^2=.139$). Bonferroni-adjusted pairwise comparison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time points. However, a test of within-subjects contrasts revealed a significant linear trend, $F(1, 20)=4.96$, $p=.038$, partial $\eta^2=.199$. The result confirms that there was a steady increase in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time point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for Perceptions of Twice-Exceptionality (2e), Gifted, and Special Education

Variable and Time Point	Mean	SD	df	F	p	Partial η ²
Twice-Exceptionality (2e)			2, 40	8.20	.001*	.291*
Pre Survey	2.86	0.57				
Post Survey	3.29	0.72				
Follow-up Survey	3.44	0.64				
Giftedness			2, 40	1.25	.298*	.059*
Pre Survey	3.05	0.63				
Post Survey	3.25	0.90				
Follow-up Survey	3.25	0.71				
Disability			2, 40	3.22	.050*	.139*
Pre Survey	3.33	0.60				
Post Survey	3.44	0.73				
Follow-up Survey	3.68	0.58				

*p<0.05

Furthermore, as shown in Table 4, a similar tendency was observed in the responses to the open-ended question 'Did your understanding of disability, giftedness, and 2e change through the experiment?' 78.7%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perception change. Many participants mentioned a potential or strength-based perspective rather than an approach focused on students' weaknesses or needs first. Moreover,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nclusive education for 2e students for their academic and social experience.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experiment influenced the expansion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definition, concept, and broader scope of 2e.

〈Table 4〉 Changes in Understanding of Disability, Giftedness, and 2e (Multiple Coding)

Code	Meaning	Percentage	Quoted Responses
Expanded Understanding	Expansion beyond category boundaries to a potential/strength-b	40.4%	"Being gifted is not just about high IQ... If IQ is low but creativity is high, they're gifted," "Considering potential and talent beyond simple characteristics," "Students

Code	Meaning	Percentage	Quoted Responses
	ased perspective		with disabilities and gifted students are all the same target population."
Importance of Inclusive Education	Recognition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gifted students, and 2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gether.	21.3%	"The importance of inclusive education increased," "Thinking that everyone is a target popul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rather than viewing them separately."
Little Change	Minimal or no perception change	21.3%	"Seems like nothing changed," "Understanding didn't change much."
Concept Clarification	Clarification of terminology and concepts such as 2e definition and complexity.	17%	"Got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2e concept," "Considering potential, not just characteristics," "Even gifted children are not outstanding in all aspects."

To understand how preservice teachers' criteria for student selection evolved, a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ir responses to open-ended survey questions. Participants were asked to identify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 student's succes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ix-phase procedure for reflexive thematic analysis (Braun & Clarke, 2006, 2021), as shown in Table 5. Two analysts looked at the data separately and agreed strongly on their findings (Cohen's $\kappa=.86$), leading to the discovery of the seven main themes shown in Table 5.

The analysis revealed a profound shift in how participants defined success, moving decisively away from static, traditional metrics toward dynamic, person-centered qualities. This is most starkly illustrated by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IQ/Psychometric Testing as a success factor, which started as a significant criterion (17%) in the pre-survey and dropped to zero by the follow-up.

The immediate impact of the intervention was evident in the post-survey results, where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observation/direct classroom watching skyrocketed from 14% to 59%, becoming the dominant criterion. After the intervention, participants placed greater value on direct and

observable evidence than students' pre-existing scores or labels.

This change in perspective deepened over time. In the follow-up survey, participants began to prioritize specific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mpathy, motivation, and leadership. For instance, Empathy/Compassion saw a remarkable late surge, rising from only 3% at the beginning to become the most frequently cited success factor at 41%. Similarly, other internal qualities like Leadership/Independence/Self-direction (rising to 28%) and Intrinsic Motivation/Student Will (rising to 24%) saw their most significant gains in the follow-up period.

These results show a two-stage development in the preservice teachers' perspectives. First, they learned to prioritize direct observation information over psychometric data. Second, they learned to focus on specific character-based qualities, such as empathy, motivation, and leadership, as the indicators of a student's potential for success.

〈Table 5〉 Categories of Important Success Factors When Selecting Students:
Open-ended Question Analysis

Theme (codes collapsed)	Pre n(%)	Post n(%)	Follow-up n(%)	Direction of Change
Behavioral Observation / Direct Classroom Watching	4 (14%)	17 (59 %)	11 (38%)	large rise at Post, sustained
Communication & Social Interaction	6 (21%)	9 (31 %)	8 (28%)	small then plateau
Empathy / Compassion	1 (3%)	5 (17%)	12 (41%)	late surge
Intrinsic Motivation / Student Will	2 (7%)	3 (10%)	7 (24%)	gradual
Creativity / Divergent Thinking	3 (10%)	4 (14%)	6 (21%)	steady
IQ / Psychometric Testing	5 (17%)	1 (3%)	0	disappears
Leadership / Independence / Self-direction	5%	2 (7%)	8 (28%)	late surge

(Percentages are based on 29 cases denominator; multiple codes per response were allowed, so rows do not sum to 100 %.)

2. Reprioritization of School Goals

The perception score regarding the influence of school education goals on student sele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pre-test ($M=3.86$, $SD=0.57$) to post-test ($M=4.38$, $SD=0.67$) [$t(20)=-3.53$, $p=.002$, $d=.771$]. This represents a large effect size (Cohen's d), meaning that through the experiment, participants gained a more concrete and practic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chool goals.

Consistent with this result, a similar change in perception was observed in the responses to the open-ended questions administered after the experiment: Why is the school's purpose important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How do you think the school's purpose influences the type of students selected and the educational experiences provided?, as shown in Table 6.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sponded that the clearer the school purpose, the greater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that this is closely linked to selection policies, curriculum operation, lesson design, school culture formation, and the direction of student growth.

These results show that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came to recognize the school's educational purpose not merely as a slogan, but as the standard and foundation constituting the identity of overall educational operation.

〈Table 6〉 Reasons for and Influence of Educational Goals (Multiple Coding)

Category	Description	Percentage (Reasons)	Percentage (Influence)	Quotes
Suitability	Maximiz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selecting students suitable for the school's purpose.	81%	71.4%	When students suitable for the purpose are selected, both the school and the students benefit.
Customization / Efficiency	Curriculum, lessons, and resource allocation are more efficient when the purpose is clear.	28.6%	42.9%	Providing lessons/experiences suitable for the purpose, enabling individualized customized education.



Category	Description	Percentage (Reasons)	Percentage (Influence)	Quotes
Fairness / Objectivity	Subjectivity and bias decrease when purpose and criteria are clear.	23.8%	52.9%	Subjective elements decrease, fair selection.
Community / Harmony	Sharing similar purposes and values leads to positive school atmosphere and synergy.	19%	28.6%	Harmony among students, complementary synergy.
Potential / Growth Promotion	Purpose helps students realize their potential and expand strengths.	14.3	14.3%	Expanding strengths, nurturing potential, supplementing weaknesses.

3. Shift in Preferred Educational Settings for 2e Students

Participants were asked which education settings (Mainstreaming, Inclusion, and Segregation) are the most appropriat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gifted students, and 2e students. The changes were tracked by pre-, post-, and a long-term follow-up.

Preservice special educato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 for segregation regarding 2e students, with 15 participants selecting this option before the intervention. The post-intervention revealed a major shift in choice results, with only 7 participants choosing segregation. Meanwhile, 11 participants indicated they were in favor of mainstreaming. During the follow-up stage, the trend shifted once more, with 12 participants favoring segregation and 8 supporting mainstreaming (see Table 7). Inclusion was not a preferred option.

The perceptions of gifted students also fluctuated significantly. Mainstreaming was the most selected educational setting for pre- (11 participants) and follow-up (10 participants). However, inclusion emerged as the top choice after the intervention, with eight participants selecting it. Meanwhile,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consistently selected segregation was pre-8, post-6, and follow-up-8 (see Table 7).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sponses on pre-, post-, and follow-up tests

revealed a stable preference for their educational settings. A strong preference for mainstreaming largely persisted, wi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favoring it changing from 13 to 11, and then to 10. Preferences for segregation remained constant at 4 participants, while the preference for inclusion showed a minor increase from 4 to 6, and finally to 7 participants (see Table 7).

〈Table 7〉 Frequencies of Educational Placement Choices by Student Group and Time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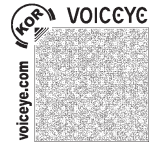
(N=21)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Follow-up		
	Disability	Gifted	2e	Disability	Gifted	2e	Disability	Gifted	2e
Mainstreaming	13	11	6	11	7	11	10	10	8
Inclusion	4	2	0	6	8	3	7	3	1
Segregation	4	8	15	4	6	7	4	8	12
Total	21	21	21	21	21	21	21	21	21

4. Revision of Student-Selection Criteria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final list of selected students for each group and the list of individually preferred students are shown in Tables 8 & 9. The same students, notably Benjamin Brown and Albert Einstein, were preferred in both selection types, and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selection criteria remained largely consistent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settings.

The ‘Bibimbap School’ actively excluded students with high IQs to create a collaborative environment (selecting profiles based on Thomas Edison, IQ 82; Colin Powell, IQ 90; Janet Reno, IQ not measurable; and Abraham Lincoln, IQ 110). Meanwhile, the ‘Teum School’ specifically sought students with social and physical difficulties to focus on potential and need (selecting profiles based on Benjamin Brown, who had social-emotional difficulties; Einstein, who did not adjust well in school; Evelyn Cisneros, who was constantly teased; and Thomas Edison, who had no social interaction with peers).



〈Table 8〉 Group and Individual Preferred Student List

Selection Type	Preferred Student Profile
Group	Benjamin Brown(20%), Albert Einstein (15%), Ruth Ginsburg, Colin Powell, Thomas Edison, Bill Bradley, & Janet Reno (10%)
Individual	Benjamin Brown (17.86%), Albert Einstein (16.67%), Ruth Ginsburg & Bill Bradley (11.9%), Janet Reno (9.52%)

〈Table 9〉 Group Selection Criteria and Selected Students

School Name	Selection Criteria	Selected Students
Gifted School	IQ 110+, Sociability, Parental academic interest, Physical health	Benjamin Brown, Ruth Ginsburg, Evelyn Cisneros, Colin Powell
Bibimbap School	Communication skills, Almost no physical function abnormalities, Behavior not interfering with collaborative activities, IQ < 110	Colin Powell, Thomas Edison, Janet Reno, Abraham Lincoln
Ieum School	Lack of social skills, Potential, Will, Physical difficulties present	Benjamin Brown, Albert Einstein, Evelyn Cisneros, Thomas Edison
Concord Academy	IQ test, Teacher recommendation, Creativity, Empathy	Benjamin Brown, Ruth Ginsburg, Albert Einstein, Bill Bradley
Hanul School	Empathy, Communication, Friendliness, Low aggression	Benjamin Brown, Albert Einstein, Bill Bradley, Janet Reno

IV. Discussion

This research examined how a 90 minute experiential task creating a hypothetical school and selecting students based on participant defined goals influence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understanding of twice exceptionality (2e). The findings yield key insights into the short- and long-term impact of this experiential intervention.

Notably,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not received any formal instruction for 2e students throughout their special education program. Their existing knowledge was based entirely on portrayals in popular media, such as TV shows and movies. Considering this limited background, the experiential

activity did not only change their perceptions of 2e students, but also deepened thei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is population's unique needs.

The lens of situated cognition explains the significant shift in perceptions of 2e, but not of giftedness or disability as separate construct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prior knowledge regarding giftedness and disabilities was rigid. However, their understanding of 2e was forged directly within the context of the complex, problem-solving task of student selection, leading to a more profound and durable change in perception. The task made the concept real in a way that a lecture could not.

After the intervention,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howed three clear changes. First, when identifying 2e students, they now privilege intrinsic motivation,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behavioral evidence over IQ or other standardized scores, explained by the power of reflective practice. By having to defend their student selections to their peers, participants were prompted to reflect on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metrics. This reflection-on-action pushed them to develop a more holistic, strength-based framework for evaluation that was directly applicable to the complex profiles of 2e learners. Second, they developed a profound understanding of how a school's educational goals must structurally guide student selection and program design. Third, regarding educational placement, they showed a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clusive environments, even though quantitative data indicated a need for continued instruction on 2e to sustain this perspective.

These perceptual shifts can be attributed to the task's experiential design, which aligns with Kolb's (1984) learning cycle. Because the activity required teachers to examine nuanced student profiles and align their choices with explicit school goals, they were forced to reconcile rich yet often contradictory evidence. That sustained analysis displaced a disability-first mindset and fostered a strength-based view of twice exceptionality.

The shift is now visible in practice: participants favor behavior-anchored assessment tools, approach student potential from multiple angles, and began

to consider inclusive education. Together, the results illustrate how a well-scaffolded experiential task can move preservice special educators beyond passive knowledge uptake toward a durable, strength-oriented understanding of 2e and the school structures that support it.

In contrast, participants' views of disability and giftednes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an outcome that echoes earlier findings that in-service teacher beliefs rarely shift after brief interventions (Minner, 1990). Although Minner's study focused on in-service teachers, other research shows that preservice teachers also hold distinct, often stereotypical, beliefs about giftedness and disability that form early in their own schooling and tend to remain stable (Bannister-Tyrrell et al., 2018; Baudson & Preckel, 2013). Concepts of disability and giftedness are reinforced over years of volunteering experience, formal training from the program, and broader social discourse; hence, they are comparatively rigid. Twice-exceptionality, by contrast, is still a relatively new construct in teacher education, so perceptions of 2e remain more open to revision.

First, through the experiential task,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began to value qualitative assessments, such as classroom observations, student interviews, evidence of empathy, and other psychological traits, over quantitative indices such as IQ scores or course grades. This shift signals a move toward multidimensional, integrative thinking when they evaluate students.

Second, participants exhibited a marked shift in how they understood the influence of a school's educational goals on student selection. This finding aligns with Lee's (2010) argument that, as goals become more specific, teachers' judgments become more structured, clarifying what to teach, how to teach, and why. A closer look indicates that the group selection process was far more intentional and mission-oriented. The formal selection criteria developed by each group (Table 9) contrast sharply with the intuitive character of the individual selections. These nuanced, philosophy-driven rules were a direct product of group deliberation. Collaboration compelled them to translate abstract educational philosophies into concrete, actionable criteria,

making the selection process more intentional and purposeful. The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likewise reported that the sharper a school's purpose, the greater its educational impact, noting tight links among admission policies, curriculum design, lesson planning, cultural norms, and students' long-term growth. They now view the school's mission not as a slogan, but as the organizing principle that shapes every facet of practice.

Third, the intervention produced only modest change in placement preferen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for those who are gifted, participants still favored mainstreaming or inclusion settings, which the literature identifies as academically advantageous for both groups. Research indicates that inclusion is beneficia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rry et al., 2018), while traditional research for gifted children often suggests segregated classes for academic excellence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2006; Shields, 2002). For 2e learners, however, most opted for segregated programs, even though recent research shows that inclusive classrooms better support 2e students' academic growth (Gierczyk & Hornby, 2021). In the context of Korea's educational environment, preservice special educators may be familiar with the mixed academic systems for disabilities and gifted students. Because the activity clarified what 2e is and highlighted individual strengths but never addressed optimal placement, participants simply transferred their prior assumptions.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their knowledge of 2e was often based on portrayals in popular television shows. This unfamiliarity may lead them to prefer a segregated, gifted-program approach when considering the educational needs of 2e students. In the absence of explicit guidance, many equated specialized instruction with separate classrooms. This misconception exposes a critical gap in their preparation and underscores the need to embed focused training on 2e placement policy in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programs.

Fourth, a comparison of the groups' final rosters with the students each member initially ranked most highly showed only minor discrepancies: teams ended up selecting students of roughly the same overall profile. This convergence suggests that individual value judgments and group discussion

gravitated toward a shared set of evaluation criteria. It also indicates that the collaborative task heightened participants' awareness of how selection decisions must align with stated educational goals.

One striking pattern in the data is the contrast between a classic gifted profile and the students our preservice special educators ultimately preferred. A childhood sketch of Bill Bradley typifies the traditional ideal: a reported IQ of 159, an affluent home, highly engaged parents, outstanding athleticism, leadership, empathy, high grades, creativity, and strong social skills. Bradley went on to play in the NBA and later served as a U.S. senator—an exemplary, well-rounded success story. Yet most participants chose 2e candidates instead, students such as Benjamin Brown (dyslexia) or the young Albert Einstein, whose documented IQ of 82 belied exceptional strength in mathematics and creativity.

This preference appears to stem from the teachers' special-education training: they learned to value pronounced talent that co-exists with a disability over the broad-based giftedness celebrated in general education. Kim and Lee (2014) reported a similar trend, noting that special educators give greater weight to domain-specific creativity or potential accompanying a disability. In the present study, participants likewise adopted a professional stance that recognizes and welcomes atypical profiles of exceptionality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all-rounder image of giftedness.

V. Limitations

While research offers substantial insights, several methodological limitations should be discussed, along with the strategies implemented to mitigate their influence on validity.

First, the absence of a control group limits the ability to attribute the observed changes to the intervention, as external maturation effects cannot be entirely discounted. However, the study employed a within-subject repeated measures design, allowing participants to serve as their control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rge effect size (Partial $\eta^2=.291$) and the immediate contrast between pre- and post-test scores suggests that the changes were likely driven by the specific intervention rather than random temporal eff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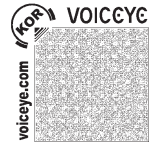
Second, the small sample size (N=21) from a single university restricts generalizability. To address this, the study adopted a mixed-methods approach to adding depth to the findings. By integrating quantitative survey data with qualitative insights from open-ended responses, the study cross-verified the statistical trends with participants' detailed narratives. This integration facilitated a more profound comprehension of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observed changes, ensuring significant applicability to analogous teacher education contexts and offsetting the constraints of limited statistical generalizability.

Third, the reliance on self-reported measures may introduce social desirability bias. To address this issue, the study analyzed not only self-perceptions but also actual group artifacts, such as the specific selection criteria presented in Table 9. The observed consistency between individual survey responses and the collaborative outputs of the group reinforces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findings.

Future research should broaden the sample to include preservice teachers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and incorporate a control group. In the context of 2e education, this strategy would improve the valida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models.

VI.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better preservice preparation on twice-exceptionality (2e), a topic largely overlooked in current teacher education programs. The results indicate that even a short hands-on activity, such as a virtual school design task in which participants created admission goals and criteria, can significantly help future teachers see the strengths of 2e students.



The same approach could benefit other stakeholders. In-service general education teachers might use a parallel simulation to recognize and support the many unidentified 2e learners in mainstream and inclusive classrooms. School leaders and policymakers could adapt the model as a springboard for school-wide identification protocols, resource allocation, and inclusive policy design for all exceptional students, including those who are twice-exceptional.

Crucially, the challenge prompted participants to redefine identification itself, giving greater weight to qualities such as intrinsic motiva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stead of relying solely on test scores. While one short activity cannot replace a full program, it offers a useful and adaptable way to encourage new ways of thinking, promote a focus on strengths, and emphasize the need for inclusive practices for 2e learners.

References

- Alsamani, O. A., Alsamiri, Y. A., & Alfaidi, S. D. (2023).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twice-exceptional students. *Frontiers in Education, 8*(May), 1-8.
- Assouline, S. G., Nicpon, M. F., & Whiteman, C. (2010). Cognitiv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with written language disability. *Gifted Child Quarterly, 54*(2), 102-115.
- Assouline, S. G., Nicpon, M. F., & Whiteman, C. S. (2011). Cognitiv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with written language disability: A reply to Lovett's response. *Gifted Child Quarterly, 55*(2), 152-157.
- Bailey, C. L., & Rose, V. (2011). *Examining Teachers' Perceptions of Twice Exceptional Students: Overview of a Qualitative Exploration*.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Bannister-Tyrrell, M., Mavropoulou, S., Jones, M., Bailey, J., & O'Donnell-Ostini, A. (2018). Initial teacher preparation for teaching students with exceptionalities: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and perceived competence.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Online), 43*(6), 19-34.
- Baudson, T. G., & Preckel, F. (2013). Teacher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bout the gifted: An experimental approach.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8*(1), 37-46.
- Bechard, A. (2019). Teacher Preparation for Twice-Exceptional Students: Learning from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Teachers, Parents, and Twice-Exceptional Students. *AILACTE Journal, 26*(3), 25-43.
- Brody, L. E., & Mills, C. J. (1997). Gifted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Review of the Issu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0*(3).
- Brown, J. S., Collins, A., & Duguid, P. (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2.
- Chowkase, A., & Lee, H. (2020). Bibliographic Analysis of the U.S and Korean Studies on Twice-exceptional (2e) Students and A Case Study of A 2e Learner. *Journal of Special & Gifted Education, 7*(2), 13-38.
- Coil, C. (1997). Teaching Tools for the 21st Century. Pieces of Learning.
- Egan, J. D., Tolman, S., Mcbrayer, J. S., & Ballesteros, E. (2023). Reconceptualizing K

- olb's Learning Cycle as Episodic & Lifelong. *Experiential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6(1), 24-33.
-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Gierczyk, M., & Hornby, G. (2021). Twice-Exceptional Students: Review of Implications for Special and Inclusive Education. *Education Sciences*, 11(2), 85.
- Gu, S. (2013). Teachers' Perceptions on Educating Gift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5(3).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20 U.S.C.1400 et seq. (2004).
- Jo, I.S. (2024). *Grounded Theory on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 Educational Support for Twice-Exceptional Students(2e)*. Joongbu University.
- Jolly, J. L., & Barnard-Brak, L. (2024). Special Education Status and Underidentification of Twice-Exceptional Students: Insights from ECLS-K Data. *Education Sciences*, 14(10), 1-12.
- Kaufman, S. B. (Ed.). (2018). *Twice Exceptional: Supporting and Educating Bright and Creative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K., & Lee, S.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for Gifted and Special Teachers Regarding Gift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2 PG-1-26), 1-26.
- Kim, W., & Kim, D. (2012).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of Gift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 Application of 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81-99.
- Kim, Y. W. (2013).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Policy, Practice, and Challenge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0(2), 79-81.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 Hall.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B. (2010). Study on the Restructure of Information Literacy Process Based on Taxonomy Educational Objectiv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07-126.
- Minner, S. (1990). Teacher Evaluations of Case Descriptions of LD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34(1), 37-39.

-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2006). *Grouping*.
-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Disabilities. (2020). *Significant Disproportionality in Special Education: Current Trends and Actions for Impact*.
- Putnam, R. T., & Borko, H. (2014). Say About Learn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 29(1), 4-15.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
- Shields, C. M. (2002). A comparison study of student attitudes and perceptions i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classrooms. *Roeper Review*, 24(3), 115-119.
- Terry, C. E., Ogunyipe, B. T., Altom, B. W., Belt, R., Brett, J. T., Brown, B., Gade, D. M., Harbour, W. S., & Romano, N. (2018). *IDEA Series The Segreg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In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 Tomlinson, C. A. (2014). *The differentiated classroom: Responding to the needs of all learners* (2nd ed.). ASCD.
- Tomlinson, C. A., Brighton, C., Hertberg, H., Callahan, C. M., Moon, T. R., & Brimijoin, K. (2003). Differentiating instruction in response to student readiness, interest, and learning profile in academically diverse classrooms: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7(2-3).
- Tracy C. Missett, Amy Price Azano, Carolyn M. Callahan & Kimberly Landrum (2016). The Influence of Teacher Expectations about Twice-Exceptional Students on the Use of High Quality Gifted Curriculum: A Case Study Approach, *Exceptionality*, 24(1).
- Valli, L. (1997). Listening to other voices: A description of teacher reflection in the United State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2(1), 67-88.
- Zeichner, K. M., & Liston, D. P. (2013). *Reflective Teaching: An Introduction* (2nd ed.). Routledge.
- Wijnen-Meijer, M., Brandhuber, T., Schneider, A., & Berberat, P. O. (2022). Implementing Kolb's Experiential Learning Cycle by Linking Real Experience, Case-Based Discussion and Simulatio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and Curricular Development*, 9, 238212052210915.

Abstract

경험 기반 학교 설계 활동이 예비 특수교사의 이중특수(2e) 학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안재현*

이중특수(2e)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특수교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한 오해와 과소 판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짧은 경험 기반의 학교 설계 활동이 21명의 특수교육 전공 학부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데이터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ANOVA)과 질적 주제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2e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F(2, 40) = 8.20, p = .001, \text{partial } \eta^2 = .291$). 결정적으로, 참여자들은 정량적 지표보다 사회·정서적 특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는 장애를 단순한 결핍이 아닌 잠재력과 공존하는 특성으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이중특수(2e)에 대한 제한된 배경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분리 배치 선호가 지속되기는 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짧은 경험 학습만으로도 강점 기반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2e 학생을 위한 통합 교육적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이중특수학생, 장애영재, 예비특수교사, 통합교육, 인식, 영재성

*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논문 투고 : 2025.10.15.	논문 심사 : 2025.12.16.	게재 확정 : 2025.12.18.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055 - 075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 장애 정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전혜영*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장애 정도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의 삶」 제5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총 4,1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수는 장애수용(12문항), 자아존중감(10문항), 우울(11문항)이며, 성별, 연령, 학력,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경증장애 집단에서는 장애수용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만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증장애 집단에서는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수용이 장애인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시사하며, 특히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개입이 우울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이 장애 정도보다는 심리사회적 태도와 자원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된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은 경증·중증의 구분을 넘어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과 상담·심리치료 현장에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장애정도

* 부산대학교

I. 서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고립, 경쟁 심화, 경제적 불안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황민지, 기명, 2023). 우울은 신체적·심리적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집단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특히 장애인의 15.7%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며, 이 중 8.7%는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을 보고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불이익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취약성을 증폭시켜 결국 우울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울은 장애인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이는 장애 발생 초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수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주목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평가하는 정서적 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강화되며, 이는 다시 우울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포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정문경, 2023). 나아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기능적 한계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의 질, 장애에 대한 수용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장애수용은 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과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수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기개념이 강화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김정유, 엄광진, 2025; 정문경, 2023). 반대로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녕을 촉진하여 우울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신영원, 진민진, 현명호, 2022). 또한 장애 정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 제약 수준을 반영하는데, 이는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에서 말하는 '취약성'에 해당한다.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빈도와 강도가 높으며, 신체적·환경적 제약도 크기 때문에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작동방식을 달라지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힌다. 장애 정도는 단순히 의학적 분류를 넘어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제약과 신체적 기능 저하, 차별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우울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강영숙, 전상철, 2022; 안준희, 2025; 박엽지, 조민석, 박수희, 2022). 또한 장애 정도는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기제에도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중증 장애인은 장애수용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송해란, 2022; 이승연, 장유진, 홍세희,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심리기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취약성 이론(Zubin & Spring, 1977)은 개인이 선천적·후천적으로 지닌 취약성과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신질환 발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의 취약성 수준에 따라 심리적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취약성이 높은 개인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부정적인 심리·행동적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Akil & Nestler, 2023).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는 취약성 요인으로, 이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의 관점에서 장애 정도를 ‘취약성’ 요인으로,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을 ‘스트레스 또는 보호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중재 설계에 있어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관계를 주로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데 그쳤으며, 장애 정도에 따른 우울에 작동하는 심리적 구조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노인연구에 주로 해당하였으며,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경증과 중증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실증적인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므로, 이는 노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다집단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우울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스트레스-취약성 모델(Zubin & Spring, 1977)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을 개인의 취약성 요인과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김영란, 정재원, 2014). 취약성은 유전, 성격, 인지적 특성, 사회적 자원 부족 등 개인 내적 요인을 포함하고, 스트레스는 외부 사건, 환경적 압력, 사회적 요구 등으로 구성된다(정영숙, 정영주, 2015). 이 모델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개인의 취약성과 보호요인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이병도, 2018).

스트레스 사건의 존재 자체보다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서 및 인지 체계에 어떻게 해석되고 내면화되는지가 우울 발생의 핵심 경로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해석 경향이나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은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는 반면, 자기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제감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Weissma et al., 2021).

취약성 요인에는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인지, 불안 기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이경은 & 하은혜, 2011). 반면 보호요인에는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되어 부정적 정서를 완충한다(박다현 & 황정아, 2025). 연구에 따르면 보호요인이 높은 경우, 취약성이 존재하더라도 정신건강 부정적 결과가 경감될 수 있다(민흥기 & 정병수, 2020).

이 모델은 조현병(이춘희, 2020), 우울(김영란, 정재원, 2014; Akil & Nestler, 2023), 자살사고(정용, 구훈정, 2019; 정영숙, 정영주, 2015), 사회불안(이경은, 하은혜, 2011), 회복탄력성(Akil & Nestler, 2023)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 청소년, 대학생, 경찰공무원, 시설보호아동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집단 특성에 따라 취약성과 보호요인의 작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이병도, 2018; 박다현, 황정아, 2025).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매개·조절 분석에 적합한 틀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정용, 구훈정, 2019), 취약성이 보호요인에 의해 조절되는 연구(민흥기, 정병수, 2020) 등이 있다. 이는 특정 변인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영란, 정재원, 2014).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보호요인, 자아존중감을 심리적 자원, 우울을 결과 변수로 설정하고, 장애 정도를 상황적 취약성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접근은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장애인 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확장 적용하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정영숙 & 정영주, 2015; 이병도, 2018).

2. 장애 정도에 따른 심리적 기제 차이

장애 정도는 단순히 신체적·기능적 제한 수준을 나타내는 의학적 지표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 과정과 정서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는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참여, 장애수용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구조적으로 연관되며, 특히 중증 장애 집단일수록 심리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어 왔다.

우선, 장애 정도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영숙과 전상철(2022), 그리고 안준희(2025)는 장애 노인의 장애 정도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때 차별경험,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장애의 심각성이 단순히 기능적 제한을 넘어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소외 경험을 강화하여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박엄지, 조민석, 박수희(2022)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신체활동 제한이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움직임·운동 기능의 제약이 심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장애 정도가 우울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장애 정도는 장애수용과 같은 심리적 적응 기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보다 장애수용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송해란, 2022; 이승연, 장유진, 홍세희, 2021). 특히 송해란(2022)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장애수용의 변화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수용 수준이 점차 상승하는 반면, 경증 장애인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장애수용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심리적 적응의 방향과 속도, 작동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다.

장애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사회 참여 기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허세미와 이예나(2023)는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상용(2022)은 장애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장애가 될 심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김진웅(2022)은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장애 정도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장애 정도는 자아존중감 경로에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우울 등 다른 심리적 변인에서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 정도가 자아존중감,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기제에 차별적 조절효과 또는 구조적 영향력을 지닌 요인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와 심리 기제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조절 구조로 정교하게 분석한 연구는 주로 노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연령층 또는 다양한 장애범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구조를 장애 정도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장애수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다집단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장애수용과 우울과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상태로, 단순히 일회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김정유, 엄광진, 2025). 이는 장애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가치 훼손하지 않는 요소로 인식하고 능력과 자원을 재구조화 해서 장애로 인한 제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Chiu et al., 2013). 장애인과 관련하여 주요한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장애수용은 반복적으로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수용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정유, 엄광진, 2025; 정문경, 2023), 다른 심리적 요인 간 관계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우울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영원, 진민진, 현명호, 2022; 이현지, 2019).

우울은 개인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나 목표를 상실하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무가치감, 무기력, 부적절감, 삶에 대한 흥미 상실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다(Beck, 1967).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이러한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보고되는데, 이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사회적 낙인, 직업 및 교육 기회 제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김정유, 엄광진, 2025). 또한 장애인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 경제적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울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정문경, 2023). 이러한 점에서 우울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

전반을 저해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기제로, 다양한 심리학 연구에서 핵심적 매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장애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장애수용과 우울 사이의 인과적 과정을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문경, 2023). 실제로 정문경(2023)의 연구에서는 중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장애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장애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특히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집단 간에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장애수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장애 정도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의 심리적 적응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의 삶 5차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패널자료는 전반적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패널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패널 구성상 신규로 장애 등록한 응답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기 장애 적응 단계인 심리·사회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으나, 신규등록 비율이 전체 패널 대비 제한적이라 표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 패널 분석 대상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인 장애 정도,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에 모두 응답한 패널로 하였다. 분석 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n=2,240) 여성(n=1,905)보다 더 많으며, 연령대는 60대가 1,83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228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때 10대 이하의 경우는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형성하는 단계이므로 성인과 같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장애유형은 내부/안면장애가 995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장애가 262명으로 가장 적었

다. 장애 정도는 중증 수준(n=2,115)이 경증 수준(n=2,030)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복장애는 없는 경우가 3,869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828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학교 졸업이 741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 분석 대상 기본정보

(N=4,145)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240	54.0
	여성	1,905	46.0
연령대	20대	276	5.6
	30대	228	4.6
	40대	412	8.4
	50대	949	19.4
	60대	1,837	37.5
	70대 이상	443	9.0
장애유형	지체장애	730	17.6
	뇌병변장애	640	15.4
	시각장애	556	13.4
	청각/언어장애	717	17.3
	지적/자폐성장애	245	5.9
	정신장애	262	6.3
장애정도	내부/안면장애	995	24.0
	경증	2,115	51.0
중복장애	중증	2,030	49.0
	있음	277	6.7
학력	없음	3,869	93.3
	초등졸업 이하	801	19.3
	중학교 졸업	741	17.9
	고등학교 졸업	1,828	44.1
	대학교 졸업 이상	775	18.7

2. 분석 변수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집단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장애 정도를 분석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중 장애 정도는 이분형 변수로 제외하고 장애수용과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은 Kaiser 등(1987)이 개발하고, 백영승 외(2001), 강용주 외(2008)에서 번안한 자료를 장애인삶 패널조사 척도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장애수용은 4점 Likert 척도로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나는 장애로 인해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 등 총 12항이다. 이때, ‘1.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3.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 ‘7.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12. 나는 내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다.’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의 평균은 2.30, 표준편차는 .45, 문항신뢰도는 .83, 왜도와 첨도는 각각 .21, .83으로 다변량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수인 우울은 Kohout 등(1993)이 개발하고 한국복지패널에서 번안한 자료를 장애인삶 패널조사 척도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우울은 4점 Likert 척도로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2. 비교적 잘 지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역코딩하여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의 평균은 1.70, 표준편차는 .56, 문항신뢰도는 .90, 왜도와 첨도는 각각 .43, .90으로 다변량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자영 외(2009)가 번안한 자료를 장애인삶 패널조사 척도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자아존중감은 4점 Likert 척도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8. 나는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를 역코딩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의 평균은 2.68, 표준편차 .41, 신뢰도는 .78, 왜도와 첨도는 각각 .31, .78로 다변량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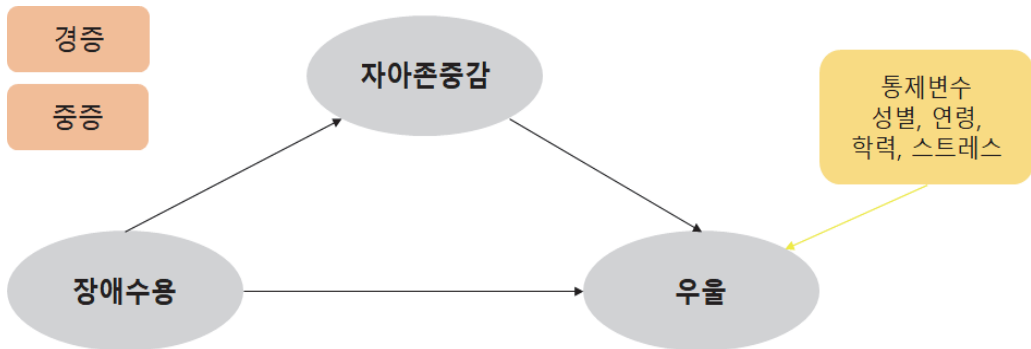
(N=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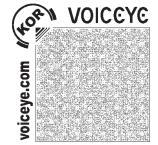
변수	내용	m	sd	skew	kurt	신뢰도	해석
장애수용 (독립)	4점 Likert 척도, 12문항 (1, 3, 7, 12 역코딩)	2.30	.45	-.10	.21	.83	높을수록 긍정적
우울 (종속)	4점 Likert 척도, 11문항 (2, 7 역코딩)	1.70	.56	.90	.43	.90	높을수록 우울함
자아존중감 (매개)	4점 Likert 척도, 10문항 (3, 6, 8, 9, 10 역코딩)	2.68	.41	-.15	.31	.78	높을수록 긍정적

3. 분석 방법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다변량 모형 분석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적합성 검증을 하였으며, 적합성이 검증되었다면 구조적 검증을 하였다. 셋째,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장애수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장애 정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일상 생활 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이때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므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25.0과 Mplus8.3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을 분석 모형으로 요약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결과

1.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의 차이

먼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는 장애정도(경증·중증)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있고, -.357에서 .580 사이로 너무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수 상관관계

(N=4,145)

변수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장애정도
장애수용	1			
우울	-.357***	1		
자아존중감	.580***	-.397***	1	
장애정도	-.220***	.160***	-.223***	1

***p<.001

다음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수용은 전체 평균 2.296에 비해 경증장애인은 2.393으로 평균보다 높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2.195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t검정 결과 -14.509(p<.001)로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울의 전체평균은 1.698로 경증장애인은 평균 1.609, 중증장애인은 평균 1.790으로 우울수준이 중증인 경우가 더 높으며,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10.451, p<.001).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전체평균은 2.683으로 경증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2.773으로 평균보다 높고, 중증장애인은 2.589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14.752, p<.001).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장애 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 차이

(N=4,145)

변수	장애 전체(N=4,145)	경증(n=2,115)	중증(n=2,030)	t
장애수용	2.296(.452)	2.393(.436)	2.195(.445)	-14.509***
우울	1.698(.562)	1.609(.522)	1.790(.586)	10.451***
자아존중감	2.683(.413)	2.773(.388)	2.589(.417)	-14.752***

***p<.001

2.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다집단분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을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세 변수의 하위 문항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며, Bentler(1990)의 기준을 따랐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의 8번째 문항이 .10, 10번 문항이 .38, 장애수용의 2번 문항이 .37, 7번문항이 .32, 12번 문항이 .32로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항목으로 나타나 삭제하고 다시 분석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 값은 8113.81($p < .001$), RMSEA값은 .07(.069-.072), CFI는 .865, TLI는 .852, SRMR 값은 .053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측정모형 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측정모형 검증결과

(N=4,145)

구분	χ^2/df	RMSEA	CFI	TLI	SRMR
결과 값	8113.807***/321	.070(.069-.072)	.865	.852	.053
기준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05 이하
판단		좋은 편	보통 수준	보통 수준	양호함

*** $p < .001$

두 번째, 집단별로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측정 불변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표는 CFI=.856, TLI=.854, RMSEA=.069, SRMR=.056으로 나타나 구조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에서 CFI와 TLI가 각각 .830, .828로 다소 감소($\Delta CFI=.026$)하여 부하량 동일성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으나, 절편동일성 모형에서는 CFI/TLI 변화가 거의 없어($\Delta CFI=0.000$) 절편 불변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측정불변성 검증 모형 적합도

(N=4,145)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형태동일성	7406.066***	690	.856	.854	.069 (.067-.070)	.056
측정단위동일성	9036.454***	858	.830	.828	.068 (.067-.069)	.077
절편동일성	9036.545***	858	.830	.828	.068 (.067-.069)	.077

*** $p < .001$

세 번째, 장애 정도(경증, 중증)에 따른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이때, 그 결과 $\chi^2(df=846)$ 는 9.52($p<.001$), RMSEA는 .064(.063-.065), CFI는 .849, TLI는 .846, SRMR은 .066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정 없이 진행하였다. 먼저 경로계수 비교표를 확인하면, 경증장애인의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beta=.731,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364, p<.001$), 장애수용이 우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beta=.684,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55, p<.001$). 경증장애인과 달리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우울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087, p<.05$). 이에 대한 내용은 <표 7>과 같으며, 경로계수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이때, 통제변수는 도식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림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7> 장애 정도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직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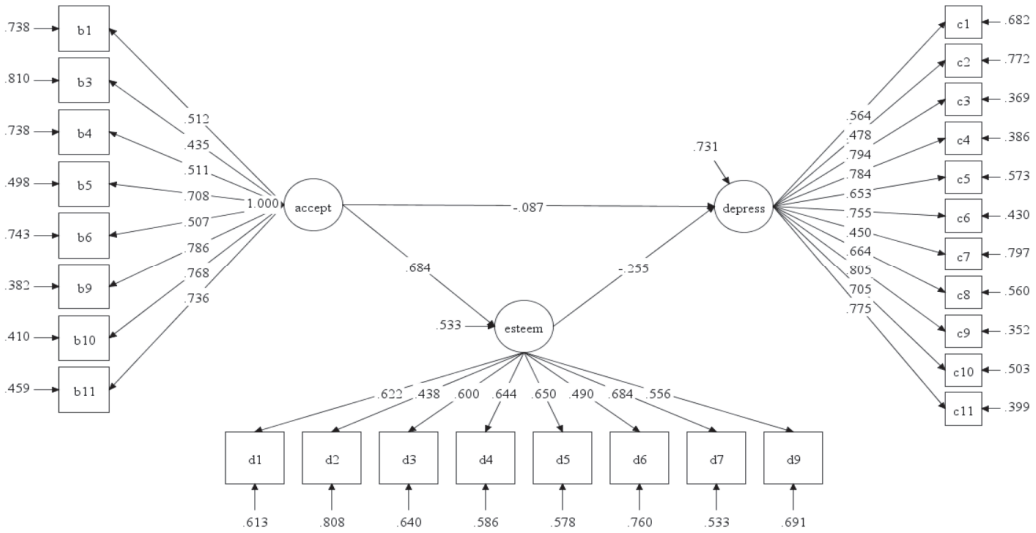
(N=4,145)

경로	경증 β (S.E., p)	중증 β (S.E., p)
장애수용 → 자아존중감	.731 (.018, $p<.001$)	.684 (.019, $p<.001$)
자아존중감 → 우울	-.364 (.044, $p<.001$)	-.255 (.040, $p<.001$)
장애수용 → 우울	.006 (.041, $p=.882$)	-.087 (.032, $p<.05$)

[그림 2] 경증장애인 장애수용(accpt), 자아존중감(esteem), 우울(depress)의 직접경로계수



[그림 3] 중증장애인 장애수용(accpt), 자아존중감(esteem), 우울(depress)의 직접경로계수



마지막으로 장애 정도(경증, 중증)에 따른 장애수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n=500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증 장애인 집단에서는 장애수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전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나타났으며($\beta = -.260, p < .001$), 5%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여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장애인 집단에서는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간접효과 $\beta = -.165, p < .001$), 부트스트랩 후 5%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도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매개효과 비교표는 <표 8>과 같다.

<표 8> 장애 정도에 따른 매개효과 비교

(N=4,145)

효과	구분	경증 β (S.E., p)	중증 β (S.E., p)
총 효과	장애수용 → 우울	-.260(p<.001) (-.322 ~ -.194)	-.261(p<.001) (-.326 ~ -.203)
총 간접효과	장애수용 → 자아존중감 → 우울	-.266(p<.001) (-.353 ~ -.187)	-.165(p<.001) (-.250 ~ -.104)
직접효과	장애수용 → 우울	-.174(유의X) (-.250 ~ .119)	-.087(유의X) (-.185 ~ .004)

V. 논의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와 장애 정도(경증 vs. 중증)에 따라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곧바로 우울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우울을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 둘째, 다집단 구조적 모형 분석 결과 장애정도에 따라 효과 크기가 다르고, 경증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수용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의 객관적 심각성이 우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이 장애를 어떻게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우울 경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한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외부 스트레스나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보호 요인이 환경적 스트레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발현된다고 본다. 장애라는 조건은 일종의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이 가진 심리사회적 취약성(예: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개념)과 보호 요인(예: 장애수용, 긍정적 자기평가)의 수준에 따라 우울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Weissman 등(2021)에서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을 토대의 연구는 심리요인의 매개 및 조절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장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차단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설명력을 장애인 집단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김정유와 엄광진(2025)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는 수용전념치료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면 행동 위주 부정적 결과가 온다는 입장이고,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에 기반하여 접근하였다는 것, 선행연구는 중도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장애 정도가 우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개인의 생물학적 및 심리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Akil과 Nestler(202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과 사회적 배제 경험의 누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경증 장애인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을 외적 조건의 절대적 강도보다는, 개인의 취약성과 보호 요인의 균형에서 찾는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할 때 단순히 의학적 손상 수준이나 장애 정도에만 초점을 두는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오히려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 요인이 제공되면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장애 정도가 경증이라도 심리적 취약성이 크면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이 장애수용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는, 상담 및 임상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은 단순히 장애의 의학적 특성이나 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적 접근보다는, 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보호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동료상담이나 자조모임은 사회적 지지와 장애수용을 증진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긍정심리 기반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강화하여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보호 요인 강화 개입 방향과 일치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을 중심으로 의료적·재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신건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장애인의 우울, 불안, 자살 위험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며,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심리적 보호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사회적 제약들이 누적되어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단순 정보제공과 단기 상담보다 지속적인 자기개념 회복을 목표로 개입이 요구되며, 경증 장애인은 장애 수용 과정에서 심리적 혼란과 정체성 문제를 조기에 다룰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강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에 맞추어, 모든 장애인이 균등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울 예방뿐 아니라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와 향후 과제를 남긴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 5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분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 관계를 엄밀히 규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 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도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조절 변인을 포함하여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더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 이분화하여 분석한 점 역시 한계로 남는다. 실제 장애인은 유형, 발병 시기, 환경적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에는 세분화된 집단 비교가 필요하다. 넷째, 주관적 설문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인식 편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적 평가도구, 심리 검사,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 패널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다집단 매개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취업·경제적 요인을 다집단 모형 내에서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표본 분포 및 식별 문제로 인해 모형이 수렴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다집단 결과는 취업여부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추후, 경제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조모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숙, 전상철. (2022). 장애노인의 장애정도가 차별인지와 차별정도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175-204.
- 김상용. (2022).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난 안전 인식의 매개효과. *재활복지*, 26(3), 73-99.
- 김영란, 정재원. (2014). 스트레스-취약성 및 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적용한 임신 중 우울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57-69.
- 김정유, 엄광진. (2025).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존중받는 정도와 경제생활 어려움의 다중가산조절효과. *공공사회연구*, 15(2), 71-102.
- 김진웅. (2022).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및 장애 정도 다중집단 분석 적용. *장애인복지연구*, 13(2), 182-216.
- 민흥기, 정병수. (2020). 경찰공무원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1), 67-95.
- 박다현, 황정아. (2025). 시설보호아동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들의 고찰: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30(1), 1-30.
- 박엄지, 조민석, 박수희. (2022). 노인 인구의 운동 및 신체활동 정도에 따른 우울감과 인지장애 경험에 관한 연구.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6(1), 105-115.
- 송해란. (2022). 후천적 신체 장애인의 장애기간에 따른 장애수용도 변화와 장애 정도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57, 185-209.
- 신영원, 진민진, 현명호. (2022). 암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30(4), 244-251.
- 안준희. (2025). 장애 노인의 장애정도와 우울의 관계: 사회 참여의 매개효과 및 공적 지원 서비스의 매개효과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3(1), 59-86.
- 이경은, 하은혜. (2011).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77-96.
- 이병도. (2018). 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취약성-스트레스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5), 1-26.
- 이승연, 장유진, 홍세희. (2021).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과 장애수용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51, 93-116.
- 이춘희. (2020). 조현병을 가진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가족중심 개입 사례연구: 의사소통 이론과 취약성-스트레스 이론을 기반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2), 127-158.
- 이현지. (2019). 시설노인이 인지하는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0(3), 787-798.
- 정문경. (2023).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진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4(1), 545-560.
- 정영숙, 정영주. (2015).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67, 357-382.
- 정용, 구훈정. (2019).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취약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6), 63-92.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장애인삶 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1차-6차).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황민지, 기명. (2024).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연관성. *Public Health Weekly Report*, 17(10), 383-403.
- Akil, H., & Nestler, E. J. (2023). The neurobiology of stress: Vulnerability, resilience, and major depress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20(49), e2312662120.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8.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earson.
- Morozova, E. V., Shmeleva, S. V., Sorokoumova, E. A., Nikishina, V. B., & Abdalina, L. V. (2015). Acceptance of disability: determinants of overcoming social frustration.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7(3), 317-323.
- Chiu, S., Livneh, H., Tsao, L., & Tsai, T. (2013).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its predictors among stroke patients in Taiwan. *BMC neurology*, 13(1), 175.
- Weissman, D. G., Rodman, A. M., Rosen, M. L., Kasparek, S., Mayes, M., Sheridan, M. A., Lengua, L. J., Meltzoff, A. N., & McLaughlin, K. A. (2021). Contributions of emotion regulation and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to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s and stress vulner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study. *Biological Psychiatry Global Open Science*, 1(4), 272-282.
- Zubin, J., & Spring, B. (1977).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schizophrenic episodes.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tress-vulnerability model : A Multigroup Analysis by Disability Severity

Hyeyeong Jeon*

This study examined how disability acceptance influences depress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considering differences by disability severity. Using data from 4,145 participants in the 5th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anel, the analysis found that higher disability acceptance was linked to lower depression, with self-esteem mediating this relationship. For those with mild disabilities,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depression only through self-esteem, while for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it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se findings highlight disability acceptance as a key protective factor in psychological adjustment, suggesting that self-esteem-enhancing interventions can help reduce depression. The results also emphasize that mental health support should focus on psychosocial factors rather than disability severity, promoting equitable care for all.

Keywords : Stress-vulnerability model, Disability acceptance, Depression, Self-esteem, Disability sever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논문 투고 : 2025.10.15.	논문 심사 : 2025.12.15.	게재 확정 : 2025.12.18.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077 - 106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상호작용과 경계 : 르페브르 사회적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김은빈*, 조하리**, 이교일***

이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개념적 틀로 적용하여,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공간의 재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신장애 대학생은 입학 초기 대학 공간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상호작용 경험 이후에는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낙인이 결합되어 불안과 회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은 '배제와 소외의 장소'로, 또 다른 일부 공간은 '부분적 제약이 있는 보호지대'로 재의미화되었다. 둘째, 정신장애 대학생은 특정 공간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공간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선택하고 이동하였다. 이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고 공간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적 실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이 정신장애 대학생을 위한 공간을 계획할 때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심리적 안전감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신장애 대학생, 앙리 르페브르, 사회적 공간, 심리적 이동권, 상호작용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조교수, rewaev@naver.com

I. 서론

최근 국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62.8%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30%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자살 고위험군이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대학상담협의회, 2022). 이러한 결과는 많은 대학생들이 정체성 확립, 사회적 독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육근실, 신성희, 2024). 또한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최근 2년간 약 두 배 증가했다는 사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대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은 단순한 환경 순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 과정이다(Schaffer, 1956; Adams, 1972, Lazarus, 1976).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생 활적응 과정에서 갖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었다. 친구, 교수 등 주요 타자와의 관계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교내 동아리나 학습공동체와 같은 소속 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장(場)으로 기능하였다(조명근, 한송이, 2025). 그러나 정신장애 대학생은 높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대학환경,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정서적 어려움, 신체장애 중심의 제도적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 부담이 가중되었다(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이종남, 김근면, 2016).

한편, 정신장애는 비가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위험성’, ‘무능력’, ‘예측불가’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은 강한 낙인과 편견에 직면한다(김문근, 2015).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당사자에게 내재화되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안희철, 김민아, 박경미, 2016). 그러므로 정신장애 대학생이 다른 대학생과 같이 동등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교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자는 교육이나 진로지도 중심(안성희, 2017), 후자는 신체장애 중심의 물리적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이종남, 김근면, 2016). 이러한 이원화된 경향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각 센터에 실시하는 서비스 대상조건 경계에 놓이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은 대학 공간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권력구조,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생산되는 총체적인 사회적 산물로 보았다. 그는 사회적 공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적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삼원구조는 공간을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구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데 유용하다(박성준, 2024).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경험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제약, 사회적 낙인과 편견, 대학제도 및 규범이라는 구조적 맥락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험에 기반하여 물리적 이동성을 이해해야 한다. 르페브르의 이론은 거시적 권력구조와 미시적 경험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경험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을 우울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대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내 장애인복지법상으로 ‘정신장애인’을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의한 ‘정신질환자’보다 범주가 좁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대학생은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장애학습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또한 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과 공간 이용의 한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모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정신장애 대학생으로 정의한다.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 제도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조사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 감정, 관계의 변화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적절하다. 이에 이 연구는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대학 공간을 어떻게 재의미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기존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연구의 분석틀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정신장애 대학생은 대학 공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는가?
- 연구문제 2. 정신장애 대학생은 대학 공간을 어떻게 재의미화하는가?

II. 문헌고찰

1. 대학 공간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의 상호작용과 배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이 환경에 일반적으로 순응하는 수동적 과정보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능동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이, 박용한, 2009; Schaffer, 1956; Adams, 1972; Lazarus, 1976). 대학생활적응을 학업, 사회적 관계, 정서적 적응과 대학 애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학문적 요구 충족, 사회적 관계 형성, 진로 준비 등 복합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다(Baker & Siryk, 1984).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은 지적 성장, 정체성 형성, 심리적 안정 등 미래의 삶과 연결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전인적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반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좌절감과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에는 교수 및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교내 활동 참여, 소속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2005; Trolan et al., 2016). 또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의 중요한 자원이므로(조명근, 한송이, 2025), 장애 학생의 경우 비장애 학생보다 이러한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장애 대학생에게 대학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 학업, 사회적 관계의 장이므로, 이는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Stodden, 2005). 그러나 실제 대학생활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은 이중 어려움을 경험한다. 첫째, 대학 공간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강의실 이동, 시간 관리, 수업방식에 대한 적응 등 여러 영역에서 독립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신장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활적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혜경 외, 2011). 둘째, 정신장애 증상 자체가 학업 집중력, 학습동기, 기억력 등을 저하시켜 중도 탈락의 위험을 높이며(김정진, 2004; Mohr et al., 1998),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정신장애 대학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어렵게 한다.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센터는 교육 및 진로지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치료 및 적응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안성희, 2017).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신체장애 중심의 물리적 지원(장애학생도우미, 보조기기 제공, 시험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이종남, 김근면, 2016). 두 센터의 분리된 서비스 구조는 정신장애 대학생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더라도 실제로는 배제되거나 주변화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대인관계 회피와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어 심리적 위

축을 유발한다. 이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대학 입학 초기에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교수나 또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제약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진, 유성경, 2001; 김자경, 신보희, 2015).

따라서 이 연구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적응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이 대학 공간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경계와 배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이 대학 공간을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학업 지원에 집중해 온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사회적 공간

일반적으로 공간은 물리적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러한 물리적 접근만으로는 공간의 복합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과정이 중층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동일, 2022). 즉 공간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으므로 물리적 특성을 초월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을 갖게 되는 장(場)이다. 공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동일 외, 2017). 따라서 공간은 개인과 공간,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미가 창출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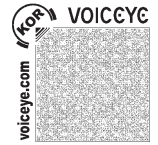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사회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 그는 『공간의 생산』(Lefebvre, 1974)에서 공간은 자명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권력관계, 이데올로기적 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을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공간의 실천(spatial practice), 재현적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공간의 재현은 계획가, 설계자, 정책 입안자들이 개념적으로 설계한 공간으로, 대학의 제도적 구조, 교육과정, 물리적 설비, 운영규칙 등을 포함한다. 공간의 실천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생활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행위 양식으로, 강의실 수업, 동아리 활동, 캠퍼스 이동 경로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의미가 재생산된다. 재현적 공간은 개인의 감정, 기억, 상징이 결합된 주관적 공간이므로, 특정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낙인과 배제의 기억도 환기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삼원구조는 물리적 장소와 인간의 실천과 인식, 상징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공간 개념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박성준, 2024).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경험을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물리적 제약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재현 차원에서 대학은 학습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설계와 운영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공간의 실천 차원에서는 강의실, 도서관, 휴게공간 등에서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며, 비장애 학생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거리감과 불편을 경험할 수 있다. 재현적 공간 차원에서는 낙인과 편견이 내면화되어 특정 공간을 회피하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학 공간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제도에 따라 정신장애 대학생에게는 접근과 참여가 제한되는 ‘배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대학 공간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배제의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생활을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특히 ‘대학 공간에서 배제되는 존재’로서 정신장애 대학생이 직면하는 대학 공간 내에서 배제 과정을 규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신장애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며,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방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탐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거나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유기용 외, 2018). 또한 현재의 현상을 실제 생활 맥락 내에서 연구하는 경험적 탐구로서도 가치가 크다(Yin,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에서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과 대학 공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4년제 대학 재·휴학생 8명이며, 선정을 위해서 비확률표집 방법 중 의도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샘플링은 특정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해석을 통해 통찰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한 표집방법이다 (Padgett, 2001). 정신장애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감이 높은 장애유형이므로(박지혜, 이선헤, 2016),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집해야 했다. 또한 2021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결과에 따라 정신장애 진단군별 1년 유병률 중 높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위주로 표집하였다. 국내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홍보게시판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1)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4)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8명의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자료 포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주제나 패턴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름, 성별, 대학교, 학년, 재학 여부, 진단명 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명단과 일반적 특징

번호	이름	성별	대학교	학과	학년	재학여부	진단명
1	조OO	여자	A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재학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우울장애
2	서OO	남자	B대학교	무역학과	4	휴학	우울장애
3	김OO	여자	C대학교	광고홍보전공	2	휴학	우울장애
4	이OO	여자	A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3	재학	우울장애
5	전OO	여자	B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	재학	우울장애, 불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6	조OO	남자	B대학교	간호학과	3	재학	우울장애
7	이OO	남자	A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	재학	우울장애
8	하OO	남자	A대학교	재활상담학과	4	재학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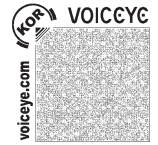
2025년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의 깊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상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김인숙, 2016). 또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회당 약 60~9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 장소로는 스튜디오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일부는 연구참여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얼굴 노출을 희망하지 않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의 주제에 따라 면접질문지를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하며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정신질환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대학 내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그에 따라 대학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대학 공간 중 편한 공간과 불편한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종료 후 즉시 전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2. 자료분석

이 연구는 일반적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심 개념들을 도출하는 것이다(Creswell, 1998). 이 과정에서 면접내용을 축약하고 주제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연구자의 통찰과 해석을 사용한다. 이때 연구자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사례에 대해 자세한 기술과 주장을 곁들일 수 있다(Stake, 1995).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녹음된 모든 연구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듣고 전사한 후,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 녹취록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 ‘낙인’, ‘공간의 어려움’ 등을 발견하였다. 셋째, 추출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녹취록을 검토하면서 핵심 주제의 개념들을 찾아 나갔다. 넷째, 앞선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제들이 면접 내용들을 잘 반영하는지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핵심 주제들은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에서 상호작용 경험과 재의미화를 살펴보는데 토대가 되었다. 한편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점검하였다.



3. 연구윤리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과 중도 철회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낙인이 있는 민감한 주제이므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거나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하였으며,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록은 연구자만 접근가능한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예정이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 대학생 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학에 대한 기대와 상상’, ‘침묵과 연결 사이에서’, ‘대학이 ‘사회적 공간’이 되는 순간 : 안전지대와 위협공간’,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변화의 과제’로 총 4개의 주제와 ‘나를 만들어 갈 기회의 장’을 포함한 총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대학에 대한 기대와 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만들어 갈 기회의 장 • ‘나’를 재발견하는 가능성
침묵과 연결 사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거운 입, 더딘 대화 • 편견이 만드는 소리없는 거리감 • 공감의 언어로 둘러싸인 보호지대
대학이 ‘사회적 공간’이 되는 순간 : 안전지대와 위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는 공간의 의미 • 주체적 해석을 통해 만들어가는 나의 공간 • 위협으로 기억되는 대학 공간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변화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를 경험할 기회의 필요성 • 낮아져야 하는 낙인의 허들 •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조성

1. 대학에 대한 기대와 상상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재현은 기획자·설계자·정책 입안자 등이 그린 제도적 이미지이며, 이상적 사회로 재현되는 공간 이미지를 포함한다. 대학의 제도적 이미지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기대감은 ‘자유로움, 사회관계 확대, 자아정체성 회복 가능성’과 같은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1) 내가 만들어 갈 기회의 장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을 교육과정의 연장과 새로운 관계 형성, 주체적 일상 설계가 가능한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개인의 관심사 중심의 활동, 정신장애 편견에서 벗어난 상호작용을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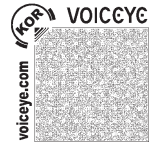
“기대도 있긴 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랑 다르게 대학교는 그래도 막 그러잖아요. 막 캠퍼스 라이프 재밌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중략)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면은 인간관계 풀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 군상도 만날 거고, 좀 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학생이라는 제약이 풀리고 규율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니까.. 오픈된 곳에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재미있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대학이라는 공간을 자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상상하였다. 규율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달리, 대학은 자율성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저랑 취미가 맞는 동아리에 들어간다던지 동기들이랑 좀 어울린다 이런걸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2)

“저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와 3 역시 대학을 새로운 관계 형성과 자기주도적 시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대학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활동과 시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나’를 재발견하는 가능성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을 삶의 재설계와 정체성 회복의 기회로 인식했다. 특히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삶의 단절 이후 재입학을 선택한 연구참여자자는 대학을 심리사회적 돌파구의 장(場)으로 간주했다.

“학교라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되게 좀 살아있잖아요 (중략) 내가 그러면서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그래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돌파구가 학교였고, 여기서 또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살아갈 나에 대해서 그거를 좀 기대했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8은 대학을 삶의 전환점이자 자아 탐색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단절된 경험 속에서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품으며 대학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였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축소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나의 편견을 3년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제 첫 인상이 3년을 가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여기(대학교)는 큰 사회니까 여기서는 내 편견을 마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리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죠.”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대학을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는 더 큰 사회로 인식하였다. 정신장애 인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청소년기 학교와 달리, 대학은 낙인을 극복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하였다.

이처럼 대학은 학문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재발견하고 사회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의미화된다. 이는 대학이 제도적으로 표상하는 이미지(자율성, 성장, 다양성)가 정신장애 대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기대감은 르페브르의 ‘공간의 재현’이 제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희망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침묵과 연결 사이에서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실천’은 사람들이 일상 공간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체적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 사회적 규범의 재생산 과정을 포함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폭과 질이 제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의 상호작용은 종종 지연되거나 단절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보호지대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 무거운 입, 더딘 대화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대학 입학 전 기대와 달리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상호작용 제약을 경험하였다. 정신질환 증상인 ‘집중력 저하’와 ‘충동적인 발언’은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자기검열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흐름이 끊기고 긴장감 고조와 감정소진으로 나타났다.

“(중략) 말을 약간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 네? 라고 되물어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 상황이 진짜 많고, 말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말하게 돼 가지고 약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집중력 저하와 충동적 발언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제가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하게 있을 수가 없고, 가끔 뭐 그런 생각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욕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같은 걱정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연구참여자 5)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지? 나쁜 의도가 애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일까 생각하다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을 왜 하지? 그냥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또 왜 하고 있을까요?’ 또 빠지는 거예요. 이 굴레에 빠지는 거로 보면 이게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심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5와 8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자기검열과 불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며 반복적으로 의심과 반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침묵이나 회피를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대학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 편견이 만드는 소리없는 거리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연구참여자들의 ‘대학 공간에서의 침묵’을 강화시켰다. 정신질환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평가나 관계 단절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다.

“진짜 아예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의지 부족 탓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게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중략) 우울증 있다. 정신과 다닌다 하면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그런... 막 깔 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진짜 머리에 꽃 달고 약간 지능이 낮은 약간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 좀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국내 대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정신질환이 여전히 ‘위험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부정적 편견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편견이 대학 공간에서도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이제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뭐 정신병자다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물론 상담심리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그 친구들 마음속을 제가 다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 약점이 될 부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연구참여자 5)

“그냥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선블리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혼자 이겨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사회가 안 좋게 보고하니까... (중략)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 인간관계가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없는 인간관

계에서 더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5와 2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실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인간관계가 단절될까봐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편견이 예상되는 순간 상호작용은 더욱 어려워졌다.

“조현병 환자 봤냐 교내에서 봤냐 하셨는데 저희는 조현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많이 지나다니지 않냐 생긴 거 보면 딱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

“솔직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교수님들이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도 정신질환을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솔직하게 말하기 많이 겁나죠.”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1과 5는 교수들 역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교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교수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교수와의 소통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공감의 언어로 둘러싸인 보호지대

정신장애 대학생들은 낙인과 증상으로 인해 대학 공간에서의 관계형성이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찾아내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대를 형성하였다. 보호지대는 크게 ‘어른’과의 관계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 약간 검증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비밀 보장을 해 줄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1)

“저희 과가 상담심리학과다 보니 교수님께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도교수

님께서 제가 수업을 워낙 안 나오니까 신경 써주셔서 부르셨거든요. 제가 그때 학교 오는데 약간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나와서 자기랑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런 식으로 좀 학교 나오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께 나무라지도 않고 학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출석 같은 것도 과제로 어떻게든 좀 무마해 주려고 좀 도와주셨어서..."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구성원 중에서도 특정 교수에게서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다. 특히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교수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도 편견보다는 비밀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정신장애 대학생은 이러한 교수를 '검증된 사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학과 내 지도교수님께 정신질환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에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있다고 해버리면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학과가 그쪽인데 그 후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나를 간호해 주는 간호사가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딱히 밝히고 싶지는 않네요." (연구참여자 6)

"(학과 내 지도교수님께 정신질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픈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게 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잖아요." (연구참여자 7)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는 학과 교수에게 정신질환을 밝힐 경우, 자신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뢰하는 다른 학과 교수에게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공유하여 이해와 지원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교수'라는 존재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학 공간에서 학생의 정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선택적 패턴은 또래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정신질환 경험이 있거나,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또래에게는 자신을 쉽게 드러내고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말을 했고 그 친구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냥 같이 말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좀 친해지다 보면 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배경 설명을 해 주는 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오픈을 하고 가는 게 좀 있죠.” (연구참여자 7)

“워낙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힘든 부분 같은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줬다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과하게 신경 써주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괜히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게 됐으면 내가 괜히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위로 해주고 또 가볍게 분위기 풀면서 다른 얘기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친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5)

또래관계의 보호지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는 관계’일 때 기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지대를 통해 대학 공간에서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형성한 보호지대는 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며 대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주체적 전략이었다. 교수 및 또래관계에서 형성된 보호지대에서는 대학의 물리적 공간과 중첩되지만, ‘신뢰와 공감’라는 공간의 의미가 생겼다.

이처럼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은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 내에서 ‘침묵’과 ‘연결’의 경계를 오가며 구성되었다. 이들의 침묵과 회피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부터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공감의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교수나 또래를 통해 의미있는 연결을 시도하여 새로운 관계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실천 차원에서 동일한 공간이라도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경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대학이 ‘사회적 공간’이 되는 순간 : 안전지대와 위협공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학 공간을 주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들이 선택한 공간은 빈 강의실, 도서관, 단과대학 내 라운지처럼 개인의 영역이 보장되는 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실, 동아리실, 대학 내 카페 등 타인과의 선택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소가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대학 공간일지라도 연구참여자가 그 공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주관적 해석이 공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즉, 연구참여자의 기억과 감정에 따라 공간이 재의미화되었다.

이는 르페브르의 재현적 공간 개념과 부합하는데,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축적되고 이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고유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장애 대학생들에게 대학 공간은 제도적 이미지나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재의미화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1) 관계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는 공간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의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자신을 '불편한 사람' 혹은 '거리를 뒤야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공간을 찾아갔었다.

"(동아리실에 대해) 저기는 딱 제가 문을 열 때마다 애들을 모을 수 있어서. (중략) 그냥 저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니까. 굳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일단 저를 필요로 하고 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니까." (연구참여자 4)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거 하나 오픈한다고 이상해지지 않는 거죠. 거의 저기는 이미 소수자 모임이고 (중략) 거기서 우리가 정상이죠"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4는 과거 학과 내에서 따돌림으로 배제의 경험을 겪은 학회실과 달리, 동아리실은 자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래학우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된 공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학교 내 비공식 소수자 모임은 '정신장애'를 의식하기보다는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은 기억이 있는 공간이었다.

"(실험실에 대해) 그렇게 둘이 있어서 일단은 뭐 얘기 코드는 잘 맞아요. (중략) 어느 정도 얘기가 맞아요. 저도 희한하게 나이 든 분이랑 얘기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도 좀 괜찮은 공간? 편한 공간이긴 해요." (연구참여자 8)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렇게 힘든 것이 너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깐.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에 공감을 해 주니까. 친구들은 사실 공감 못 해 주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게 그렇게 힘든 부분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또래에서는. 근데 어쨌든 나보다 좀 더 선생이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들을 봤고 어쨌든 선언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

람들이 이제 너 나이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고.” (연구참여자 7)

“좀 마음이 조금 깨끗해진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이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조금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위로해 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지고 약간 더 그랬던...” (연구참여자 1)

일부 연구참여자에게 교수 연구실은 정서적 안전지대가 되었다. 실험실과 연구실은 긴장감이 존재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박민영 외, 2023), 연구참여자에게는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근로지원 선생님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과 회복의 기억을 지닌 공간으로 재의미화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장소’ 외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기억이 있을 때,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그 공간은 안전지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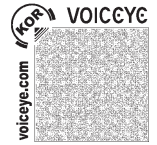
2) 주체적 해석을 통해 만들어 가는 나의 공간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다른 공간은 ‘개인의 영역이 존중되는 공간’이었다. 조용한 도서관과 라운지는 혼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제 마음이 편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성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책들을 찾으러 왔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잡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 같은 게 없죠.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된다는 것만 있지 (중략) 도서관에 가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공간이니까” (연구참여자 7)

“(도서관에 대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이렇게 너무 공공 예절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막 해도 되고 딱히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저는 도서관 아니면 그냥 학교 강의실 건물 내에 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쉬기도 했어요. 강의실 건물에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쉬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사실 좀



조용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용한 공간이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도서관을 단순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환경은 불필요한 사고와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자신만의 안전지대로 기능하였으며, 사회적 규범과 자율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공간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과 라운지가 지닌 공공성은 오히려 사람들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고, 그러한 거리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기숙사 룸메이트와 소통을) 아예 안 해요. 네. 쉬어야 되는 공간까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오기는 싫은 거죠. (중략) 어차피 한 학기 보고 말 사람이라면 거기서 서로 벽친 듯이 살아야 실제로는 둘이 같이 있어도 벽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온전히 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 공간이 아닌데 가상적으로 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연구 참여자 7)

기숙사 같은 경우, ‘물리적 공유 공간’이므로 개인에게 온전한 사적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7은 룸메이트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줄여 ‘가상적 개인 공간’을 확보하였다. 실제로는 함께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체적 해석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위협으로 기억되는 대학 공간

하지만 모든 공간이 안전지대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학 공간은 여전히 심리적 장벽과 위협으로 다가왔다.

“제가 그때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냥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위에서 뭐가 짓누르듯이 이제 몸을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다 학교를 갈 준비를 해도 학교 가는 길에 되면 너무 답답하고, 이제 마치 뭐 죽으려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학교 가다가도 도중에 집에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연구 참여자 5)

연구참여자 5의 사례는 대학생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대학 공간 자체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일지라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기억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대학 공간은 물리적 구조와 함께 관계적 규범과 개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식적인 대학 공간 안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작용과 고립, 치유와 회피가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의미'란 특정 공간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공간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르페브르가 말한 '재현적 공간'의 특성, 즉 대학 공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정서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임을 보여준다(Lefebvre, 1974).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재의미화 과정은 개인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정신장애 대학생은 행정적·제도적 지원 없이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고 공간을 재의미화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공간일지라도 성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안전지대로 이어졌지만, 실패할 경우 위협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현재 대학 공간이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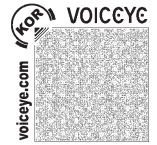
4.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변화의 과제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대학 공간은 정신질환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이자, 증상으로 인해 대학생활이 어려운 공간이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구성원과 상호작용을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사회가 부여한 '정신질환자'라는 고정된 프레임 속에서 이들은 대학 안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동등한 대학생으로서 성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환경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이는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생산'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대학 공간의 포용성을 재구성하는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1) 함께를 경험할 기회의 필요성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길 원하지만, 낙인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이 제약되었다. 이들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길 원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가 개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방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중략) 이 친구들(정신장애 대학생)이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케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공동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저는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싶고, 속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상호작용)에 대한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1은 정신장애 대학생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참여자 2는 대학 내 상호작용 기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필수 교과 과목 중에 특수한 과목이 하나 있어요. 취지는 나를 알아보다 이런 느낌인데, 4명씩 반강제적으로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면 좀 친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대학 수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 기회가 마련된다면 편견 해소와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는 제도적으로 상호작용 기회가 보장될 경우, ‘소리없는 거리감’을 줄이고 공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호작용 양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낮아져야 하는 낙인의 허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을 하나의 질환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치료 환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의 낙인이 해소되어 누구나 치료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는 일단 심리상담의 허들을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서 우울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한 번씩 약간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굳이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상담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면 상담받으러 가는 허들같은게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5)

“주위 사람들도 병원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병원을 고려하도록 공간을 형성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 먹으면 엄청난 호전이 있지는 않아도 그 사람이 생존하게만 만들어주거든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5는 상담의 진입 장벽을 낮아져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연구참여자 7은 병원이 사회적인 시선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낙인은 정신장애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회복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는 심리 상담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낙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조성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타인과 대학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 결국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화되어야 개인의 노력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에 대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제 병을 증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서는 저를 안 받아들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의 노력을 한 건데 이쪽(사회)에서는 노력을 안 한 거죠.” (연구참여자 7)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의 시선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더라도 사회가 못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해 개선할 수 없거든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신장애 대학생의 노력은 의미없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수용성이 동시에 작동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 2 또한, 개인의 노력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되어야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공간이 르페브르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공간의 재현 차원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간의 실천 차원에서는 낙인이 해소된 환경에서 안전한 대화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재현적 공간 차원에서는 대학 공간이 두려움과 위협의 공간이 아닌 공감과 회복의 기억이 있는 장소로 재의미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대학은 비로소 정신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학 공간으로 재생산 될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토대로,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 양상과 공간의 재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권력구조,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생산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배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신장애 대학생은 입학 초기 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어 새로운 기대와 ‘나’를 재발견하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실제 상호작용 경험 이후에는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낙인이 결합되어 상호작용 양상이 불안·회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은 ‘배제와 소외의 장소’로, 또 다른 공간은 ‘부분적 제약이 있는 보호지대’로 재의미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대학생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교수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는 동일한 장소라도 관계·권력·상징에 따른 상호작용 경험이 상이한 사회적 공간을 변모한다는 르페브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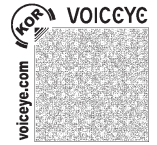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신장애 대학생은 특정 공간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대학 공간을 재해석하여 대학 공간을 범주화하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도서관, 빈 강의실, 라운지 등 타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숙사나 일부 강의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강화하는 위협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대학 공간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 공간 선택권으로 재정의되었으며, 이는 이동권 개념을 물리적 접근성 중심에서 심리사회적 관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 전반에 핵심적 요인이며(이인경, 김장희, 2011; 최영

훈, 성민경, 2015),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부담·비밀보장 우려·낙인 회피가 교수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정신장애 대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용적이고 기다림의 태도를 가질 때, 이들의 심리적 안전지대가 조성될 수 있다. 교수는 수업이나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낙인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교수가 정신장애 대학생을 상담하기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상담이 '성장 기회'로 인식되도록 하는(박알뜨리 외, 2023) 제도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 대학생의 원활한 대학 공간 이동을 위해서는 이동권 개념을 확장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이동권 논의는 주로 물리적 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춰 왔다. 사회적 배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도적·환경적으로 이동권이 보장되더라도 실제 이동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이들의 이동범위가 좁아지게 된다(이유신, 김한성, 2019). 이러한 현상은 이동권의 요소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이유신과 김한성(2019), 유두한 외(2011)는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자신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결합할 때 실질적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정신장애 대학생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공간에 물리적 장벽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낙인,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반영해야 대학 공간 접근성이 올라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심리적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신장애 대학생이 자율적으로 대학 공간을 선택·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나 각 단과대학에 정신장애 대학생의 욕구에 맞게 별도의 조용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충분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수업 중 정신장애 증상이 발현될 경우 교수와 학생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시선이나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자연경관과 관련된 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도, 색채,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한 쉼터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 정서적 지지 그룹을 위한 전용 모임 공간을 제공하거나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카페형 라운지를 조성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지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르페브르가 말한 '사회적 공간의 생산' 개념과 맞닿아 있다. 공간은 사회적 관계, 권력구조,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된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공간 설계와 운영이 필수적이다.

셋째, 대학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접근성을 제한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회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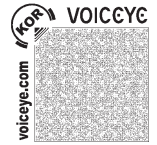


기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공동체 기반 대화 프로그램, 정신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권력관계와 의미 체계를 재구성하여 대학 공간을 보다 포용적인 장(場)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이 연구는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경험과 배제를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이론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공간을 물리적 공간으로 해석하여 물리적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안전과 자율적 공간 선택권을 대학생들의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한계로, 비장애 대학생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여 대학 공동체 속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캠퍼스의 물리적 구조와 이동 동선, 공간 배치 등 물리적·제도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 간 비교와 더불어, 캠퍼스 공간의 물리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포용적 공간 설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 인식, 경험 및 요구 분석. 통합교육연구, 6(2), 265-294.
- 김동일·김은주·김재철·김태원·마티나 뢰브·신승원·이현재·최병두·하홍규·허경. (2017). 공간에 대한 사회인문학적 이해. 라움
- 김문근. (2015).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7, 7-42.
- 김은경. (200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4), 877-895.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자경, 신보희. (2015).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시각장애연구, 31(2), 1-19.
- 김정진. (200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정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학업지원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 지원교육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2), 97-124.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유신, 김한성. (2019).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9(1), 136-165.
- 박성준. (2024). 웹소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공간 생산의 주체 -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연구, 31, 145-180.
- 박알뜨리, 박은영, 전소리. (2023). 책임지도교수가 인식하는 학사지도 상담에서의 어려움. 열린교육연구, 31(6), 161-188.
- 박지혜, 이선혜. (2016).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위험 추정: 타 장애집단과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47(4), 361-388.
- 안성희. (2017).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학 내 서비스와 상담전략에 대한 제언: 정신재활서비스의 적용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4(1), 29-48.
- 안희철, 김민아, 박경미. (2016).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120-149.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두한, 박현경, 전병진. (2011). 보행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시골지역 거주 장애인의 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1(1), 7-17.
- 육근실, 신성희. (2024). 대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획



- 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33(2), 170-180.
- 이동일. (2022). 공간의 사회적 구성과 한국공동체 공간의 공유. 한국학논집, 86, 371-405.
- 이은진, 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83-1115.
- 이인경, 김장희.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 이종남, 김근면. (2016).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유형. 주관성 연구, (34), 89-111.
- 전국대학상담센터협의회. (2022).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전국대학상담센터협의회.
http://www.ccus.kr/notice/notice_2.php?tb=pds
- 정은이, 박용한. (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 조명근, 한송이. (202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경험에 대한 인식. 인문사회과학연구, 33(1), 635-655.
- 최영훈, 성민정. (2015). 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한 대학에 대한 관계성 인식 탐색: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1), 103-136.
- 박민영, 민지희, 유형섭, 이유민, 정지윤. (2023).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노동안정보건연구소.
- Adams, H. E. (1972). *Psychology of adjustment*. The Ronald Press Company.
- Baker, R. W.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79-189.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Éditions Anthropos.
- Mohr, J. J., Eiche, K. D., & Sedlacek, W. E. (1998). *So close, yet so far: Predictors of attrition in college seni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4), 343-354.
- Padgett, D. K.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Schaffer, H. F. (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Houghton Mifflin Company.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odden, R. A. (2005).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ost secondary education*. TASH Connections, 31(11/12), 4-7.
- Trolian, T. L., Jach, E. A., Hanson, J. M., & Pascarella, E. T. (2016). *Influencing academic motivation: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7), 810-826.

Yin, R. K. (2011).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Abstract

Social Interactions and Boundaries of University Space Among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Henri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EunBean Kim*, HaRi Jo**, KyoIl Lee***

This study applies Henri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explore in depth the interacti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within university spaces and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se spaces are re-signifi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college stud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by psychiatric professionals, and were analyzed using a case analysis approa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participants initially held expectations and imaginaries of the university as an open and neutral space, their perceptions shifted after actual interaction experiences, as psychiatric symptoms and social stigma intersected to produce patterns of anxiety and avoidance. As a result, some campus spaces were re-signified as sites of exclusion and alienation, while others came to be understood as protective zones with partial constraints. Second, participants reinterpreted campus spaces based on accumulated memories and emotions associated with specific places,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Lifelong Education & Senior Welfare, Daegu University, rewaev@naver.com

selectively choosing and navigating spaces that felt safer to them. This process constituted a form of agentic practice through which students actively reconstructed their spatial experiences and sought personal safety zones in contexts wher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was limi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y and practice in university spatial planning that extend beyond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s to include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safety and mobility rights for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Henri Lefebvre, Social Space, Psychological Mobility Rights, Social Interaction

논문 투고 : 2025.10.15.	논문 심사 : 2025.12.03.	게재 확정 : 2025.12.15.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107 - 136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 의도 인식 차이*

틀리완굴라 피터**, 정진자***

본 연구는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 의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에서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초등교사 총 210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보다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저시력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연령이 많은 교사들이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는 인식된 유용성에서, 전문학사와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는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전문학사와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는 만족도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5년이상~10년미만 교사는 인식된 유용성과 만족도에서, 10년이상~15년미만 교사는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15년이상의 교사는 인식된 사용 용이성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만족도에서,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는 저학년을 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보조공학 활용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교사의 배경 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시각장애학교 교사, 보조공학,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분임.

** 우석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졸업

*** 교신저자,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chjj@woosuk.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간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보편적 기초 교육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나라로서, 1997년에 보편적 초등교육(Universal Primary Education, UPE) 프로젝트를 도입한 후 초등학교 등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6년 250만 명의 학습자에서 2015년 8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초등교육의 확대에 의해 빈곤층 가정의 아동들이 초등교육에 크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장애아동들은 아직 이 캠페인의 혜택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202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시각장애인 중 약 60%가 우간다를 포함한 20개 아프리카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Abdianwall & Doğan, 2018; WHO, 2009), 시각장애인 중 1,800만 명 이상이 15세 미만의 아동으로 조사되었다(Merrie, Tegegne, Munaw, & Alemu, 2019). 2014년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우간다에는 약 250만명의 장애아동이 있으며, 인구의 약 6%가 시각장애인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제 실명예방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IAPB)에 따르면, 우간다 시각장애인의 주요 원인은 백내장과 굴절 이상이며, 우간다 인구 1,000명당 약 4.5명의 아동이 저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molo et al., 2024).

2022년 12월 기준으로 우간다 교육 시스템에 등록된 시각장애학생 수는 초등학교 665명, 중등학교 256명, 대학교 약 100명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현재 우간다에는 24개 시각장애학교가 있으며, 그중 중등학교는 11개에 불과하다(UNICEF Uganda, 2024). 또한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교육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낮은 학업성취도, 낮은 졸업률, 중등 이후 교육 및 직업 기회 제한과 관련이 있다(Saleem, Sajjad, & Rauf, 2019). 특히 시각장애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Omolo et al., 2024). 이러한 어려움은 전문 특수교사 및 교사 훈련의 부족, 교재의 부재, 교육 인프라 미비 등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Musenyente, Han, & Knigge, 2022).

이에 우간다 교육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MoES)는 2017년부터 유엔아동기금 및 노르웨이 정부와 협력하여 점자 타자기, 오빗 리더, 텍스트 음성 변환 노트북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를 20개 시범학교에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UNICEF Uganda, 2024).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우간다 시각장애인협회(Ugand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Blind, UNA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간다 현지에 점자출판시설 'UNAB 실로암 브레일 프레스(UNAB Siloam Braille Press)를 개설하여 시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KOICA, 2021).

또한 우간다 교육체육부는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학습자의 성취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를 제공하며,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kech et al., 2021). 그리고 시각 장애학생 및 시각장애인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Oysters & Pearls, 2025).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AT)은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 자립성, 그리고 교육·고용·일상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도구, 장치, 시스템 및 서비스의 총칭이다(UNICEF Uganda, 2024). 이는 저기술 보조공학부터 고급 디지털 기술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며, 점자 기기나 화면 낭독기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나 음성-문자 변환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보조공학은 장애학생들의 적응 기술, 학습, 의사소통, 여가 활동, 개인 관리 등의 영역에서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Monden et al., 2024), 보조공학 활용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사가 필요하다(Brandt, Hansen, & Christensen, 2020). 따라서 적절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Monden et al., 2024).

기존 연구들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보조공학의 도입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Şahin & Yildiz, 2024), 일부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환경에서 보조공학기기의 실제 사용이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Yildiz et al, 2022). 중국 특수교사들은 보조공학 전문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전문능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송진, 정진자, 陆艳, 2022). 한국의 시각장애학교 교사들 역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과지도 시 보조공학기기 영역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정, 정진자, 2021).

따라서 시각장애학교에서의 보조공학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수용과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 & Fishbein, 2000)을 기초로 하여 제안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용자의 기술 사용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이론으로 (Davis,1989),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하는지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기술 사용에 대한 태도,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Şahin & Yildiz, 2024). 즉 기술수용모델은 인식된 유용

성과 인식된 사용 용이성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며, 이러한 태도는 행동 의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동 의도는 결국 실제 시스템 사용을 결정한다고 제시한다(Opoku et al., 2023). Davis(1989)가 개발한 기술수용 모델은 정보기술 수용의 핵심 변수를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을 제시하였으며,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이 태도와 행동 의도에, 행동 의도는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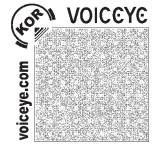
기술수용모델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사회적, 동기적 요인을 포함하여 TAM2(Venkatesh & Davis, 2000), TAM3(Venkatesh & Bala, 2008) 등의 확장된 기술수용이론 등으로 확장되며 교육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서는 Davis(1989)의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을 핵심 요소로 유지하면서 기술 수용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인들을 구체화하고 추가하였다.

특히 만족도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수용모델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Bhattacharjee, 2001), 기술수용모델의 구성요소는 연구 맥락이나 기술 환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King & H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선행 연구(Alsolami, 2022; Şahin 등, 2023; Venkatesh & Davis, 2000)를 기본으로 시각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보조공학 수용 및 채택 과정과 교사들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자, 인식된 유용성과 인식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 의도와 같은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기술 수용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Lynch, et al., 2024; Venkatesh & Morris, 2000),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시력정도(Edyburn & Smith, 2004; Kelly & Smith, 2011), 교사 연령 및 경력(Adugna, et al., 2024; Albalhareth et al., 2023; Alghamdi, 2022), 학력(Salemot, 2023; Venkatesh & Morris, 2000), 그리고 보조공학 사용 경험(Park & Ertmer, 2007)과 가르치는 학생의 학년 수준(Offei, 2021; Yeh, 2024)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보조공학 활용에 대한 지속적 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Şahin & Yıldız, 2024), 비교교육학적 측면에서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보조공학 지속적 사용 의도 연구를 통해 한국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보조공학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인기, 2021; 이아정, 정진자, 범효이,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과 인식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교사 연수 및 지원정책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성별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의 시력 정도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연령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학력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여섯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사용 경험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일곱째,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가 지도하는 학년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우간다의 중앙, 동부, 서부 및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 총 210명을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구 분		n	%
성별	남	122	58.1
	여	88	41.9
학생의 시력 정도	맹	46	21.9
	저시력	164	78.1
연령	20대	22	10.5
	30대	58	27.6
	40대	44	21.0
	50대이상	86	41.0
학력	전문대졸	22	10.5
	대졸	163	77.6
	대학원	25	11.9
교직 경력	1년이상~5년미만	40	19.0
	5년이상~10년미만	128	61.0
	10년이상~15년미만	34	16.2
	15년이상	8	3.8
보조공학 사용 경험	유	148	70.5
	무	62	29.5
학년 수준	저학년(1~4학년)	126	60.0
	고학년(5~7학년)	84	40.0
계		210	100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참여자 중 남성 교사는 122명(58.1%), 여성 교사는 88명(41.9%)이었다. 교사가 지도한 학생의 시력 정도와 관련하여, 맹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46명(21.9%), 저시력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164명(78.1%)이었다.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 교사가 86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 58명(27.6%), 40대 44명(21.0%), 20대 22명(10.5%) 순이었다. 학력 수준을 보면, 대졸 교사가 163명(7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졸업자 25명(11.9%), 전문대 졸업자 22명(10.5%) 순이었다. 교직 경력 측면에서는, 5년이상~10년미만 교사가 128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1년이상~5년미만 교사가 40명(19.0%), 10년이상~15년미만 교사가 34명(16.2%), 1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8명(3.8%)이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148명(70.5%)이었으며,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62명(29.5%)이었다. 학년 분포를 보면, 저학년 담당 교사가 126명(60.0%), 고학년 담당 교사는 84명(40.0%)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질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Venkatesh와 Davis(2000), Şahin 등(2023), Alsolami(2022)가 사용한 기술수용모델을 시각장애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보조공학 사용 의도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수용모델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사용 의도와 관련이 있는 만족도를 추가하여,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로 구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교사들이 실제로 보조공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문항 내용을 도출하였다. 둘째, 1차 질문지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특수교육 전문가와 협의하였다. 셋째, 도구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5년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 3명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도구의 구성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구성 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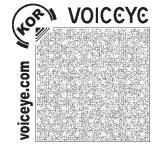
및 수렴 타당도를 통해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구성 요인이 이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최종 측정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인식된 유용성 8문항, 인식된 사용 용이성 5문항, 지속적 사용 의도 7문항, 만족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 내용 및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선행연구	문항수	Cronbach's α
인식된 유용성	개인이 특정 시스템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얼마나 향상시킨다고 믿는지와 그 시스템을 얼마나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함.	Alsolami (2022), Venkatesh & Davis (2000), Şahin et al.(2023)	8	.980
인식된 사용 용이성	사람들이 특정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때 느끼는 사용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 정도를 의미함.		5	.984
만족도	사용자가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함.		7	.960
지속적 사용 의도	사용자가 보조공학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과 동기를 의미함.		7	.964
계			27	.972

보조공학의 인식된 유용성(8문항, Cronbach's $\alpha = .980$)은 보조공학이 수업이나 일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보조공학의 인식된 사용 용이성(5문항, Cronbach's $\alpha = .984$)은 보조공학기기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쉽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한다. 보조공학 만족도(7문항, Cronbach's $\alpha = .960$)는 보조공학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며, 보조공학 지속적 사용 의도(7문항, Cronbach's $\alpha = .964$)는 참가자가 향후에도 보조공학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전체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2$ 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그리고 지속적 사용 의도에 관한 질문지에 관한 수렴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

(N=210)

하위영역	평균 분산 추출량 AVE	복합 신뢰도 CR	수렴 타당도	권장 기준
인식된 유용성	.743	.891	지지됨	AVE>0.5 CR>0.7
인식된 사용 용이성	.768	.904	지지됨	
만족도	.612	.829	지지됨	
지속적 사용 의도	.692	.867	지지됨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식된 유용성(AVE= 0.743, CR= 0.891), 인식된 사용 용이성(AVE= 0.768, CR= 0.904), 사용자 만족도(AVE= 0.612, CR= 0.829), 지속적 사용 의도(AVE= 0.692, CR= 0.867)는 각각 AVE > 0.5 및 CR > 0.7이라는 권장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각 측정 항목들이 해당 구성 개념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으며, 내적 일관성 또한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Fornell & Larcker, 1981).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교사를 통해 타당도 검증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50명의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신뢰성을 평가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5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에게 전자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총 210명의 응답자료가 수집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v.27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라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분석을 위해 성별, 학생의 시력 정도, 보조공학 사용 경험 유무, 지도하는 학생의 학년 수준에 따른 차이는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사의 연령, 학력,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사후검정은 Tukey의 유의차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교사의 성별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성별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N= 210)

요인	성별	n	M	SD	t
인식된 유용성	남	122	3.56	1.11	-5.50***
	여	88	4.28	.60	
인식된 사용 용이성	남	122	3.12	.94	-13.9***
	여	88	4.58	.29	
만족도	남	122	3.75	.47	.009
	여	88	3.75	.42	
지속적 사용 의도	남	122	3.18	1.00	-14.3***
	여	88	4.72	.07	

***p< .001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인식된 유용성($t=-5.50$, $p< .001$), 인식된 사용 용이성($t=-13.9$, $p< .001$), 그리고 지속적 사용 의도($t=-14.3$, $p<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 변수 모두에서 여성 교



사가 남성 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보조공학 사용 만족도($t=0.009$, $p>.993$)에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교사가 가르친 학생의 시력 정도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가 가르친 학생의 시력 정도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학생 시력 정도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N= 210)

요인	학생의 시력 정도	n	M	SD	t
인식된 유용성	맹	46	3.10	.97	-5.12***
	저시력	164	4.01	1.02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맹	46	3.05	.93	-5.40***
	저시력	164	3.92	.92	
만족도	맹	46	3.20	.95	-3.89***
	저시력	164	3.90	1.05	
지속적 사용 의도	맹	46	3.07	.98	-5.64***
	저시력	164	4.03	1.01	

*** $p<.001$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시력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인식된 유용성($t=-5.12$, $p<.001$), 인식된 사용 용이성($t=-5.40$, $p<.001$), 보조공학 사용 만족도($t=-3.89$, $p<.001$) 그리고 보조공학 지속적 사용 의도($t=-5.64$, $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저시력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맹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보다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 교사 연령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연령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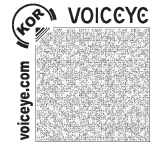
<표 6> 교사 연령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N= 210)

요인	연령	n	M	SD	F	p	사후분석
인식된 유용성	20대	22	3.08	1.64	13.04***	.000	a < b, c < d
	30대	58	3.61	1.13			
	40대	44	3.74	.56			
	50대이상	86	4.29	.60			
	전체	210	3.86	.99			
인식된 사용 용이성	20대	22	1.49	.46	587.5***	.000	a < b < c < d
	30대	58	3.10	.45			
	40대	44	4.02	.06			
	50대이상	86	4.59	.28			
	전체	210	3.73	1.03			
만족도	20대	22	2.91	.24	63.6***	.000	a < b, d < c
	30대	58	3.82	.30			
	40대	44	4.09	.06			
	50대이상	86	3.74	.42			
	전체	210	3.75	.45			
지속적 사용 의도	20대	22	1.42	.43	711.6***	.000	a < b < c < d
	30대	58	3.19	.53			
	40대	44	4.10	.16			
	50대이상	86	4.72	.06			
	전체	210	3.82	1.08			

***p < .001

주: a: 20대, b: 30대 c: 40대, d: 50대이상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식된 유용성(F=13.04, p < .001)에서는 20대가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50대이상은 20대, 30대와 40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인식된 사용 용이성(F=587.5, p < .001)과 지속적 사용 의도(F=711.6, p < .001)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고연령층 교사들이 인식된 사용 용이성과 지속적 사용 의도가 더 높았다. 만족도(F=63.6, p < .001)에서는 20대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40대가 30대와 50대이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 교사 학력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학력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교사 학력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N= 210)

요인	연령	n	M	SD	F	p	사후분석
인식된 유용성	전문학사	22	4.06	.59	9.38***	.000	a, b < c
	학사	163	3.72	1.05			
	석사/박사	25	4.59	.46			
	합계	210	3.86	.99			
인식된 사용 용이성	전문학사	22	4.40	.17	33.4***	.000	b < a, c
	학사	163	3.46	1.02			
	석사/박사	25	4.89	.10			
	합계	210	3.73	1.03			
만족도	전문학사	22	4.02	.05	33.2***	.000	c < a, b
	학사	163	3.80	.43			
	석사/박사	25	3.17	.30			
	합계	210	3.75	.45			
지속적 사용 의도	전문학사	22	4.72	.07	26.6***	.000	b < a, c
	학사	163	3.56	1.09			
	석사/박사	25	4.75	.00			
	합계	210	3.82	1.08			

***p < .001

주: a: 전문학사, b: 학사, c: 석사/박사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학력 수준(전문학사, 학사, 석/박사)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등 네 가지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사의 학력에 따른 차이 사후분석 결과, 인식된 유용성(F=9.38, p < .001)에서는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가 전문학사와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보다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인식된 사용 용이성(F=33.4, p < .001), 지속적 사용 의도(F=26.6, p < .001)에서는 전문학사와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가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보다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F=33.2, p < .001)에서는 전문학사와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가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보다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5.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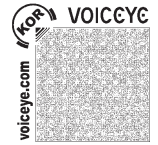
(N= 210)

요인	연령	n	M	SD	F	p	사후분석
인식된 유용성	1년이상~5년미만	40	3.07	1.42	12.9***	.000	a<b, c, d
	5년이상~10년미만	128	4.01	.80			
	10년이상~15년미만	34	4.05	.60			
	15년이상	8	4.56	.46			
	합계	210	3.86	.99			
인식된 사용 용이성	1년이상~5년미만	40	2.01	.72	156.6***	.000	a<b, d<c
	5년이상~10년미만	128	4.03	.60			
	10년이상~15년미만	34	4.35	.17			
	15년이상	8	5.00	.00			
	합계	210	3.73	1.03			
만족도	1년이상~5년미만	40	3.14	.32	133.9***	.000	d<a<b, c
	5년이상~10년미만	128	3.91	.28			
	10년이상~15년미만	34	4.05	.07			
	115년이상	8	2.80	.10			
	합계	210	3.75	.45			
지속적 사용 의도	1년이상~5년미만	40	1.91	.69	241.4***	.000	a<b<c, d
	5년이상~10년미만	128	4.12	.52			
	10년이상~15년미만	34	4.72	.08			
	15년이상	8	4.75	.00			
	합계	210	3.82	1.08			

***p< .001

주: 1년이상~5년미만, b: 5년이상~10년미만, c: 10년이상~15년미만, d: 15년이상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등 네 가지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인식된 유용성(F=12.9, p< .001)은 교직 경력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과 15년이상 교사들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인식된 사용 용이성(F=156.6, p< .001)은 교직경력



10년이상~1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과 15년이상 그리고 1년이상~5년미만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F=133.9, p < .001$)에서는 5년이상~10년미만과 10년이상~15년미만, 1년이상~5년미만 그리고 15년이상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속적 사용 의도($F=241.4, p < .001$)에서는 10년이상~15년미만과 15년이상, 5년이상~10년미만 그리고 1년이상~5년미만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식된 유용성은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교사가, 인식된 사용 용이성은 15년 이상의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5년이상~10년미만과 10년이상~15년미만 교사가, 지속적 사용 의도는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6. 교사의 보조공학 사용 경험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 사용 경험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보조공학 사용 경험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N= 210)

요인	보조공학 사용 경험	n	M	SD	t
인식된 유용성	예	102	3.63	1.0	-6.98***
	아니오	108	4.41	.55	
인식된 사용 용이성	예	102	3.31	.95	-17.55***
	아니오	108	4.74	.17	
만족도	예	102	3.80	.44	2.99*
	아니오	108	3.60	.43	
지속적 사용 의도	예	102	3.45	1.09	-14.1**
	아니오	108	4.72	.79	

* $p < .05$, ** $p < .01$, *** $p < .001$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조공학 경험 유무에 따라 주요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식된 유용성은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의 인식 수준이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98, p < .001$). 반면, 인식된 사용 용이성은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가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t=-17.55$,

$p < .001$). 만족도는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있는 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다소 높았다 ($t=2.99$, $p < .05$). 지속적 사용 의도 역시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가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14.1$, $p < .01$). 즉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는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가, 만족도에서는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7. 학생의 학년 수준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가 가르친 학생의 학년 수준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생의 학년 수준에 따른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차이

(N= 210)

요인	학년 수준	n	M	SD	t
인식된 유용성	저학년	126	3.57	1.10	-5.53***
	고학년	84	4.30	.60	
인식된 사용 용이성	저학년	126	3.16	.95	-13.4***
	고학년	84	4.60	.28	
만족도	저학년	126	3.76	.47	.495
	고학년	84	3.73	.43	
지속적 사용 의도	저학년	126	3.22	1.02	-13.4***
	고학년	84	4.72	.06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년 수준(저학년 교사 vs. 고학년 교사)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학년 담당교사들은 저학년 담당교사들에 비해 인식된 유용성($t=-5.53$, $p < .001$), 인식된 사용 용이성 인식($t=-13.4$, $p < .001$), 지속적 사용 의도($t=-13.4$, $p < .001$)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학년 교사들이 보조공학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조공학 사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495$, $p > .621$).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간다 중앙, 동부,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시각장애학교에서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초등교사 총 210명을 선정하여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간다 시각장애학교 초등교사들중 여성 교사들이 남성 교사들에 비해 보조공학을 보다 유용하고 접근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도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Venkatesh와 Morris(2000)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사용 용이성, 남성은 유용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간다 여성 교사들이 두 요소 모두에서 남성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이는 우간다 교육 환경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우간다의 여성 교사들은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돌봄 제공자이자 조력자로서의 다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기술을 단순한 교수 도구가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확장된 돌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훈련 기회의 차이, 기술적 자신감, 제도적 지원의 격차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Lynch 등(2024)은 남성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더 큰 심리적 장벽이나 복잡성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우간다처럼 연수 기회와 기술 접근이 제한된 저자원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교사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적응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과 행동 의도에도 불구하고, 남녀 교사 간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에 대한 초기 인식이나 수용 의도가 실제 경험이나 장기적인 만족도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정책은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일률적인 기술 연수에서 벗어나 교사의 성별, 경력, 인식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보조공학기기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시력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등 네 가지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저시력 학생을 지도한 교사들이 맹학생을 지도한 교사들보다 모든 측정 요인에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교사들이 보조공학기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교육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저시력 학생용 보조공학기기는 대체로 화면 확대기, 고대비 소프트웨어, 큰 글자 교재 등 비교적 단순한 보조공학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교실 환경에 통합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해당 기기를 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높은 사용 용이성 및 유용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Albalhareth et al., 2023). 반면, 맹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점자 디스플레이,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촉각 지도 제작 도구 등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며, 사용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 훈련, 반복적인 연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Edyburn과 Smith(2004)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기술이 복잡하거나 교사와 학습자의 적합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경우, 교사들이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Kelly와 Smith(2011)는 맹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교사에게 맞춤형 훈련과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조공학은 그 자체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이나, 교사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맹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심화된 전문 연수, 지속적인 멘토링, 실제 사례 기반의 실습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간다 학교에 보급된 보조공학기기가 현지 언어, 문화,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은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명확한 디지털 및 교수적 격차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젊은 교사들이 인식된 사용 용이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점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가 교육기술에 자연스럽게 적응한다는 일반적 가정에도 도전하는 결과이다. 시각장애학생용 보조공학기기는 특수한 교육적 지식과 맥락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인 디지털 친숙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Adugna 등(2024)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젊은 교사들이 보조공학 관련 충분한 훈련과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자신감 부족과 기술 통합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식된 사용 용이성과 지속적 사용 의도 측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 사용 의도

가 강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대이상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에 비해 뚜렷히 높은 사용 의도를 나타내어, 경험과 친숙도가 사용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Alghamdi(2022) 또한 경력 있는 교사들이 보조공학을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교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족도의 경우 다소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40대 중간 연령대 교사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고한 반면, 가장 젊은 그룹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50대이상 고연령 교사들의 만족도는 40대 연령 교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한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보다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Albalhareth et al., 2023). 이처럼 만족도는 단순히 유용성 인식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의 가용성, 지속적인 기술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디지털 및 교수적 격차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특히 초기 경력 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lghamdi (2022)는 젊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자신감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멘토링 및 실습 중심 연수를 권장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보조공학 활용 능력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동료 지원, 실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격차 해소와 우간다 초등교육 내 지속 가능한 보조공학 통합 문화 조성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연령 관련 차이는 교육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사 연령과 경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젊은 교사들이 보조공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된 유용성에서는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가, 인식된 사용 용이성과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는 전문학사와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전문학사와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 수준이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Salemot, 2023). 즉 학력이 높을수록 기술의 사용 가능성과 실천 의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유용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학력 교사들이 보조공학기기의 기능성과 효과성을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후 분석을 통해 학력 집단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석사/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만족도에서는 전문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용적 기대 수준이나 과업 중심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들은 대부분의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보조공학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Venkatesh & Davis, 2000). 우간다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대상의 맞춤형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 제고, 기술적 역량 강화, 긍정적 태도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Kisanga & Kisanga, 2020).

결론적으로, 교사의 학력 수준과 보조공학 인식 차이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학력일수록 사용 용이성 인식과 사용 의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기대 수준이나 교육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 수준의 교사들이 보조공학에 접근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Asongu et al., 2019). 기술 보급 및 역량 강화 전략은 교사의 학력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경력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된 유용성은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인식된 사용 용이성은 15년이상 교사가 가장 높고, 만족도는 5년이상~10년미만과 10년이상~15년미만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적 사용 의도는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 태도가 강화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Alghamdi, 2022)와 부합한다.

즉,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보조공학기기의 실제 교육적 효용을 더 잘 인식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Jullu와 Amos(2024)는 시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일수록 보조공학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더 잘 인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경력 1년이상~5년미만의 교사들은 모든 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보조공학 통합에 대한 경험 부족 또는 초기 직무 연수의 부재와 관련될 수 있다. 우간다의 경우, 많은 신입 교사들이 충분한 역량강화 지원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

어, 체계적인 보조공학 연수와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경력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의 교사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현실적인 기대 수준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5년이상의 고경력 교사들은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 연수의 구식화, 기술 변화에 대한 부담감, 또는 제도적 피로감 등의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Aftab et al., 2023). 이와 같이 교직 경력은 보조공학 수용의 전반적인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인식된 유용성 인식,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 만족도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11년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은 보다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Park & Ertmer, 2007).

따라서 경력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문성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신입 교사를 위한 집중적 초기 연수 및 멘토링 체계, 중견 교사를 위한 사례 기반 실천 연수, 고경력 교사를 위한 재교육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재참여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Okolo & Diedrich, 2014). 이러한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연수 체계는 보조공학 활용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을 촉진하며,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 교육 정책(UNESCO, 2020)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보조공학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는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지속적 사용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술수용모델의 외부요인 즉 주관적 규범, 사회적 영향, 업무관련성(Venkatesh & Davis, 2000), 자기효능감(Venkatesh & Bala, 2008) 또는 교사 연수와 같은 촉진 조건(Venkatesh et al., 2003) 등이 시각장애 보조공학 사용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이 사회적 영향이나 연수를 통해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사용법을 배우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여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사용 의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부요인들의 작용 변인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만족도에서는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와 Ertmer(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들은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이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사용해 본 경험은 교사들이 기기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조공학 사용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지속적인 사용 의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은 불안감과 낮은 기술 숙련도로 인해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Lin et al., 202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교사들이 실제 보조공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연수 및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보조공학의 효과적인 통합과 지속적 사용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Okolo & Diedrich, 2014).

일곱째,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년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보조공학 지속적 사용 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학년(4~6학년) 담당교사들이 저학년(1~3학년) 담당교사들에 비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보조공학을 수업에 통합하려는 수용도와 준비도가 더 높음을 나타냈다. 반면, 보조공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고학년 담당교사들의 높은 수용도는 학습과정의 복잡성 증가, 기술 사용 노출 빈도 증가, 그리고 개별화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Yeh, 2024). 이들 교사는 다양한 학습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더 자주 만나면서 보조공학 도구의 필요성과 실용적 가치를 더욱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저학년 담당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도는 보조공학 관련 연수 기회 부족과 초기 단계에서의 보조공학 노출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Offei, 2021). 이러한 격차는 저학년 담당교사들도 기초 단계부터 보조공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비교적 높은 지속적 사용 의도 점수는 교사들이 보조공학의 교육적 이점을 인식할 경우,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도 교사의 동기부여와 인지된 이점이 교육 기술의 지속적 사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Asongu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보조공학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사 연수, 제도적 지원,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조공학의 교육적 유의미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훈련 및 자원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특수교육 맥락에서 보조공학의 지속 가능한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며, 특정 지역 210명의 교사만 포함되어 전국적 교육 자원 및 문화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더 큰 표본을 포함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유형과 활용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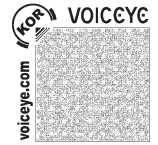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 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만을 분석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조공학 수용 및 채택 과정과 교사들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과 요인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인해 시간에 따른 인식 변화와 보조공학 사용 지속 여부를 추적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연수, 기술 접근성 변화에 따른 교사 태도와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보조공학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였다. 보조공학기기에 따른 각각의 기술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조공학 활용실태와 점자 기기, 스크린 리더, 확대 기기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 종류와 활용도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인기. (2020).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기관 특성 비교 - 정교사(2급) 자격증과 1종 면허장을 중심으로.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020(10)*, 437-441.
- 권선정, 정진자. (2021). 확대핵심교육과정을 적용한 시각장애학교 교사의 교육경험 분석: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7(2), 1-30.
- 송건, 정진자, 陆艳. (2022). 중국 특수교사의 보조공학 전문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2), 193-225. <http://dx.doi.org/10.20971/kcpmd.2022.65.2.193>
- 이아정, 정진자, 범효이. (2024).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 *장애의 재해석*, 5(1), 59-84. <http://dx.doi.org/10.23252/kfpd.2024.5.1.59>
- Abdianwall, M. H., & Doğan, B. G. (2018). Prevalence of visual impairment and related factors in Nangarhar Province of Afghanistan: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Ophthalmology*, 11(12), 1968-1977. <https://doi.org/10.18240/ijo.2018.12.16>.
- Aduugna, M., Ghahari, S., Merkle, S., & Rentz, K. (2024).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Eastern Africa face significant barriers to access education: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8(10), 2281-2297. <https://doi.org/10.1080/13603116.2022.2092656>
- Aftab, M. J., Naseem, H. A., & Alam, I. (2023). Perceptions of HI Stud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Hearing Assistive Devices. *Al-Mahdi Research Journal (MRJ)*, 5(2), 544-559.
- Albalhareth, A. Hamad, & Saleem, S. S. (2023). Teacher satisfaction with the availability of assistive technologies for students with sensory impairments in inclusive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in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11(5), 1204-1218. <https://doi.org/10.46328/ijemst.3541>
- Alghamdi, R. (2022). Teachers' perceptions of assistive technology us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gital learning in teacher eDucation*, 38(2), 56-70. <https://doi.org/10.1080/21532974.2021.1998812>
- Alsolami, A. S. (2022). Teachers of special education and assistive technology: Teachers' perceptions of knowledge, competenc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Sage Open*, 12(1), 21582440221079900. <https://doi.org/10.1177/1582440221079900>



- Asongu, S. A., Orim, S. M. I., & Nting, R. T. (2019). Inequali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clusive education in sub-Saharan Afric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46, 380-389. <https://doi.org/10.1016/j.techfore.2019.06.006>
- Ajzen, I., & Fishbein, M. (2000). Attitude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asoned and automatic process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1(1), 1-33. <https://doi.org/10.1080/14792779943000116>
- Bhattacharjee, 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25(3), 351-370. <https://doi.org/10.2307/3250921>
- Brandt, Å., Hansen, E. M., & Christensen, J. R. (2020). The effect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delivery process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positive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15(5), 590-603. <https://doi.org/10.1080/17483107.2019.1682067>
-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https://doi.org/10.2307/249008>
- Edyburn, D. L., & Smith, R. O. (2004). Creating an Assistive Technology Outcomes Measurement System: Validating the Components. *Assistive Technology Outcomes and Benefits*, 1(1), 8-15.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2025). *Education in Uganda. 2025*. 5. 12. 인출 <https://www.globalpartnership.org/node/document/download?file=document/file/2024-12-gpe-results-framework-uganda.pdf>
- Jullu, G. T., & Amos, O. (2024). Teachers' perception of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public secondary schools in Morogoro Municipal,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3), 725-743. <https://doi.org/10.54922/IJEHSS.2024.0741>
- Kelly, S. M., & Smith, D. W. (2011). The impact of assistive technology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 synthesis of the researc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5(2), 73-83. <https://doi.org/10.1177/0145482X1110500205>

- King, W. R., & He, J. (2006). A meta-analysi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43(6), 740-755. <https://doi.org/10.1016/j.im.2006.05.003>
- Kisanga, D. H., & Kisanga, S. E. (2020). Access to assistive technology among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anzania: Challenges and coping mechanisms. *University of Dar Es Salaam Library Journal*, 15(2), 137-151.
- KOICA. (2021). KOICA 실로암 인터내셔널 시각장애학생 지원 홍보. 2025. 6. 5. 인출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8238?>
- Lin, X. F., Chen, L., Chan, K. K., Peng, S., Chen, X., Xie, S., Liu, J., & Hu, Q. (2022).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ing sust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A design frame perspective. *Sustainability*, 14(13), 7811. <https://doi.org/10.3390/su14137811>
- Lynch, P., Singal, N., & Francis, G. A. (2024). Educational technology for learners with disabilities in primary school settings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ducational Review*, 76(2), 405-431. <https://doi.org/10.1080/00131911.2022.2035685>
- Merrie, Y. A., Tegegne, M. M., Munaw, M. B., & Alemu, H. W. (2019).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visual impairment among school-age children in Bahir Dar City, Northwest Ethiopia. *Clinical Optometry*, 11, 135-143. <https://doi.org/10.2147/OPTO.S213047>
- Monden, K. R., Charlifue, S., Philippus, A., Kilbane, M., Muston-Firsch, E., MacIntyre, B., Welch, A., Baldessari, J., Coker, J., & Morse, L. R. (2024). Exploring perspectives on assistive technology use: Barriers, facilitators, and acces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Disability &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19(4), 1676-1686. <https://doi.org/10.1080/17483107.2023.2227235>
- Musenyente, E., Han, M. L., & Knigge, M. (2022).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three districts of Uganda. *African Journal of Disability*, 11(1), 908. https://hdl.handle.net/10520/ejc-ajdis_v11_i1_a908
- Offei, R. (2021). *Access to e-learning resources among pre-service teachers with visual impairment in colleges of education, Ghan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Education, Winneba.

- Okech, J. B., Yuwono, I., & Abdu, W. J. (2021).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pract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other special needs in Uganda. *Journal of Education and e-Learning Research*, 8(1), 97-102. <https://doi.org/10.20448/journal.509.2021.81.97.102>
- Okolo, C. M., & Diedrich, J. (2014). Twenty-five years later: How is technology used in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sults of a Statewide Stud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29(1), 1-20. <https://doi.org/10.1177/016264341402900101>
- Omolo, R. O., Muyambi, V., Ogwal, J. O., Okello, S., Katamba, G., Mudondo, H., Bagenda, C. N., Namayanja, R., Kwaga, T., Agaba, D. C., & Migisha, R.(2024). Prevalen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visual impair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Mbarara city, Southwestern Uganda: a cross-sectional study. *Discover Medicine*, 1(59), 1-10. <https://doi.org/10.1007/s44337-024-00078-8>
- Opoku, M. P., Elhoweris, H., Alhosani, N., Mustafa, A., Alkhateri, T., & Nketsia, W. (2023).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traine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integrate assistive technology into teach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Heliyon*, 9(12), e22736. <https://doi.org/10.1016/j.heliyon.2023.e22736>
- Oysters and Pearls. (2025). *Technology*. 2025. 5. 10 인출 <https://www.oystersandpearls.org/visually-impaired-university-student-to-teach-computer-at-op-uganda/>
- Park, S. H., & Ertmer, P. A. (2007). Impact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on teachers' beliefs regarding technology use.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40(2), 247-267. <https://doi.org/10.1080/15391523.2007.10782507>
- Şahin, F., & Yıldız, G. (2024). Understanding mobile learning accepta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n exploration through the len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40(4), 1838-1851. <https://doi.org/10.1111/jcal.12986>
- Şahin, F., Kızılaslan, A., & Şimşek, Ö. (2023).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assistive technology by teacher candidates in the context of inclusive education and special needs students.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9(10), 12263-12288. <https://doi.org/10.1007/s10639-023-12383-3>
- Salemot, T. (2023).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from the individual education rights perspectives: In Ethiopia*

- primary schools, in the case of Atse Tewodros Primary School Addis Ababa.* Doctoral dissertation, St. Mary's University.
- Saleem, S., Sajjad, S., & Rauf, M. B. (2019). Training facilities provided by special education schools to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and teachers to use assistive technology. *Journal of Econom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8), 91-100. <https://doi.org/10.7176/JESD>
- UNESCO. (2020).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0: Inclusion and education-all means all.* UN.
- UNICEF Uganda. (2024). *Remarks by the UNICEF Representative to Uganda on the Launch of Audiovisual Version of the Budget.* Retrieved from UNICEF Uganda. 2025. 5. 13. 인출 <https://www.unicef.org/uganda/stories/remarks-unicef-representative-uganda-launch-audiovisual-version-budget>
- Venkatesh, V., & Davis, F. D. (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186-204. <https://doi.org/10.1287/mnsc.46.2.186.11926>
- Venkatesh, V., & Morris, M. G. (2000). Why don't men ever stop to ask for directions? Gender, social influence, and their role in technology acceptance and usage behavior. *MIS quarterly*, 24(1), 115-139. <https://doi.org/10.2307/3250981>
-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 Davis, F. D.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478. <https://doi.org/10.2307/30036540>
- Venkatesh, V., & Bala, H. (2008).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 and a research agenda on interventions. *Decision sciences*, 39(2), 273-315. <https://doi.org/10.1111/j.1540-5915.2008.00192.x>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Global prevalence of vitamin A deficiency in populations at risk 1995-2005: WHO global database on vitamin A deficiency.* 2025. 6. 10 인출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4110/9789241598019_eng.pdf
- Yeh, H. C. (2024). Revolutionizing language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27(3), 335-353. [https://doi.org/10.30191/ETS.202407_27\(3\).TP01](https://doi.org/10.30191/ETS.202407_27(3).TP01)

Abstract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Assistive Technology among Uganda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Tuliwangula Peter**, JinJa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assistive technology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Uganda,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primary school teachers at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Uganda, se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findings regarding the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are as follows: Specifically, female teachers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assistive technology. Teachers who teach students with low vision and older teachers exhibit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and

* This paper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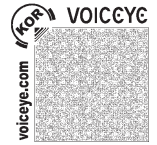
** Ph.D. Graduate,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chjj@woosuk.ac.kr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echnology. In terms of differences by educational background, teachers with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had higher levels of perceived usefulness, teachers with an associate degree and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demonstrated higher perceived ease of use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echnology, and teachers with an associate or bachelor's degree showed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In terms of teaching experience, teachers with 5 to less than 10 years of experience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satisfaction, teachers with 10 to less than 15 years of experience showed higher levels of intention to continue using, and teachers with over 15 years of experience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ease of use. In terms of teacher experience with assistive technology, teachers with prior experience using assistive technology reported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hereas teachers without experience using assistive technology report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assistive technology. Finally, in terms of school grades, teachers who teach upper-grade students had higher perception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echnology, than those who teach lower-grade students.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raining plans and policies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n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utilizing assistive technology.

Keywords : Teachers of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Assistive Technology, Perception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Intention to Continue Using

논문 투고 : 2025.10.15.	논문 심사 : 2025.12.15.	게재 확정 : 2025.12.18.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137 - 165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 및 적용 경험

: ICT 개발자와 사용자의 경험(관점)을 중심으로*

김보미**, 문영임***, 송채은****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 기능 개선을 위해 개발된 RAS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tempo'를 실제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 재활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현장에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경험과 인식을 질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 재활을 위해 개발된 RAS 기반 모바일 앱 "Stempo"의 개발자, 앱 사용자인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복지 및 재활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상위범주는 개발자와 사용자에게서 각 4개, 하위범주는 개발자에게서 10개, 사용자에게서 11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두 집단 모두 장애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복지기술 개발의 사회적 가치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발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의 장애 이해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강화, 장애 유형별 특성 기초교육, 장애인과의 접촉 및 소통을 통한 당사자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이 필요하며, 사용자에게는 기술 리터러시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기술 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복지기술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과 복지기술 품질 관리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기술, 앱 개발, 리듬청각자극, 개발자 경험, 사용자 경험

* 한국장애인재단의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패턴 개선을 위한 RAS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효
과성 검증 연구' 결과의 일부를 재구성함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원

*** 한국장애인재단 책임연구원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원

I. 서론

최근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을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보조 수단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특히 온라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접근성과 기술 활용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 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역량의 차이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기술(ICT)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01). 특히 이러한 격차는 신체적 손상과 기능 제약으로 인해 디지털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집단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나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은 디지털 활용에 있어 이중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디지털 기술이 그들의 제한된 기능을 보완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층, 이주민, 장애인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소외계층은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정보 접근 및 행정 처리,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 대상 연구는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변화를 지원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김미연, 서동조, 변종봉, 강종관, 2015; 임정원, 전병혜, 길혜민, 박영란, 2020; 임정원, 최종혁, 김수완, 2021), 장애인 분야 연구는 신체장애와 감각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보조공학 및 ICT 활용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홍기형, 이희연, 2017; 홍희수, 구유리, 2022).

한편 뇌병변장애인은 운동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인지·언어·감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복합적 제약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고령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장애 발생 시기와 원인, 증상의 개별적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조경재, 2024). 특히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뇌성마비는 뇌 발달 과정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 및 자세 조절에 지속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¹⁾이다. 그중에서도 근육 경직으로 인한 보행 장애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독립적 이동과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핵심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뇌성마비 장애인이 양측 하지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리듬 청각 자극(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 기법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 재활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RAS는 음악의 리듬적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 패턴을 조절하는 신경학적 음악치료 기법으로, 청각-운동 동조화(auditory-motor synchronization)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지연, 2020). 국내외 연구에서 보행 속도, 보폭, 좌우 대칭성, 보행 안정성 등의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Thaut, 2005; 오수진, 김수지, 조성래, 곽은미, 2010; 박혜지, 2015; 신윤겸, 조성래, 정현주, 김수지, 2015), 뇌신경계 손상 환자의 운동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물리치료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Magee, Clark, Tamplin, & Bradt, 2017; Thaut & Abiru,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이 전문 인력과 시간, 공간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충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이규범, 임재영, 김완호, 장순자, 김병식, 허안나, 고영미, 2004), RAS 기반 보행 치료 또한 국내 도입 이후 임상 현장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봇 및 가상현실(VR)을 비롯한 다양한 재활치료 기술들이 개발되어 치료 현장에 도입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의료기관 또는 복지시설 내부에서 실행되고 있어, 가정과 같은 일상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보행 재활치료 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Silva, Silva, Valenzuela, & Dias, 2021; Cortés-Pérez, Nieto-Escamez, Obrero-Gaitán, Martínez-Amat, & Achalandabaso-Ochoa, 2022). 특히 이러한 의료기관 및 복지관 등 외부환경에서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방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이동에 따른 지원 인력 동반, 치료비 등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Silva et al., 2021; ZDNet Korea, 2021).

한편, 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기술 개발자가 가진 기능 및 성능 중심의 관점과 실제 사용자의 필요도 및 기술 활용 수준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소라, 이영선, 2020; 김은하, 임정원, 2024). 이는 복지기술 개발이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1) 서울대학교병원(n.d.). 뇌성마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s://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605>.(2025. 11. 18. 인출)

야 함을 시사한다(임정원, 최종혁, 김수완, 2021; 김은하, 임정원, 한지혜, 2022; 김은하, 임정원, 2024).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과 같이 개별적 편차가 크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기술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 중심의 접근과 현장 실무자의 경험적 지식이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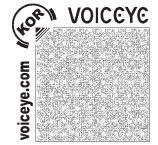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 기능 개선을 위해 개발된 RAS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tempo'를 실제 뇌병변장애인의 보행 재활치료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현장에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경험과 인식을 질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진이 초기 기술 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와 기능이 현장 실증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거나 재해석되는지, 앱을 직접 사용한 뇌성마비 장애인과 그들의 조력자인 실무자가 개발물을 사용하기 전 기대했던 바와 실제 사용 경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복지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가 인식하는 기술의 효용과 한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과 적용 시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참여 설계 개발체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경험, 인식, 기대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Merriam, 2002).

인터뷰 참여자는 'Stempo' 앱 개발 및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세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개발자 그룹으로 앱의 기획, 개발,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그룹은 앱 사용자 그룹으로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 2명과 장애복지 및 재활 실무자 5명으로 구성하였다.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 중 스마트폰 기본 조작이 가능하고 30분 이상의 면담 참여가 가능한 자로 표집하였다. 실무자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센터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_개발자

구분	성별	연령	전공	역할
개발자 A1	남	20대	컴퓨터공학	앱개발(팀장)
개발자 A2	남	20대	컴퓨터공학	앱개발
개발자 A3	여	20대	시각디자인	디자인

〈표 2〉 연구참여자의 특성_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

구분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정도	기존 RAS 치료 경험 여부
당사자 B1	여	40대	뇌성마비	경증	있음
당사자 B2	남	40대	뇌성마비	중증	있음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_실무자

구분	성별	연령	자격사항	주요 직무	직위
실무자 C1	여	40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총괄	팀장
실무자 C2	여	40대	미술치료사	프로그램 총괄	팀장
실무자 C3	여	30대	물리치료사	프로그램 진행	팀장
실무자 C4	여	30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진행 모니터링	사회복지사
실무자 C5	여	40대	음악치료사	프로그램 진행	음악치료사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행 재활을 위해 개발된 RAS 기반 모바일 앱 "Stempo"의 실제 적용에 대한 개발자 및 사용자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해당 앱을 개발한 개발자 및 실제 사용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면담 당일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개발자에게는 앱 개발과 관련 이전 경험, 개발 동기, 개발 준비 과정, 개발 과정, 개발 적용 과정, 개발 후 변화와 기대, 사용자에게는 앱 적용 관련 이전 경험, 참여 동기, 앱 적용 과정, 적용 후 변화와 기대 등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응답자의 답변을 토대

로 재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뇌성마비 장애인과의 면담에서는 앱 사용 과정에서의 구체적 경험, 기능적 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용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미들을 탐색하여 이를 해석하였다. 한편 실무자와의 면담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앱 도입 과정, 기존 치료방법과의 차별점, 전문가 관점에서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앱 개발자와의 면담에서는 개발 의도와 목표, 현장 피드백에 대한 대응,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각 집단별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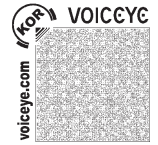
한편 수집된 자료는 Nvivo를 활용한 주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Braun & Clarke, 2006). 주제 분석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녹취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일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대주제와 소주제를 도출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해석하였다.

3.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앱 적용 과정과 인터뷰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윤리 승인을 획득한 후 실시되었으며(승인번호: P01-202504-01-056),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연구 착수에 앞서 모든 잠재적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필요성, 절차, 예상 소요 시간,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기대 가능한 이점, 그리고 자료의 저장·관리·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참여자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충분한 설명과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뇌성마비 장애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설명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복잡한 전문용어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여 설명하였으며, 참여자가 원할 시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신뢰하는 동반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연구 내용과 참여 동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모든 참여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 중단 또는 철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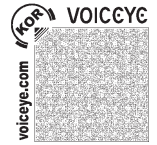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상위범주는 개발자와 사용자에게서 각 4개, 하위범주는 개발자에게서 10개, 사용자에게서 11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개발자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과정과 경험 구조표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참여 동기 및 기대	전문적 성장 도모	포드폴리오 구축 기회
		개발 앱의 실증에 대한 기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열망	사회 기여를 통한 의미 있는 개발 경험 추구
		뇌성마비 장애인의 낮은 기술 접근성 문제 인식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
개발 과정에 대한 경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뇌성마비 장애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비장애인 관점의 아이디어가 실제 도움으로 연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 구현의 현실적 제약
	소통과정에서의 간극 경험	
		사용자의 피드백에 대한 경험
사용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보람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에서 얻은 성취감 실제 적용 가능성 검증을 통한 개발 동기 강화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	
장애분야 앱개발의 한계 및 개선방안		
	장애분야 앱개발의 개선방안	장애분야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내적 동기 유발 필요 장애분야 기술 개발에 대한 외부 지원 필요

〈표 5〉 사용자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과정과 경험 구조표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참여 동기 및 기대	과거치료 경험 기반한 참여 동기	이전 RAS 치료의 긍정적 효과 경험
		리듬기반 보행 치료 효과성에 대한 신뢰
	치료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대안 모색	고비용·단기 집중 치료의 경제적 부담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 대상 치료 프로그램 미비 추가 치료 기회 확보의 구조적 어려움
치료 과정에 대한 경험	장애특성 반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일반 앱과의 차별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앱 개발 체감
		장애인을 위한 맞춤 개발에 대한 고마움
	사용을 통한 동기 및 참여 증진	치료 시간 외 개인적·자발적 앱 사용
		반복 수행을 통한 성취감 경험
		보행의지 및 “걷고 싶다”는 내적 동기 강화
	기술적 한계 경험	스마트폰 휴대로 인한 사용 불편감
		빈번한 오작동 및 측정 오류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인식	독립적 전문 치료 도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완성도
전문가 지도에 따른 보조 수단으로 활용 가능		
가정 내 자가 훈련 도구로서 잠재력 발견		
개발자의 피드백에 대한 경험	상호 이해의 간극	개발자의 장애 특성 이해 부족 체감
		사용자 피드백 전달의 어려움
	개선시도에 대한 양가적 입장	전문가 의견 반영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즉각적 수정 불가능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답답함
장애분야 앱개발의 한계 및 개선방안	앱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안	스마트폰 외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장치 등 다양한 기기 지원
		장애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하여 기능 개선
		음성 인식, 신체 기능 측정 관련 기술 고도화
	장애 분야 복지기술 개발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기술 관심도 및 정보 접근성 제약
		비장애인 중심 개발 구조의 고착화
		장애분야 사회적 관심 및 투자 부족으로 인해 개발 동력 미비
	당사자 참여형 개발 프로세스 도입	개발 초기부터 장애 당사자 및 전문가 필수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사회적 관심 필요



1. 참여 동기 및 기대

1) 개발자의 개발 참여 동기 및 기대

(1) 전문적 성장 도모

개발자들은 경력 개발과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이번 해커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자들은 기존에 참여해 본 해커톤 대회들과는 달리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개발자들은 개발물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개발물에 대한 적용 및 실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개발에 참여하였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포트폴리오 같은 용도로 (중략) 이렇게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어떤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참여를 좀 하게 됐어요.”(개발자 A2)

“단순히 해커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실습까지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를 실제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이어서 참가했습니다.” (개발자 A1)

(2)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열망

개발자들은 이전부터 개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개발물이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었으며, 뇌성마비 장애인을 사용자로 선정한 이유 또한 다른 장애에 비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앱이 적기 때문에 이번 개발을 통해 뇌성마비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문화를 만들고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이번 해커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개발자 A1)

“아무래도 다른 장애에 비해서 (뇌성마비 장애인의) 접근성이 좀 더 낮다 보니까 저희가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개발자 A2)

2) 사용자의 실증 참여 동기 및 기대

(1) 과거 치료 경험 기반 참여 동기

당사자들은 과거에 RAS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RAS 치료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박자를 맞추는 리듬기반 보행치료가 치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실증을 치료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참여하였다.

“이거 하기 전에 RAS를 개인적으로 여기서(복지관)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당사자 B1)

“전에 참여한 RAS가 박자 맞추는 운동인데 그때는 이런 게 있구나를 알았었고, 이번에 는 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박자를 맞추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사자 B2)

(2) 치료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대안 모색

실무자들은 기술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의 비용이 높고, 치료 기간이 짧아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아동보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치료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당사자들 또한 이번 치료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근데 요새는 좀 너무 고가예요. 예를 들면 언어 재활 프로그램이든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든...” (실무자 C2)

“병원에서는 대기제로 해가지고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실무자 C2)

“저희가 사실 치료가 성인의 치료가 많지 않다 보니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제공하려는 게) 있죠. (중략) 성인분들은 치료 기회가 저희가 많지 않거든요.” (실무자 C1)

2. 개발 과정 및 적용 경험

1) 개발 과정에 대한 개발자의 경험

(1) 장애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개발자들은 초기 개발물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 시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개발한 앱이 실제로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고 하였다.

“일단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개발자 A1)

(2) 앱 설계의 어려움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기존 앱이 적어 개발자들은 개발을 위해 참고할 만한 앱이 없어 초기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디자인 개발 전반을 맡은 ‘개발자 A3’는 보행 치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앱들을 찾아보았고, 그중 러닝 앱을 참고하여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개발자들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핸드폰을 들고 앱을 작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뇌성마비 장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보조기구를 추가로 구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핸드폰에서만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보행측정의 정확성이 낮아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일단 그 서비스가 흔한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참고하기는 쉽지 않았어서 오히려 약간 러닝 앱 같은 거를 조금 보기는 했어요.” (개발자 A3)

“아무래도 저희가 뇌성마비 장애인 분들이 쓰신다면은 보조적인 기구를 구매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략) 들고 보행하시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이란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용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능 구현을 했지만 뭔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발자 A1)

세부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인 앱 디자인은 기본적인 가이드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상 해당 가이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앱 서비스를 하다 보편은 많이 쓰는 아이콘 크기나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처럼 이제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로봇처럼 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걸 되게 예외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가이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헛갈렸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떻게 해야 손가락 움직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기능에 제일 짧게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 A3)

2) 치료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

(1) 장애특성 반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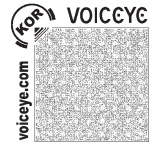
당사자들은 기존 운동 관련 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나,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이번 앱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어 기존의 앱들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앱을 개발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전에 이 어플 말고도 거의 헬스 어플, 어플이나 헬스 어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 저희 몸에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만들어 주시는 거를 되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당사자 B1)

“저희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주신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당사자 B1)

(2) 사용을 통한 동기 및 참여 증진

당사자들은 치료 시간 외 일상생활 중에도 자발적으로 앱을 활용하고 있었다. 반복적으로 앱을 사용하면서 쌓인 기록을 보며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가 있는 게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그 파트에도 맞추는 거, 한 번 해보니까 그 파트에도 리듬에 맞추는 거니까 기록이 좀 좋은, 기록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조금 떨어져도 이제 몇 번 좀 이렇게 다시 좋게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좋은..(중략) 집에서도 들고 산책 나가기도 했어요.” (당사자 B2)

실무자들 또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앱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좀 더 걷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당사자도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들을 통해 당사자들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과제를 해내며 성취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앱을 활용하게 되었다.

“동기유발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중략) 그거에 맞춰서 걷다 보면 내가 이거 잘 맞췄어, 했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성취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할 때는 좀 좋은 것 같고...” (실무자 C2)

“00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의 전동의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갑자기 워커 사용 의지를 보이시면서 워커를 끌고 오실 수 있다고 했어요.” (실무자 C2)

“성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채워지면서 이용자분들이 되게 좀 만족하시는 부분..”(실무자 C5)

(3) 기술적 한계 경험

당사자들은 앱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싶어 했으나, 앱이 스마트폰에서만 구동이 되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걷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저는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 그런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측정이 안되고, 집안에서도 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이러는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때는 있는 것 같아요.”(당사자 B2)

한편, 앱이 오작동하거나, 걸음 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런 오류들로 인해 치료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다.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해 새

로 앱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이전 기록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짧은 치료 시간 내에 오류가 발생하면 당일 치료 전반에 영향이 미쳤다.

“자꾸 설치가 안 됐어요. (중략) 안 되고 어찌 다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했는데 또 안 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당사자 B1)

“나중에 이렇게 내가 했다는 그 기록은 있는데 내 걸음 수는 측정이 안 되고 하는 오류가 많았어요.”(당사자 B2)

“이제 실증 첫날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바로 이제 그날부터 막 8~9명씩 이용자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오전에 어플을 이제 당장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어플이 안 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까는 과정에서 사실 그 오전에 치료하신 분들은 거의 회기를 날렸다고 보시면 되시고...”(실무자 C4)

(4)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인식

실무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해당 앱의 완성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박자를 맞추고 조절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지도가 필요하여 앱 만을 활용해 RAS 치료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셨던 점이 메트로놈 비트랑 그 어플에 쓰여진 음악이랑 템포가 달라요. (중략) 두 개가 서로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자분들도 좀 헛갈려 가지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요청드려서 음악을 끄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실무자 C2)

“보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이 어플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 C3)

독립적인 치료 도구로서의 한계는 존재하나 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치료 시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집에서 연습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좋은 점이라면 콘텐츠 자체가 조금 다양한 거. (중략) 근데 기계는 반드시 오류가 날 테니까 완전히 기계가 대처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실무자 C2)

“이게 나중에 진짜 상용화돼서 나왔을 때는 성인들보다 치료에 열정이 많은 엄마들이.. 왜냐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치료비가 엄청나니까. 한창 발달할 때 한 초등학교나 유치하고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이걸 알게 되면 집에서 애들 트레이닝 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 C3)

3. 개발자-사용자 간 피드백 경험

1) 사용자의 피드백에 대한 개발자의 경험

(1) 소통과정에서의 간극 경험

개발자들은 앱의 적용과정에서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며 기술 이해에 대한 간극을 경험했다. 사용자들이 앱 기능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적용이 어려운 기능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개발자들은 개발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며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추가 가능한 기능과 불가한 기능에 대해 사용자와 서로 소통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반면, 앱 오류 수정 요청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사용자가 기술과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아 개발자들에게 오류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오류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기능이 되고 어떤 기능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안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 A1)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이 기능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라고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언제쯤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개발자 A2)

(2)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학습과 성장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발 초기에 생각하지 못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앱을 구동하는 것에 있어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다.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든가 개발하면서 조금 실수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제가 개발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 A1)

“저희가 아무래도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고 하면서 (중략) 단순히 보행 패턴만 하려고 했다면, 패턴 분석하는 외에 사용하실 스트레칭 기능을 추가했다든가 (중략) 통계를 나타낸다든가 이런 걸 제가 초기 기획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을 받고 제 과제를 만들면서 통계도 같이 나타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사용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발자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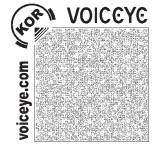
“실제로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참가자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발자 A2)

(3) 사용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보람

이번 실증을 통해 개발물을 사용자가 실제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개발자들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 개발물들이 만들고 배포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번 개발물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추후에도 관련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었다.

“제가 만든 걸 사용자분들이 써주신다는 뿌듯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중략) 내가 만든 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한 부분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개발자 A1)

“제가 관심이 있고 잘하는 걸 살려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좋았고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 A2)



“이전에는 몰라서 막막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전보다는 알게 됐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해커톤 주제에 다양하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발자 A1)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개발자들은 사용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뇌성마비 장애의 정도나 특성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존재라는 생각에서 밝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뇌성마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한 인식도 변하였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유형이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장애에 대해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뇌성마비 장애의 정도가 그렇게 많이 나뉘져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재활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시더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보는 일상적으로는 거의 못 보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힘든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실증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야기도 건너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되게 밝게 지내시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개발자 A1)

“사람마다 같은 장애라도 편차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안에서도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중략)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개발자 A2)

2) 개발자의 피드백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

(1) 상호 이해의 간극

실무자가 앱을 확인하고 설치를 돕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발자들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앱 오류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을 적용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개발자분들은 저랑 통화할 때도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이거 어플 설치하는 거 왜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참여자분들이 열 분이지만 한 분 당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는 어플을 다시 까셨어요.” (실무자 C4)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이 또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조금 뵈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실무자 C4)

(2) 개선시도에 대한 양가적 입장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RAS 치료에 대한 개발자들의 이해가 낮아 실무자들이 앱에 대한 수정 의견을 주었다. 해당 의견에 대해 개발자들이 수용하고 반영하였으며, 실무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앱의 오류를 개발자들에게 전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 치료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 치료사 선생님, 팀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캐치하고 진짜 많이 수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딱 고쳐서 저희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실무자 C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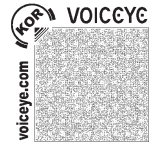
“저희는 바로 이용자가 지금 치료를 와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 치료를 당장 하는데 (중략) 오전에 답장을 보내면은 이제 오후에 답장이 오시고 이렇게 되니까는 소통이 너무 안 되시고...” (실무자 C4)

4. 장애분야 앱 개발 한계 및 개선방안

1) 장애분야 앱 개발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개발자의 인식

(1) 장애분야 앱 개발의 한계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장애분야 앱 개발의 장애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재, 장애분야 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자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소수집단에 해당하며,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특정한 앱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더 소수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제가 만약 실제로 취미나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개발할 때 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분야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 A1)

“사업적인 부분은 제일 큰 건 사실 돈인 것 같습니다. (중략) 장애인이라는 정말 소수 집단 중에서 그것도 뇌성마비라는 더 소수 집단.. (중략) 실제 사용자가 정말 과하게 적고 요. 그리고 그 적음 과정에서 정말 수익성을 추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자 A1)

장애분야 앱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개발에 대한 내적, 외적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자들은 장애 분야와 관련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나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발 분야에 대한 내적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장애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해 앱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으나 이러한 장치가 앱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지 않고 앱의 목적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외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이미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동기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개발자 A1)

“뭔가 그때 저희끼리도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볍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중략)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유료화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다 큼지막하게 해놨는데, 그걸 또 배너들이 가리면은 또 결국 사용성에도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수익성은 없지만 그냥 서비스 자체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 A3)

2) 장애분야 앱개발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1) 앱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안

당사자들은 이번에 개발된 앱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 워치나 웨어러블 장치에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뇌성마비 장애

인의 특성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개발자들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좋은 게 위치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꼭 들어야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그런 게 장애인들을 몰라서 그런 거. 장애인들은 잡는 게 힘들고...” (당사자 B1)

“아니면 꼭 위치가 아니어도 이렇게 몸에 부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스마트폰)로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그런 식으로 그 이게 참...” (당사자 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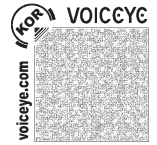
당사자와 실무자 모두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음성인식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쥐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하는 것 보다는 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성인식에 있어서도 뇌성마비 장애인과 같이 언어장애가 동반되는 장애인들의 음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뇌병변 아동을 위한 게임 앱과 같은 학습과 관련한 앱을 개발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보행과 관련한 것으로는 카메라로 모션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체를 감지하고 기준선에 맞춰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신체 기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요즘에 그 로봇이 로봇이 많이 왔어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당사자 B2)

“혼자 움직이거나 조작하는 게 어려워서 음성으로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음성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 게 있다는, 제발 좀 해줘 좀 그렇게...” (당사자 B2)

“최근에는 00병원 쪽에서 뇌병변 약간 아동들 대상으로 게임 어플을 개발해서 또 연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히 오락 기능 이상의 어쨌든 인지적인 접근에 조금 들어간다가나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참여자들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보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저는 개인적인 얘기..” (실무자 C3)

“예를 들어 기준선을 주려면 이렇게 모션을 감지하는 이렇게 카메라, 카메라 설치가 돼



서 다 여기서 여기 이런 걸 어플로도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테두리 모양 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맞췄다가 갔다가 다시 맞췄어 이 정도까지는 신체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무자 C3)

(2) 장애 분야 복지지술 개발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당사자들은 평소에 장애인 관련 기술을 접하거나 생각해 본 경험이 적었으며,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많은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장애 분야 복지지술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낮으며,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 B1)

“못하는 거. 이렇게 집중하지만, 원하는 걸 찾고 싶어도 이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다 보면 이제 끝도 없어가지고요. 이거 이걸 다 확인하고 생각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못하거든요.” (당사자 B2)

당사자들은 복지지술 개발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앱 개발에서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하였다.

“외국어랑 한국어랑 틀린 게 외국은 그대로 포커스가 양쪽으로 다 맞춰져 있잖아요. 일반인이랑 당연히 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에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거의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B1)

그냥 일반인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장애인들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당사자 B1)

또한, 당사자들은 개발자들이 장애인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어떤 기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 모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상에는 장애인들 많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사자 B1)

“장애인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필요한지도 모르시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 왜 필요하고 왜 꼭 있어야 하고 그런 거를 이 좋은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당사자 B1)

실무자들은 앱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다양한 콘텐츠를 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저작권도 그렇고 그런 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좀 수월하게. 근데 그런 걸 되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실무자 C3)

(3) 당사자 참여형 개발 프로세스 도입

실무자들은 장애 분야 복지기술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면, 보다 체계적인 실증 과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개발 과정 전반에서 전문가의 피드백이 반영될 경우,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아이템, 되게 좋은 아이템 해서 한 거니까. 만약에 또 좋은 전문가들을 딱 매칭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 나중에 그 시물레이션 다 해본 다음에 실증을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무자 C2)

“전문가 연결이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 어플 스템포도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거 스크롤 내 몸에 장애인 분들은 강직으로 숨기는 어려움 스크롤 자체도 조금 어렵다 해서 스크롤을 없앤다고 글자 크기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다 조금 진짜로 반영이 돼서 이게 옆으로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진짜로 (전문가)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자 C4)

당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분야 정부 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분야

복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장애인 관련 복지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도 기술 개발이 필요성과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장애인 뭐 그것도 다 자르잖아요. 결국은 예산이 그러지 않아요.” (당사자 B1).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좀 아셔야 된다.” (당사자 B2).

IV. 결론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RAS 기반 보행치료 앱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ICT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경험과 인식을 실질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장애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복지기술 개발의 사회적 가치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참여 동기와 관련하여 개발자는 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실용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이타적 가치가 결합된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였다. 반면 사용자는 과거 RAS 치료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현재 고비용 집중 치료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접근성의 제약 속에서 발견한 ‘절박한 대안’이었다. 이러한 참여 동기의 근본적 차이는 이후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인식 격차의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앱의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개발자는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완성된 개발물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 구현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토로하였다. 반면, 사용자는 사용 시 반복되는 오작동 및 측정 오류 등 개발물의 기술적 결함,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메뉴 설계로 인해 물리적인 사용 불편감을 직접 체감하였다. 즉, 동일한 결과물에 대해 개발자는 ‘장애 특성에 맞는 기술 구현의 어려움’을 사용자들은 ‘실질적 사용에 있어 불편감’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발물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개발자들은 앱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

해 완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사용자들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독립적 전문 치료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우나 전문가의 지도하에 치료 보조 수단 또는 가정 내 자가 훈련도구로의 활용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stempo’ 앱 사용과 관련 피드백 과정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그 원인과 양상은 각기 달랐다.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기술 이해도가 낮아 정확한 오류 상황이나 수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사용자들은 개발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당사자 참여 설계(Participatory Design)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Hornof, 2021)와 일치하는 결과로 단순 의견 수렴 과정을 넘어서 상호 이해 기반의 협업 구조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과정은 양측 모두에게 학습과 성장의 계기로 작용했다. 개발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기능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개선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편견이 감소하는 인식 개선을 경험하였다. 사용자 또한 일반 앱과 차별화된 맞춤형 앱 사용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반복적 사용을 통해 성취감과 보행 치료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이 단순 기술 구현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의 장애 인식과 감수성을 향상하며 사용자의 서비스 참여 의지 강화 등 보다 넓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복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구조적 한계 인식 측면에서는 양측 모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수익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 가능한 개발 동력 부족, 비장애인 중심의 복지기술 개발 구조의 고착화, 장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 결여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개발 초기부터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 지원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핵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기술 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협의 단계를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자들이 겪은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뇌성마비 장애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소통을 통해 당사자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기술 리터러시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을 개발하는 공급자들이 지적인 사용자의

낮은 기술 이해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기술 활용 역량의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자는 사용자의 눈높이와 역량에 맞는 개발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장애인 복지기술 개발 및 연구와 관련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의 단기 프로젝트성 지원 방식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장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기술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 주도의 3~5년 단위의 중장기 기술 개발 지원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복지기술 품질 관리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가령 장애 유형별 최소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개발물만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공공 구매를 통해 현장에서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어려운 소수 장애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자, 당사자, 전문가(조력자)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같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단일 앱 개발 사례 연구로써 뇌성마비 장애라는 특정 장애 유형에 국한되어 다른 장애 영역으로의 확장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발 완료 직후의 경험만을 포착하여 장기적 사용 패턴과 지속가능성은 추적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질적연구 방법론의 특성상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한계로 남는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지기술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산출물 생산이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 포용 증진,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고도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발자의 전문성과 기술적 통찰력과 당사자의 경험적 지식이 동등한 가치로 인정되는 협업 체계,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복지 생태계 구축, 기술에 대한 접근을 넘어 개발 과정 전반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시 복지기술은 그 본래적 가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자와 사용자 간 인식 차이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가 장애인 복지기술 개발 생태계의 질적 성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김미연, 서동조, 변종봉, 강종관. (2015). 독거노인 자가생활지원을 위한 ICT기반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 개발 -ELA(The Elderly Living Alone) Service Model-. *디지털융복합연구*, 13(4), 25 - 38.
- 김수완, 임정원, 최종혁. (2021). 복지기술은 사회 혁신인가 : 독거노인을 위한 기술기반 돌봄서비스 사례 연구. *비판사회정책*, (71), 7-41.
- 김은하, 임정원. (2024).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과정과 경험: ICT 개발자의 관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0(2), 107-129.
- 김은하, 임정원, 한지혜. (2022).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및 기대: 부모 및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7(57), 211-237.
- 박혜지. (2015). 외상성 뇌손상 청소년 대상리듬청각자극(RAS) 보행 훈련 시 선율 적용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2), 19-36.
- 신윤겸, 조성래, 정현주, 김수지. (2015). Effect of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on Hemiplegic Gait Patterns. *Yonsei Medical Journal*, 56(6), 1703-1713.
- 오수진, 김수지, 조성래, 곽은미. (2010). 리듬청각자극을 사용한 편측 경직성 뇌성마비 성인의 보행훈련 사례 연구.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6(1), 119-130.
- 이규범, 임재영, 김완호, 장순자, 김병식, 허안나, 고영미. (2004). 지역사회 장애인의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28(2), 175-181.
- 이소라, 이영선. (2020). 발달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활용:연구 동향 및 프로그램 특성 고찰. *특수교육*, 19(2), 55-74.
- 이지연. (2020). 국내 리듬청각자극(RAS) 기법 활용 연구 분석: 음악치료와 물리치료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71-96.
- 임정원, 전병혜, 길혜민, 박영란. (2020). 공공실버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복지기술 기반 커뮤니티 케어 모델개발 기초연구: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6), 1327-1347.
- 임정원, 최종혁, 김수완. (2021). 독거노인 대상 ICTIoT 기반 복지기술 서비스의 현황과 쟁점_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55, 1-38.
- 조경재. (2024). 장애 유형별 디지털 정보격차 특성 연구.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41(11), 42-50.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뇌성마비장애인 욕구조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홍기형, 이희연. (2017).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기술 기반 대면 의사소통 앱 개발 및 사용성 평가.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2(2), 405-420.

- 홍희수, 구유리. (2022).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2030 QoLT(삶의 질 기술) 제품&서비스 디자인 전략 및 미래 비전 시나리오 개발. *디자인학연구* 35(1), 151-188.
- Braun, Virginia, & Victoria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ortés-Pérez, I., Nieto-Escamez, F. A., Obrero-Gaitán, E., Martínez-Amat, A., & Achalandabaso-Ochoa, A. (2022). Virtual reality-based therapy improves balance and postural control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1), 13869.
- Hornof, Anthony J. (2021). Designing with people who have severe motor impairments: Insights from participatory design. *In Proceedings of the 2021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13. New York, NY: ACM.
- Magee, W. L., Clark, I., Tamplin, J., & Bradt, J. (2017). Music interventions for acquired brain injury.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7(1), 1-117.
- Magee, W. L., & Stewart, L. (2015). T
- Merriam, S. B. (2002).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practice: Examples for discussion and analysis*, 1(1), 1-17.
- Nadkarni, S., & Prüggl, R. (2021). Digital transformation: a review, synthesis and opportunities for future research. *Manag Rev Q*, 71, 233-341.
- OECD. (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4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36405667766>
- Silva, T. D., Silva, P. L., Valenzuela, E. J., & Dias, E. D. (2021). Serious game platform as a possibility for home-based telerehabilitation for individuals with cerebral palsy during COVID-19 quarantine - a cross-sectional pilot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2, 622678.
- Thaut, M. H. (2005). *Rhythm, music, and the brain: Scientific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Thaut, M. H., & Abiru, M. (2010).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in rehabilitation of movement disorders: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7(4), 263-269.
- ZDNet Korea. (2021년 4월 9일). “재활도 집에서 한다”...AI·VR 결합한 스마트 재활 시스템 등장.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10409091453>

Abstract

Experiences in Developing and Applying Welfare Technologies for People with Cerebral Palsy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Perspectives) of ICT Developers and Users*

BoMi Kim**, YoungIm Moon***, ChaeEun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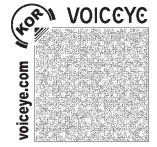
This study aimed to apply "Stempo," a RAS-based mobile application developed to improve the walking function of people with cerebral palsy, to an actual gait rehabilitation and related service support site. Through qualitative methods, the study aimed to deeply explor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between developers and user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developers of "Stempo," a RAS-based mobile app developed for gait rehabilitation in people with cerebral palsy, users with cerebral palsy themselves, and disability welfare and rehabilitation practitioners. The analysis ultimately yielded four upper-level categories from developers and four lower-level categories from users, while ten lower-level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developers and eleven lower-level categories from users. While both groups positively perceived the social value and effectiveness of welfare

* Reconstructed from part of the results of the Korea Disabled People's Foundation's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RAS-Based Mobile Application for Improving Gait Patterns in People with Cerebral Palsy."

**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ifferences emerged in their perception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outcomes. To overcome this gap in perception, it's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for developers on disability understanding and universal design, provide basic train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ability type, and reflect the practical need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contact and communication. Users also need support to enhance their technological literacy. Furthermore, to revitalize the welfare technology development ecosystem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mid- to long-term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welfare technolog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eeded, along with a systematic approach to quality control and widespread dissemination.

Keywords : People with Cerebral Palsy, Welfare Technology, App Development,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Developer Experience, User Experience

논문 투고 : 2025.10.31.	논문 심사 : 2025.12.17.	게재 확정 : 2025.12.18.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167 - 197

호주 NDIS 개혁 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도에의 함의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문영임*, 이승기**, 장진영***

본 연구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10년 운영 경험과 2023-2024년 개혁 과정을 분석하여, 개인예산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하는 핵심 딜레마를 규명하고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체계와의 경계 설정, 시장 개방성과 품질 보장 간의 균형, 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모든 제도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구조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NDIS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네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 경계를 고정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적응적 경계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제공사 시장 확대에 앞서 서비스 위험도에 기반한 선제적 제공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지원 기능의 독립성 강화, 전문성 확보, 참여자 역량에 기반한 차등 지원 등 지원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넷째, 대리결제 중심 구조의 장점을 유지하되 참여자 역량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예산관리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통제-자율성의 단계적 조정이 요구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시차적 학습 가능성, 점진적 확대 구조, 보수적 출발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유연성 확보·자율성 강화·제공사 시장 관리라는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NDIS의 시행착오를 사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적으로 흡수하여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독자적 개인예산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종단적 분석과 참여자·실무자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딜레마 구조의 실제적 작동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개인예산제, NDIS,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구조적 딜레마

* 한국장애인재단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rodeos@hanmail.net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원

I. 서론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는 장애인이 본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필요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이용자 중심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Glasby & Littlechild, 2009).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호주는 2013년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 NDIS으로 명시)을 통해 장애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단위의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한국도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이원화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기본적으로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서비스 유연화라는 목표 아래 단순히 재정 운영 및 전달 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원리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지원, 품질 및 서비스 비용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는 정책적 선택이다. 따라서 상기 목표 간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딜레마(structural dilemmas)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예산 통합과 통제 간의 갈등이다. 가령 용도별 분절된 서비스 예산을 통합할 경우 용도 선택 관련 당사자의 자율성 및 예산 사용의 유연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계획 대비 예산 증가 또는 기존 목적 외 예산이 오남용되어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반대로 예산을 목적별로 용도 및 용처를 제한할 경우 서비스 선택의 유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시장 자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간의 딜레마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공급은 확대되지만 제공자별 품질 및 가격 편차가 증가될 수 있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원격지의 경우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고,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힘들어진다(Mot et al., 2010; Westberg, 2010). 셋째, 선택권의 부여와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 간의 딜레마이다. 서비스 선택과 통제권을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강화되지만 정보 불균형 및 계약·정산 등의 행정 업무의 어려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역량의 개별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선택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선택과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전문가 통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주의(new professionalism)가 형성될 수 있다(Spandler, 2004).

이상의 딜레마는 개인예산제 모델 적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긴장으로, 한쪽을 우선시하는 순간 다른 쪽의 문제가 가시화되는 등 제도 설계 방식과 관계 없

이 발생한다. 이에 개인예산제를 실행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재정 여건, 장애 출현율, 제공자 시장의 성숙도, 국가별 행정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정해 왔다. 가령 스웨덴은 비교적 정부 주도의 엄격한 계획 기반 통제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비용의 안정성을 추구하였으며(Westberg, 2010), 영국은 중개서비스와 정보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당사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고하였다(Glasby & Littlechild, 2009). 이와 반대로 네덜란드는 직접지불제도 도입 이후 이용자들의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2012년부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Mot et al., 2010).

상기의 국가와 달리 NDIS는 개인예산제의 핵심 원리를 연방 단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실현한 사례로 언급된다. 즉 NDIS는 '완전 통합예산, 시장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 참여자 주도 계획 수립'의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개인예산제를 실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설계는 2018년 이후 계속되는 서비스 비용 급증, 서비스 제공기관 간 품질 편차로 인한 혼란, 참여자의 행정 부담 가중 등 구조적 문제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NDIS Review, 2023; NDIA, 2024). 이에 호주 정부는 2023년 독립 검토보고서(Independent Review)와 2024년 NDIS Act 개정을 통해 예산 구조 조정, 서비스 제공기관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시도하였다.

한국의 장애인 사회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주요 급여는 분절된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사자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예산 편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 이에 정부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개별유연화, 선택 및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2023년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2027년 본사업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시점은 마침 호주의 NDIS가 10년간 제도 시행 후 가시화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있는 시점과 중첩되며, NDIS 개혁에 관한 학습과 국내 적용은 한국이 개인예산제 제도 실행에 따른 구조적 딜레마를 직·간접 경험하고 이를 본사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차적 학습(temporal learning)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개인예산제 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구체적으로 국외 개인예산제도 소개(원소연, 2010; 이동석 외, 2013; 김경미, 2020)하거나, 실천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한 개인예산제 적용 경험 분석(김동홍 외, 2021; 박설아 외, 2022), 정책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 분석(허준기 외, 2022; 안형진 외, 2023), 시범사업 추진 관

런 본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이한나 외, 2020; 김동기 외, 2023) 등 양적으로 축적되며 진화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연구 공백이 존재한다. 개인예산제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분석틀, 각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 및 발생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제도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호주 NDIS의 초기 설계 모형과 이를 적용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진 제도 개혁이 어떠한 조정 매커니즘을 도입했는지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개인예산제 설계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딜레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에게 현금 또는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여 욕구 기반 필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 개인예산(Personal Budgets), 개별화 예산(Individualised Funding)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행된다(Glasby & Littlechild, 2009). 개인예산제가 추구하고 제도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수동적 급여 수급자가 아닌 스스로 욕구나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동적 소비자로 재정의한다. 둘째, 서비스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서비스 시장 내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셋째, 권리 기반 관점에서 개인예산제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임을 강조한다(Needham, 2011).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달리 실제 개인예산제는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민간 서비스 시장을 작동시키는 유사시장(quasi-market)의 체계 속에서 운영되며, 이 지점에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한다. Le Grand & Bartlett(1993)에 따르면 유사시장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되 서비스 제공은 시장 경쟁 원리에 맡기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및 형평성, 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장 경쟁 논리상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원격지) 또는 최중증장애인 영역은 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와 반대로 공적 규제와 시장 통제를 엄격하게 강화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과 서비스 혁신 동기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상의 한계는 개인예산제 설계 과정에서 세 가지 차원의 딜레마로 구체화될 수 있다.

먼저 재정 설계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이용의 유연성을 높일 것인지 또는 목적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재정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둘째, 시장 설계 차원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자율에 맡길 것인지 또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제공자 진입과 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할 것인지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설계 차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할 것인지, 이와 반대로 개별 정보 격차, 정산 등 행정 업무의 부담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쟁점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요구하며, 특정 가치를 우선하여 제도를 설계할 경우 다른 가치가 일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인예산제의 이상적 설계란 구조적 딜레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제도적·재정적·사회문화적 여건 등 거시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맥락에 가장 적합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예산 통합과 통제 간의 구조적 딜레마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딜레마 중 첫 번째 딜레마는 예산의 통합 수준과 통제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다. 가령 개별 개인 단위의 서비스 예산을 단일 통합예산으로 설계할 경우 당사자는 활동지원, 재활치료, 보조기기, 주거 개조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 개별화된 욕구 충족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Glasby & Littlechild, 2009; Needham, 2011). 이는 급여별로 예산이 분절된 체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른바 ‘예산의 칸막이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통합예산은 서비스의 개별유연화를 극대화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완전 통합예산 방식은 예산의 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 또한 수반한다. 첫째, 서비스 비용 통제의 어려움이다. 서비스별 예산을 목적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예산 형태로 설계할 경우, 참여자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동시에 제공자는 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당사자에게 서비스의 오남용을 권유하는 ‘공급자 유도 수요’(supplier-induced demand)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진다(Sørensen et al., 2020). 둘째, 목적 적합성(fitness for purpose)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증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해 설계된 예산이 단기적 소비난 즉각적인 편의 제공 위주로 활용될 경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Needham, 2011). 마지막으로 예산 인플레이션(plan inflation) 문제이다. NDIS 참여자

는 차기년도 신청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서비스 필요 예산보다 추가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계획을 방대하게 수립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NDIS Review(20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자의 현재 필요도와 상관없이 '일단 많은 양의 서비스를 할당받는' 전략을 취하게 하며, 상기 기조는 전체 시스템의 예산 확장, 즉, 예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급여의 목적별로 예산을 엄격히 구분할 경우 서비스 비용 통제와 급여별 성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Westberg, 2010). 그러나 이러한 설계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영역간 자원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개인예산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선택과 통제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Glasby & Littlechild, 2009). 궁극적으로 예산의 통합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유연성 확대와 통제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시장 자율성과 품질 보장 간의 구조적 딜레마

개인예산제의 두 번째 구조적 딜레마는 시장 자율성과 품질 보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이다. 개인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기대하며 설계된 제도임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실제로 서비스 시장 내 제공자의 등록 조건을 완화하면 공급자 수는 늘어나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해지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혁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Glasby & Littlechild, 2009).

그러나 시장 진입 관련 낮은 장벽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품질 관련 문제 및 한계를 초래한다. 첫째,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제공자의 서비스 시장 유입이다. 가령 전문성, 경험, 재정 안정성이 부족한 자격 미달 사업자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진다. 둘째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으로 불리는 선별적 수요 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경증 장애인, 도심 지역, 단순하고 직관적 서비스를 선호하고, 중증 및 중복 장애인, 농어촌 지역, 복잡한 돌봄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Brennan et al., 2012). 이는 시장이 확대되어 공급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정작 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이 오히려 더 소외되는 역설을 야기한다. 셋째, 정보 비대칭에 따른 선택의 어려움이다. 제공자 수가 급증할 경우 몇몇 당사자는 품질을 비교 및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지며, 이에 공급자 선택 시 실질적 선택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엄격한 자격심사,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 및 가격 규제 등으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통제할 경우 서비스 품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서비스 공급 부족과 혁신 제약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수익 측면에서 비용편익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공급자가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시장에서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 개인예산제 도입 당시 느슨한 제공기관 관리로 인해 예산의 부정수급 및 서비스 품질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이후부터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의 시장 이탈로 인해 공급 부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Eeckhout et al., 2021).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 관리의 핵심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 확대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두 목표 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당사자 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제공간의 구조적 딜레마

개인예산제의 세 번째 구조적 딜레마는 계획 수립 관련 당사자의 선택 자율성과 실질적 지원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다. 개인예산제의 핵심 이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계획 수립을 당사자 주도로 실행하고 이때 전문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Needham, 2011). 이는 전통적 재활모델에서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하고 서비스를 할당하던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Glasby & Littlechild, 2009).

그러나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실제 정책 운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가 서비스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예산제 시장은 제공자·서비스 내용·가격 등 핵심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서비스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품질을 검증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Needham, 2011). 둘째, 행정 업무로 인한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제한이다.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일정 조정, 비용 청구선 확인, 예산 관리 및 정산 보고 등 일련의 행정 업무가 당사자에게 전가될 경우, 특히 인지 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 자체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있어 실질적 장벽이 될 수 있다(Glasby & Littlechild, 2009).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역량의 개인차이다. 장애인 모두가 스스로 본인의 삶의 목표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복잡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 없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서비스의 선택권만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

화시킬 위험이 있다(Needham, 2011).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2008년 개인예산제 도입 당시 중개 서비스(brokerage service)를 제도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즉 지방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 고용된 중개인(broker)이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계약 및 비용 지급 및 이용료 정산 등의 행정 업무를 이부 대행함으로써 당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선택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Glasby & Littlechild, 2009). 그러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이러한 시도 또한 새로운 딜레마를 생성할 수 있다. 가령 중개인이 당사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선택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서비스 및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경우 전문가 통제와 다른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 비용을 개별 개인예산제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행정 경비로 지출할 경우 재정 부담은 증가된다. 따라서 계획 지원의 핵심 과제는 당사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실제로 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수준과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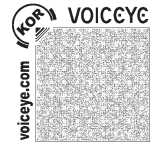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딜레마는 개인예산제라는 정책 모델이 본질적으로 양날의 검임을 보여준다. 각 딜레마에서 한쪽 극단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절충을 시도하더라도 최적의 균형점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Glasby & Littlechild, 2009). 따라서 개인예산제 정책 분석시 핵심 과제는 ‘개인예산제가 과연 장애인에게 좋은 정책인가? 나쁜 정책인가?’와 같은 이분법적 평가가 아니라 ‘개인예산제 설계 선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호주의 NDIS가 각 딜레마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난 10년간 어떤 구조적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Ⅲ. 호주국가장애보험 설계 특성 및 구조적 딜레마

1. NDIS 개요 및 현황

1) 도입 배경

NDIS 도입 이전 호주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서비스를 나누어 분담해오면서 이러한 분절적 장애 지원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지원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야기되면서, 2011년 호주 정부의 자문 기구인 생산성위



원회(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AGPC)에서 『장애와 돌봄 지원(Disability and care support)』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욕구에 기반한 개인예산 확보, 지역 코디네이터와 장애인 단체 풀뿌리 지원 등 현재 NDIS 기본원리에 적용된 원칙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 언론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NDIS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이한나, 2022). 이에 2013년 NDIS법(NDIS Act, 2013)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호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 대상 및 예산 규모

NDIS는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자를 보유한 영구적이고 중대한(permanent and significant) 장애를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되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65세 이상은 고령자 돌봄(Aged Care)의 대상이 되지만 65세 이전에 NDIS 참여자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는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한나, 2022).

참여자 규모는 2025년 6월 기준 73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1.8% 상승률을 보였다(NDIA, 2025a).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참여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NDIS 이용자의 규모(2021년~2025년)

(단위 : 명, %)

회계연도 ¹⁾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2024-2025
참여 인원	466,619	534,655	610,502	661,267	739,414
전년 대비 증가율	-	14.6	14.2	8.3	11.8

자료 : NDIA(2025a, p20) 표 재구성함.

한편 2023-2024년 회계연도 총 서비스 지급액은 약 418억 4천6백만 호주 달러(약 39조 1,720억원)였으며, 2024-2025년 회계연도 총 서비스 지급액은 463억 4천7백만 호주 달러(약 43조 3,854억원)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DIA, 2025a).

1) 호주의 회계연도는 전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표 2〉 NDIS 지원 예산의 규모(2021년~2025년)

(단위 : 백만 호주달러, %)

회계연도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2024-2025
예산 규모	23,348	28,631	35,193	41,846	46,347
전년 대비 증가율	-	22.6	22.9	18.9	10.8

자료 : NDIA(2025a, p48) 표 재구성함.

3) 지원 영역

NDIS 예산은 목적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ADL), 사회 참여,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사용되는 핵심 지원(Core Supports), 보조기기의 구입, 주택 및 차량 개조, 장애인 맞춤 주택 개조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산 지원(Capital Supports), 교육·훈련·취업지원·치료 등 장애인의 자립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둔 역량강화지원(Capacity building Supports)으로 나뉘며, 각 1개 혹은 모든 영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NDIA, 2025b). 각 지원 영역별 범주와 세부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NDIS 지원 영역별 범주 및 세부 범위

지원 영역	범주	세부 범위
핵심 지원	소모품	배변 보조기구 등 일상용품 구매
	일상생활	낮 또는 저녁 동안 일상생활 지원
	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회 또는 문화 활동 참여 지원
	이동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역량 강화 지원	선택 및 통제	계획 및 계획 조정 지원
	일일 활동	참여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고용	고용 관련 평가 및 상담
	건강 및 웰빙	장애 영향으로 인한 운동 지원
	주거	적절한 주거 환경 확보 및 유지
	평생 학습	학습 증진
	사회 관계	긍정적 행동 지원
자산 지원	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	대중 교통 훈련 및 개인 일상생활 기술 개발
	보조 기기	보조 공학 및 보조 기기
	주거	주택 개조 및 장애인 맞춤 주택 개조

자료 : NDIA(2025b) 2025.11.3. 인출 및 재구성함.

2. NDIS 설계 특성 및 구조적 문제

NDIS는 2013년 시범 도입 이후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0년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으며(NDIA, 2024), 2025년 6월 기준 약 73만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예산제 체계로 발전하였다. NDIS는 이전 주연방정부별로 흩어져 있던 분절적 장애 서비스 체계를 연방정부 중심의 단일 구조로 통합하였고, 개인예산제의 핵심 원리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구현하려는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했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1). 이러한 목표 아래 NDIS는 개인예산제의 세 가지 딜레마 각각에서 제도적 극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를 구축하였다.

첫째, NDIS는 예산 구조에서 완전 통합예산(fully flexible budget)설계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참여자 예산은 ‘일상생활지원’, ‘역량강화지원’, ‘자본지원’이라는 세 가지 대범주로 구분되지만 각 범주 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NDIA, 2025 b). 이는 활동 보조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을 제한하는 스웨덴의 LASS 모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Westberg, 2010; Glasby & Littlechild, 2009).

둘째, NDIS는 서비스 시장 설계와 관련하여 시장 기반 경쟁(market-based competition)을 적극 도입하였다. 즉 정부는 서비스 공급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초기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했고, 제공자간 시장 경쟁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다양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Carey et al., 2018).

이에 기본적인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하였으며, 서비스 단가와 관련한 가이드를 정부가 제시하되, 서비스 제공자가 그 범위 내에서 단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였다(NDIA, 2023). 그 결과 NDIS에 등록된 제공기관 수는 2018년 8,000개에서 2023년 23,000개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NDIA, 2023).

셋째, NDIS는 서비스 계획 수립과 관련 당사자 주도 원칙을 핵심 설계 기조로 삼았다. 공식적으로 플래너(planner)는 참여자와의 연 1회 면담을 통해 개별 욕구를 평가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참여자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NDIA, 2020). 그러나 실제 제도가 운영될 시, 플래너는 주로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예산 사용 방식은 대개 당사자에게 위임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당사자 주도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NDIS는 무료로 지원되는 지역 코디네이터(Local Area Coordinator, LAC)와 유료로 제공되는 지원 코디네이터(support coordinator),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플랜 매니저(plan manager) 등의 지원 체계를 제도 내에 마련하였다. 다만 무료 지원인 지역 코디네이터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유료로 제공되는 지원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 체계 설계는 기존 전문가주의적 접근을 벗어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Needham, 2011).

Productivity Commission(2017)에 따르면 NDIS 참여자의 80% 이상이 선택권과 통제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가족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 참여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NDIS는 개인예산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성과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개인예산제 설계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 핵심 참조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OECD, 2021).

그러나 2018년 이후 이러한 극단적 설계로 기인한 구조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NDIS Review, 2023). 이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딜레마가 NDIS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딜레마의 발현 양상과 그에 따른 NDIS가 직면한 제도적·재정적 압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완전 통합예산과 비용 급증

NDIS의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비용 급증이다. NDIS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개별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기능 및 역량 중심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영유아 조기개입²⁾, 다영역 통합돌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NDIS 총 지출은 2016년~2017년 70억 호주달러에서 2023~2024년 418억 호주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연평균 증가율도 14~22%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NDIA, 2024). 비용 급증의 원인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결부되어 있다. NDIS 참여자 수는 2020년까지 약 46만명을 예상했으나 2020년에 이미 40만명을 초과하였으며, 2024년에는 66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1인당 평균 계획 예산은 2016-17년 평균 4만 달러에서 2023-24년 6만 3,300달러로 약 58% 증가했으며, 예산 이용률도 초기 70%에서 9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NDIA, 2024; NDIS Review, 2023).

NDIS Review(2023)에 따르면 완전 통합예산 구조가 정책의 비용 증가를 촉진했다고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예산 사용 극대화 유인

2) 호주 NDIS에서 영유아 조기 개입(Early Childhood Early Intervention, ECEI)은 7세 미만의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접근 방식을 말한다.

(budget maximization incentive)이다. 참여자는 할당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할당 급여를 최대한 소진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제공자 역시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 서비스 및 추가 서비스를 권하는 등 공급자 유도 수요(supplier-induced demand)를 강화하였다. 둘째, 목적 전용(purpose diversion) 문제이다. 완전 통합예산 체계에서 참여자는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일회성 일상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이용 관련 단기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기존 서비스의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NDIS Review, 2023).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과정의 상향 압력이다. 참여자와 가족, 옹호단체, 제공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단 많이 할당 받아두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반면, 플래너는 참여자의 요구를 거부할 명확한 기준 부족과 당사자가 거부 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예산 승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 지적된다(NDIS Review, 2023).

이와 같은 비용 구조는 NDIS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NDIS 예산은 연방정부 예산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GDP의 1.4%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24).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증장기적으로는 다른 사회복지 부분의 재정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팽창 및 품질 격차

NDIS의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서비스 제공 시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2018년 8,000개 대비 2023년 23,000개로 약 3배 증가하였으나(NDIA, 2023), 이는 양적 팽창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혼합시장 이론의 고전적 문제를 재확인시켰다.

NDIS 품질보호위원회(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한해간 NDIS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 불만은 29,054건이었다(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2024). 이는 2019-2020년에 접수된 4,469건과 비교하였을 때,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품질 저하의 원인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적격 제공자의 유입, 선택적 대상 편향과 지역·고난도 영역의 서비스 공급 공백 심화, 품질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3,000개에 달하는 제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에는 NDIS 품질보호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정기 감사는 소수 고위험 제공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대부분은 사후적 불만 처리만 실행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

에 대한 객관적 정보 확인이 어려워 광고나 소문에 의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NDIS 시장은 양적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악화가 공존하는 구조적 역설을 나타냈다. 즉 제공기관별 경쟁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서비스 선택지는 늘어났으나 실질적 선택은 더 어려워졌으며, 제공기관 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는 부정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시장 자율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에 적극적 시장 관리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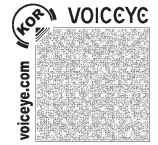
3) 선택권 부여와 행정 부담

NDIS의 세 번째 구조적 문제는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NDIS Review(2023)에 따르면 다수의 참여자와 가족이 계획 수립 과정을 ‘압도적(overwhelming)이고 스트레스가 많은(stressful)’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53%가 ‘NDIS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참여자의 42%가 ‘행정 절차가 과도하다’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NDIA, 2023).

행정 부담은 크게 세 단계에서 누적되었다. 첫째, 계획 수립(planning) 단계이다. 참여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관련 비용을 산정해 예산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종류·질·효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상당수 참여자는 적절한 선택을 위한 정보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NDIA 플래너는 예산 규모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할 실제 구체적 서비스 탐색이나 계획 작성은 지원하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는 유료 지원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해당 비용이 본인의 예산에서 차감되는 점을 부담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제공자 탐색 및 계약(provider search and contracting) 단계이다. 계획 승인 이후 참여자는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탐색하고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협의하며, 개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NDIA가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 목록 수준에 그쳐 품질 비교나 이용자 평가 및 만족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참여자는 여러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가격·대기 여부·서비스 범위 및 일정을 문의해야 했으며, 일부 제공자는 신규 참여자를 받지 않거나 특정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다.

셋째, 서비스 이용 및 예산 관리(service use and budget management) 단계이다.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이후에도 비용 청구 내역 확인, 예산 잔액 관리, 서비스 조정 및 변경, 비용 정산 등 상당한 행정 업무가 요구되었다. 비용 지급 관련 과다 청구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확인 및 이의 제기는 전적으로 참여자의 책임이



었다.

이러한 행정 부담은 특히 인지적 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참여자에게는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NDIS Review(2023)는 “선택과 통제라는 이념이 모든 참여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가족 지원을 활용할 수 없는 참여자는 사실상 제도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행정 업무를 제3자인 플랜 매니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였으나, 연간 1천500달러~3천달러에 달하는 플랜 매니지먼트 비용이 참여자의 개인예산에서 차감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궁극적으로 호주의 NDIS는 법적·형식적 차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했으나, 그 선택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면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권리 기반 접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지원(capability support)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IV. 호주 장애지원 체계 재구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호주에서는 10여년간의 NDIS 운영 과정에서 가시화된 구조적 쟁점과 이에 대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재 전국 단위의 장애 지원 체계 재구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NDS, 2025). 이러한 개혁은 단순한 NDIS 제도 개선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생애주기 전반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

1. 하위예산 체계를 통한 예산 구조의 재조정

NDIS 서비스 예산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기존 계획 대비 급증한 예산과 단기 소비 편향에 대응하여 예산 개혁은 완전 통합예산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예산(sub-budgets)체계를 병행하여 예산의 유연성과 통제 간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즉 참가자 단위에서 총액예산은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내부적으로 4~5개의 급여군(예를 들어 일상생활지원(daily living supports), 치료·재활(therapeutic supports),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자본지원(capital supports) 등)으로 구분하고, 군간 전

용은 10~15%의 한도 내 또는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적 유연성 (bounded flexibility) 접근은 예산의 완전 통합과 분절이라는 상반된 구조 사이에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중간적 조정 매커니즘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군 단위의 지출 증가율·이용 패턴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예산 사용 관련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NDIS Review,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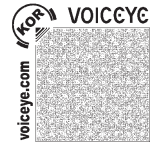
한편 개혁은 합리적이고 필수적인(reasonable and necessary) 지원 판단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8개의 세부 기준(장애 관련성, 비용효과성, 목적적합성, 대안가능성, 주류서비스 책임, 비공식지원 고려,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명시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24). 이를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설명가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플래너는 참여자의 부적절한 요구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고, 참여자 또한 급여 할당 결정의 근거와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위예산 구조의 도입은 장기적 투자 성격의 예산을 보호하고 급여군 단위에서 서비스 비용 지급 관리와 위험 통제 기능 강화, 예산 운용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보다 명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급여군 간 경계 설정이 경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으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할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부담, 여러 급여군이 관련되는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쟁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NDS(2025)는 거버넌스 및 교차관할 협력 축에서 제시한 데이터 인프라와 성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급여군간 예산 전환의 사유와 그 성과를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적 및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단계별 제공자 등록제(시장 자율과 품질의 재균형)

NDIS는 서비스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간 품질 편차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단계별 등록제(risk-based tiered registration)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원 서비스를 위험도 및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의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과 감사·모니터링 강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체계이다. 주거, 정서·행동 및 의료직 지원 등 고위험 영역은 한층 강화된 자격 심사와 정기적 현장 감사가 요구되며, 서비스 품질 인증 또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중위험 영역은 표준 심사와 정례 보고 중심의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저위험 영역은 간소화된 등록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 동일



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영역별 위험 수준에 맞추어 규제 강도를 조정하는 체계인 위험비례 규제(proportionate regulation)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단계별 등록제의 핵심 목적은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규제 및 감독하고, 저 위험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혁신 도모 및 신규 기관 진입 유도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 및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는 궁극적으로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등급 판정 기준의 일관성 확보, 서비스 위험도에 비례하여 관리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다수 유형의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복수 등급 적용에 따라 과도한 규제 부담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절차적 기반이 필요하다. 우선 각 등급에 요구되는 등록 및 감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제공자의 위험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위험에 비례한 단계별 등록제는 단순한 기준을 넘어 설 수 있다. 실제로 위험 기반 감독의 정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3. 내비게이터 제도화(선택권 보장과 지원 기반의 재구조화)

행정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NDIS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안은 모든 참여자에게 독립적 내비게이터(Navigator)를 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내비게이터는 계획 수립, 제공자 탐색 및 계약, 서비스 이용 과정의 조정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서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의 핵심 원리는 독립성 보장이다. 내비게이터는 특정 제공자와 이해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비용 또한 참여자 예산이 아닌 NDIA의 별도 재원을 통해 충당된다. 이를 통해 모든 참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중립적 공적 지원에 접근 가능하며, 지원의 강도는 장애 유형과 필요 서비스의 복합성에 따라 층화(stratification)되어, 기초적 정보 제공에서 집중적 돌봄 지원에 이르기까지 개별적 필요에 맞춘 조정된 지원이 제공된다.

내비게이터 도입의 기대효과는 서비스 지원계획의 질 제고, 욕구 대비 서비스 매칭의 정확성 제고, 미충족 욕구 해소, 분쟁·이의제기 사전 예방 등이다. 다만 전국 단위의 인력 수급과 표준화된 양성 교육 및 훈련, 이해 상충 예방을 위한 규제, 성과 측정지표의 수립 등

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V. NDIS 사례의 제도적 함의와 서울형 개인예산제 설계 방향

본 연구가 제시한 NDIS의 10년 경험은 개인예산제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설계 선택에 따라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었다. NDIS Review Final Report(2023)에 따르면, NDIS는 완전 통합예산, 시장 기반 제공자 체계, 당사자 주도 계획 수립이라는 극단적 자율성 설계로 출발하여, 2018년 이후 비용 급등(2016년 \$7.0B → 2025년 \$46.3B 예상), 제공자 시장 품질 혼란(23,000개 등록 제공자 중 품질 편차 심화, 불만 3배 증가), 참여자 행정 부담(62% '계획 수립 어렵다')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2023-2024년의 NDIS 개혁은 하위예산 구조 도입, 단계별 등록제 강화, 내비게이터 의무 배정이라는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와 가드레일의 균형'을 사후적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NDIS 경험은 특히 서울형 개인예산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차적 학습(temporal 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한다. NDIS가 10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에 두 제도간의 시차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시점의 서울형 개인예산제가 NDIS에서 사후적으로 도입한 조정·보완 장치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만들어낸다. 즉,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NDIS의 시행착오를 분석하여 이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정책적 이점을 갖는다.

1.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특성과 차별성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2차 시범사업은 6개월간 운영되어 1인당 최대 240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예산은 전액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에는 총 130명이 참여하였다. 향후 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모형이 활동지원급여 외 3개의 바우처별 20% 범위 내 부분 통합 방식인 것과 달리, 서울형은 기존 사회서비스 급여와 분리된 독립적 예산 구조를 택하고 있다(이승기 외, 2025).

운영 구조는 수행체계별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다층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 사업 참여자 모집·선정하며,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급여 승인 절차 이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 지급, 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8개 시립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참여자 면담을 통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이행 점검 등을 지원한다. 셋째, 학계·의료·법률·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예산운영위원회가 개인별 급여액 승인 및 조정을 담당한다. 넷째, 모니터링단이 참여자별 일대일로 서비스 이행 정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다섯째, 실제 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 제공자(교육기관, 주거환경 개선 업체 등)로부터 구매된다(이승기 외, 2025).

이는 호주 NDIS와 비교 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진다. 유사점은 계획 지원(복지관)과 예산 관리(재단)가 분리되어 전문성과 통제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점이다. 반면 주요 차이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NDIS는 참여자가 플랜 매니저를 선택하고 그 비용이 참여자가 할당받은 서비스 예산에서 차감되나, 서울형은 사업 운영기관 주도로 계획 수립 전 개별 참여자에게 지원 코디네이터를 일대일 매칭해주며, 지원과 관련한 비용은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즉 코디네이터 선정과 관련 참여자 선택권은 제한되지만 예산 관리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진다. 둘째, NDIS는 초기 실행 당시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지원을 최소화했다가 이후 내비게이터를 의무 배정했으나, 서울형은 처음부터 지원기관을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NDIS의 초기 실패를 사전에 회피했다. 셋째, 서비스 비용 및 정산 관련 대리 수행 방식은 참여자의 재정 집행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기관 중심의 예산 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참여자의 예산 운용 자율성 및 서비스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원 기준 및 영역 또한 NDIS 및 중앙정부와도 차이점을 보인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지원 범위는 중복 불가 원칙에 기반한다. 기존 제도에서 이미 지원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모형을 주류·담배 등 제한적 항목 외에는 서비스 선택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서울형의 이러한 제한적 접근은 두 가지 설계 의도를 반영한다. 첫째, 기존 장애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둘째, 개인예산제를 기존 제도의 대안이 아닌 보완재로 위치시킴으로써,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개별화된 욕구에 대응하는 틈새 지원 기제로 기능하도록 한다.

2.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딜레마 및 NDIS 적용

1) 통합 대 통제 딜레마

한국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형은 서비스 예산 조달 방식에서 상반된 경로를 선택했으며 이는 각각 다른 구조적 딜레마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 모형은 활동지원급여 등 기존 바우처 예산의 일부를 개인예산 재원으로 전환하는 예산 통합적 접근을 취한다. 이 방식은 신규 재원의 확보 없이 개인예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재정적 효율성을 가지지만 기존 바우처가 목표로 하는 돌봄 서비스의 적정 이용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목적 전용의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반면 서울형 모형은 기존 장애인 사회서비스 자원과 분리된 독립적 예산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기존 제도의 안정성 및 목적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제도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이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배제 원칙이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가라는 적정 지원 기준 수립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NDIS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서울형의 서비스 중복 불가 원칙은 양면성을 갖는다. NDIS는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의 완전 통합으로 인해 돌봄 예산이 차량 구입비로 전용되거나 치료 예산이 여행에 사용되는 등의 목적 전용 문제를 경험하였으며(NDIS review, 2023), 이는 개인예산제의 본래 목적인 필수 서비스 보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서울형의 중복 지원 불가 원칙은 예산의 용도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의 목적성 훼손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한적 접근으로 이해되나, 역설적으로 기본 범주형 복지 서비스가 지닌 유연성 부족 문제를 개인예산제 설계 내부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기존 제도에 명목상 존재하나 실질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의 통합적 이용이 효과적인 경우 등에 중복 불가 원칙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NDIS는 재정 압박과 서비스 예산 급증에 대응하고자 지원 예산을 코어(Cor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자산(Capital)으로 세분화하고 각 범주 내에서는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범주 간에는 엄격하게 구분하는 구조를 택했다. 이에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서비스 지원에 있어 이와 같이 유연한 경계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초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예산 통제를 위해 기존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엄격히 제한하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의 경계 설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 및 보완하는 매커니즘을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조정 장치를 시범사업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복 지원의 타당성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한다. 현재 서울형 제도는 개인예산운영 위원회를 통해 개별 계획을 심의 및 승인하고 있다. 이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외 승인에 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과 사례 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기존 제도의 접근성 제약,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서의 실질적 차별성, 기존 서비스와의 보완적·통합적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고, 중복 지원 허용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집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형식적 중복’과 ‘실질적 중복’을 구분하고 재정 통제와 이용자 중심 지원 간 균형을 도모한다.

둘째, 서비스 영역별로 상이한 지원 기준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모든 서비스에 획일적인 기존 제도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중복 허용 범위를 차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지원이나 핵심 돌봄 영역은 기존 제도와 중복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자기개발, 사회참여, 취·창업 활동, 건강 및 안전 영역 등 당사자의 욕구 대비 기존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보완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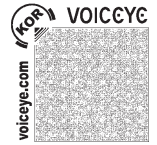
셋째,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실질 구매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예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NDIS의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지원(reasonable and necessary supports)’에 대한 기준 적용이 점차 완화되면서 예산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달리 서울형 모델은 개인별 서비스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총예산 규모를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에서 더 시급한 과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승인된 서비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형 모델에서의 예산의 조기경보체계는 서비스 단가 대비 물가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 예산의 상한선이 욕구 충족에 따른 예산의 충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한 후 필요 시 예산의 상한액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서비스 예산이 단기간 급증하는 패턴이 나타날 경우, 수요 구조 변화에 비롯된 것인지 혹은 제도 설계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또한 예산 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기준 자체가 현장의 상황과 괴리된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에 따른 품질 딜레마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형은 참여자가 승인된 개인예산계획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범위도 법인·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포함하는 개방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예산제가 지향하는 자기결정권 확대 및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취지와 부합하나 NDIS의 경험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본 사업으로 확장될 경우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정책 실험 형태의 시범 사업 수행단계에서는 참여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행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한 밀착 관리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2027년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시 서비스 제공자 수가 현재 대비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시범사업 단계와 같은 비공식적·관계 의존적 관리 체계로는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호주의 NDIS 역시 도입 초기에는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단순 등록제 운영을 통해 제공자 수가 급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공기관의 서비스 미이행, 부실 서비스, 허위 청구와 같은 심각한 품질 저하 및 부정 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NDIA, 2022;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2023; AUSTRAC, 2020;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23). 이에 호주 정부는 독립적인 NDIS 품질·안전위원회(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를 설립하고 위험도에 따라 자격 요건을 차등화한 단계별 등록제, 강화된 감독·제재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수반되었다(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2018; ANAO, 2025).

따라서 서울형 모형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의 위험도에 따라 등록 절차와 관리 강도를 달리하는 차등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안전 영역과 같은 고비용·고위험 서비스는 엄격한 자격 기준 및 현장 실사, 사고 이력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및 검증을 실행한다. 반면 자기개발, 취미·여가활동, 온라인 교육과 같은 저위험 서비스는 간소화된 등록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NDIS가 시행착오를 거쳐 도입한 ‘위험도 기반 규제(proportionate regulation)’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본사업으로 전환될 시 예상되는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4〉 서울형 개인예산제 서비스 위험도별 제공자 관리 방안

위험도	서비스 유형	제공자 요건	모니터링	서울형 적용 사례
고위험	건강·안전 직접 영향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필수 • 사업경력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정기 감사 • 중대사고 시 즉시 조사 • 등록 갱신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개선(전기, 가스 공사) • 보조기기 제작 및 설치
중위험	전문성 요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 또는 경력 • 사업자 등록 •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1회 점검 • 불만 발생 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교육 • 심리상담 • 재활 및 운동
저위험	일반 사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또는 신원 확인 • 범죄경력 조회 •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보고 • 중대사고 시만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교육 • 온라인 교육 • 일반 소비자 구매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NDIS 도입 초기에는 참여자가 제공기관 관련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만족도, 이의 제기 이력 등을 공개하는 ‘서비스 제공자 검색 시스템(Provider Finder)’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서울형 역시 본사업으로 확대 될 경우 제공기관별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 및 비용, 사용자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이의 제기 및 행정 제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공급 취약성을 충분히 해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시범사업 단계 자체를 공급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의 개입 원칙을 검증하는 실험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급이 불가능한 영역, 가령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 영역은 시범 단계부터 공급 부족을 판정하는 기준과 개입 방식, 개입 효과의 평가와 종료 조건을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3) 선택 대 지원 딜레마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대리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이후 수행기관·지

원기관·모니터링단이 서비스 이행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NDIS가 초기 설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계획 지원 부재로 인한 참여자의 혼란, 정보 접근성 부족, 제공자 선택의 어려움 등)를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NDIS는 도입 초기, 참여자의 '선택과 통제'를 강조하면서 계획 수립 책임을 참여자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계획 수립 지원은 선택적 서비스로만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참여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제공자와 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필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NDIS Review, 2023). 이러한 문제는 2023년에 시행된 NDIS의 정책 개혁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계획 지원조정가(Navigator)를 의무 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서울형 개인예산제 모형이 초기 단계부터 계획수립 지원 구조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NDIS 개혁에서 제시된 계획지원조정가(Navigator)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 무상 제공, 역량에 따른 차등 지원을 기준으로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이 확인된다. 먼저, 지원기관이 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행점검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을 수반한다. 동일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 탐색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적절성 판단 및 이행점검을 시행할 경우, 참여자의 선택이 특정 제공자 집단 또는 네트워크의 영향 아래 간접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계획지원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원 기능의 전문성과 실행 효율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복지사업을 수행해온 장애인 전문기관이 개인예산제 지원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될 경우,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인해 개별 참여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형이 계획 수립 지원 비용을 참여자 예산과 분리하여 공공재원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NDIS의 초기 설계 오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이행과 관련 참여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제 전담인력 배치, 표준화된 교육체계 수립, 기관 간 성과 공유를 통한 지원역량 진단 및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형 개인예산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대리결제 방식은 행정적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통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당사자의 자율성과 필요에 따라 즉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즉시성 측면에서는 일부 제약을 초래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대리결제 방식에서는 모든 지출이 기관의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서비스 구매가 필요한 상황의 경우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NDIS가 참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예산관리(self-management) 등 다양한 예산관리 방식을 허용해온 흐름과 대비된다.

따라서 향후 서울형 모형의 경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대리결제 방식을 유지하되, 일정 비율의 소액 자율 예산을 허용하거나 표준화된 저위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위험·고비용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전 검토를 유지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등 현재의 설계보다 보다 유연한 혼합형 예산관리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10여년간 운영의 경험과 이를 토대로 2023~2024년에 실행한 제도 개혁 과정을 분석하여 개인예산제가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NDIS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 및 한계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확대 구조, 서비스의 용도와 용처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는 보수적 설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NDIS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일부분 사전에 흡수·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접근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본 사업으로 확대시 서비스 예산의 유연성 제고, 당사자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장,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체계 정교화와 같은 중·장기적 구조 과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즉 NDIS가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선택 자유와 제도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사후적으로 모색해 왔다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NDIS의 제도 설계를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혁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한국의 복지 생태계와 사회서비스 시장 구조, 서비스 전달체계 내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상황적 맥락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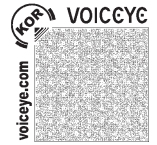
한 독자적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NDIS와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운영 범위와 거버넌스 구조, 즉 전국 단위 제도와 광역자치단체 단위 제도의 차이, 양국 복지국가 체제 및 서비스 공급 구조의 상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 방법 측면에서 문헌 및 정책 자료 분석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양적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 나아가 개인예산제도를 비교하는 사례로 NDIS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영국, 스웨덴, 미국 등 타 국가의 제도 경험을 체계적으로 병렬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추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딜레마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인예산제 추진 방향과 서울형 모형 간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며,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참여, 자기결정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성과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호 중심에서 자립과 사회참여 중심으로, 공급자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에서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호주의 NDIS의 성과와 한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재정적 한계가 맞물리는 상황 내에서 끊임없는 조정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즉 통합과 통제, 시장과 품질, 선택과 지원 사이의 긴장은 일회적 설계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NDIS의 구조적 딜레마 분석 틀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서울형이 NDIS의 시행착오를 실질적으로 학습하여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개인예산제 모형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서울형의 축적된 경험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개인예산제 도입 또는 타 지자체의 장애 관련 유사 제도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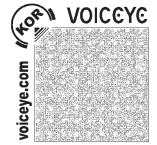
끝으로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념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가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조정하는 지속적인 정책 학습과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설아, 정종화. (2022). 신체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재활복지*, 26(1), 67-97.
- 김경미. (2020).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사람중심지원에 기반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8(48), 93-120.
- 김동기, 이한나, 어유경. (2023).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운영 모형에 대한 탐색. *장애인복지연구*, 14(1), 295-330.
- 김동홍, 정종화. (2021).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1(51), 139-172.
- 보건복지부.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안내서. 보건복지부.
- 안형진, 진형식. (2023).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국내 장애계 논쟁의 프레임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62(62), 85-105.
-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 이동석, 김용득. (2013).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2, 47-66.
- 이승기, 김진우, 이동석, 윤상용, 송주혜, 김동기, 이한나, 문영임. (2025).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 이한나, 전지혜, 김동기, 김용진. (2020).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83-118.
- 이한나. (2022). 호주 국가장애보험의 현황과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봄), 59-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준기, 김정석, 전보영, 이준우. (202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3(2), 39-73.
- Australian Government. (2024). *Budget 2024-25*. Australian Government.
-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 (2025). *Effectiveness of the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s Regulatory Functions*.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 (2020). *NDIS fraud financial crime guide*.
- Brennan, D., & Cass, B., & Himmelweit, S., & Szebehely, M. (2012). The marketisation of care: Rationales and consequences in Nordic and liberal c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77-391.

- Carey, G., & Malbon, E., & Sue, O., & Reeders, D. (2018). The personalisation agenda: the case of the Australian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8(1), 20-34.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23).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2023-24: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cl. NDIS)*.
- Eeckhout, A. v., & Jongebreur, W., & Meijer, J., & Westerhof, E., & Albers, Z., & Cornelissen, M. (2021). *Onderzoek naar de betekenis en waarde van het persoonsgebonden budget*. Eindrapportage. Significant Public.
- Glasby, J., &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Putting personalisation into practice*. England: Policy Press.
- Le Grand, J., & Bartlett, W. (1993).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 Mot, E., & Kümpers, S., & Woittiez, I. (2010). *Personal budgets for long-term car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CP).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2020). *Guide to Plan Management*.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2022). *Annual Report 2021-22*.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2023). *Annual Report 2022-23*.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2024). *Annual Report 2023-24*.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2025a). *Quarterly report to disability ministers Q4 2024-25 Presentation*.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2025b). *Plan budget and rules*. <https://www.ndis.gov.au/participants/creating-your-plan/plan-budget-and-rules>에서 2025.10.30. 인출.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NDIS) Review. (2023). *NDIS Review - Working together to deliver the NDIS*.
- National Disability Services [NDS]. (2025). *Disability Reform Action Plan for Government*.
-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2019). *Annual Report 2018-19*.
-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2022-23*.
-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2024). *Annual Report 2023-24*.
- Needham, C. (2011). *Personalising public services: Understanding the personalisation narrative*. Policy Press.
- OECD. (2021).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21, Issue 1).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a4b2ab8d-en>.
- Productivity Commission. (2011). *Disability Care and Support. Inquiry Report 54*. Aus



- tralian Government.
- Productivity Commission. (2017).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costs*. Australian Government.
- Sørensen, R. J., Grytten, J., & Torjesen, D. O. (2020). Supplier-induced demand for health services: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Health Policy*, 124(3), 314-323.
- Spandler, H. (2004). Friend or foe? Towards a critical assessment of direct payments. *Critical Social Policy*, 24(2), 187-209.
- Westberg, K. (2010). *Swedish personal assistance: LASS and beyond*. Socialstyrels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weden).

Abstract

Designing Disability Personal Budget Systems

: Structural Dilemmas and Insights from the NDIS Reform

YoungIm Moon*, SeungKi Lee**, JinYoung Jang***

This study analyzes the ten-year implementation trajectory of Australia'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and its 2023–2024 reform process to identify the structural dilemmas inherent in personal budget schem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eoul Personal Budget Pilot Program.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personal budgets consistently give rise to three fundamental dilemmas: (1) the boundary-setting dilemma concern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existing welfare systems and personal budgets; (2) the provider management dilemma involving tensions between market openness and quality assurance; and (3) the support-system dilemma between maximizing participant choice and ensuring the practical supports necessary to exercise that choice. These dilemmas represent universal structural features of personal budget systems rather than context-specific anomalies.

Drawing on the NDIS experience, this study proposes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eoul model. First, adaptive boundary management is required, whereby system boundaries are iteratively refined rather than fixed ex ante. Second, Seoul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odeos@hanmail.net

***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 should pre-emptively design a risk-differentiated provider management framework, in contrast to the NDIS’s retrospective reforms following market expansion and quality failures. Third,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nt choice depends on a structured support system; therefore, ensuring independence, professional capacity, and stratified intensity in planning support is essential. Fourth, while the current proxy-payment mechanism enhances financial accessibility and administrative stability, Seoul should explore incremental pathways toward participant-directed budget management—tailored to participant capability and service characteristics—as the program scales.

The Seoul personal budget model benefits from strategic advantages such as temporal learning, gradual expansion, and a conservative starting point. However, key developmental challenges remain, including enhancing flexibility, strengthening autonomy, and establishing robust market stewardship. Rather than merely replicating the NDIS design, Seoul is uniquely positioned to internalize the lessons of NDIS’s trial-and-error process and develop a Korean context-specific, evidence-informed model.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longitudinal and participant-centered method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identified dilemmas manifest in the Seoul context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merging governance arrangements at both municipal and national levels.

Keywords : Personal budget, NDIS, Seoul personal budget pilot, structural dilemmas

논문 투고 : 2025.10.31.	논문 심사 : 2025.12.18.	게재 확정 : 2025.12.18.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통권 8호)

발행처 한국장애인재단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상민

전화 02)6399-6235

팩스 02)6399-6238

홈페이지 <https://www.kfpd.org/>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바비엡3차)

인쇄처 디자인이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은령(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공마리아(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초빙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주(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심규하(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학과)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창호((전)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복천(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Vol. 6 , No.2, Dec 2025

Contents

- Development of a Countertransference-Based Model for Self-Interpretative Training through Han Kang's *The Vegetarian*: Focusing on Friedrich Nietzsche// Seong-Dong Park
- Transforming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Twice-Exceptionality (2e) through Experiential School Design// Jaehyeon Ahn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tress-vulnerability model: A Multigroup Analysis by Disability Severity// Hyeyeong Jeon
- Social Interactions and Boundaries of University Space Among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Henri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EunBean Kim, HaRi Jo, Kyoll Lee
-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Using Assistive Technology among Uganda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Tuliwangula Peter, JinJa Chung
- Experiences in Developing and Applying Welfare Technologies for People with Cerebral Palsy: Focusing on the Experiences (Perspectives) of ICT Developers and Users// BoMi Kim, YoungIm Moon, ChaeEun Song
- Designing Disability Personal Budget Systems: Structural Dilemmas and Insights from the NDIS Reform// YoungIm Moon, SeungKi Lee, JinYoung Jang